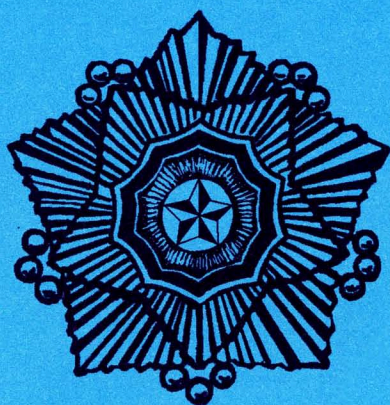


조선문학



3

주제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3호

(루계 제809호)

~~~~~ 차 례 ~~~~~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론설) 고 철 훈(3)

오늘과 미래(시) 홍 민 식(5)

조국이며 밀어타오(시) 김 경 남(6)

금에 대한 이야기(담시) 김 광 호(6)

꽃의 세계(시) 박 상 민(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나를 동지라고 불러주셨습니 다(시) 렬 정 실(8)

단편소설 해군대기 리 주(9)

주체문학의 대강 (21)

우리 선생님(시) 오 정 로(21)

백두의 부름소리(시 묶음) 조 광 원(22)

옛 토지문서앞에서(시) 곽 명 철(25)

시대와 생활의 진실한 감정에 대한 시적형상(단평) 리 원 길(26)

세 포 처녀(가사) 리 종 원(27)

수 나무를 심자 엄 성 영(38)

꽃 가 보 조 인 영(57)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쳐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김 정 은

단
편
소
설

어머니는 곁에 있다	안 명 국(28)
뿌리깊은 나무	리 국 철(43)
정 성	오 광 천(60)

◇ 단 평 ◇

통속적인 가사, 독특한 필가형식	박 현 학(41)
안락미인	민 경 옥(79)
◇ 땅을 분여받은 그해 이야기	김 정 경(37)
◇ 좋은 봄이다	김 명 철(40)
☆ 내가 사는 세상	김 정 삼(56)
나는 과학자의 안해예요 외 1편	한 동 선(58)
시 꽃다발을 받아다오(시초)	심 영 일(70)
☆ 단전마을사람들	류 정 실(72)
◇ 착암수의 노래	리 경 체(75)
◇ 레성강에 발전기가 왔다 외 1편	리 영 일(76)

가사에서 외부형상의 특성을 되새겨보다(연단)	차 명 철(73)
--------------------------------	-----------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작가 알퐁스 도대와

단편소설 《마지막수업》(자료)	김 지 예(77)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소식)	(20)
상 식	(39), (40), (69) 유 래 (42)

론 설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벽찬 숨결은 우리 작가들의 창조적열정을 불태우며 심장을 폭발시키고있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는 전초병들인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보건부문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는 문제는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이며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해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심으로써 당의 선군령도파라 백승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문학예술부문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지 못하고 주저앉은 원인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와 과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학예술부문이 주저앉아 일떠서지 못하고있는 것은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는 사상적각오와 립장이 투철하지 못한데 있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위대, 돌격대가 되어 우리 당 문예정책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타는 정열로 받들었기에 문학예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력사에 류례없는 20세기문예부흥을 안아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주체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 력사적전환의 시대이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혁명을 힘차게 벌려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은 우리의 문학예술, 선군문학예술을 사상예술적으로 세계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며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어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문예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다.

침체를 불사르라는 당의 요구는 문학예술부문이 더 이상 주저앉지 말라는 우리 당의 절절한 당부이며 아직도 동면하는 창작가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경종이다. 창작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조건타발을 운운할 때는 이미 지났으며 현실에 몸을 잠그지 않고 시대의 부름에 외면하는 현상, 명작창작을 위하여 사색과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그릇된 창작태도 등 문학예술부문을 침체상태에 빠뜨리는 온갖 근원들을 문학예술혁명의 불길로 가차없이 불살라버려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이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은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의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어제날의 쥐꼬리만 한 지식을 가지고 격변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을 그리려 한다면 그보다 더한 시대적착오는 없을것이다. 지식의 빈곤과 철학의 빈곤, 상식의 빈곤은 문학예술을 침체상태에 빠뜨리는 중요원인의 하나이며 이를 극복함이 없이는 새것의 창조와 혁신이란 있을수 없다.

창작은 원래의 의미에서 독창적이며 창작가의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형상은 높은 실력과 기량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높은 지식과 기량을 쌓기 위한 창작가의 피타는 노력과 열정이야말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해내게 하는 필수조건이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드높

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아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작품창작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첫째가는 본분이고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지난해만 하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의리의 전역》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홍단》, 《2009년》 등이 창작되어 우리 문학사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수령형상단편소설인 《집에 대한 이야기》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여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켰다.

창작가들은 수령형상창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 품모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품위있게, 체취가 생생히 느껴질수 있도록 진실하고 절절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채워주고 수령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새겨주어야 한다.

우리의 창작가들은 또한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고 하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노래한 시가 작품들과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으시고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그의 불멸의 령도를 형상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는 데 주력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사상론을 주장하며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건설하고있다.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발악해도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것은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나가기때문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천만군민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문학예술의 참다운 생명력은 온 사회를 혁명적열정과 기백으로 끓게 하고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면하여 창작가들은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주체의 작품들을 활발하게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람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교양하고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각별한 힘을 돌려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굴함없이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선의 고비를 헤치며 조국해방을 맞이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이 있어 우리의 선렬들은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승리의 전통만을 이어왔으며 오늘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승리의 진군길을 보무당당히 행군하고있다.

창작가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결하고 강毅한 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약동하는 시대의 거세찬 숨결을 작품에 잘 담아야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기 위해 농장벌마다 농사차비로 들끓고 동서해들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련일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들에서는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중요공업부문들에서도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

오늘과 미래

홍 민 식

문득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경
꿈인가 하면 꿈아닌 생생한 오늘
오늘인가 하면 상상조차 못할 먼길에
어리둥절...
통 종잡을수가 없구나

오늘이 마치
자리를 내주기도 전에
문득문득 와닿는 미래로 하여
가슴벅찬 우리 시대여

어디까지가 오늘이고
어디서부터가 미래이나
오늘과 미래가 한데 어울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오늘에 꿈같이 누려보는 놀라운 이 행복

아찔하니 오르며 내리며 뒤번져지는
유희장의 하늘세계
물놀이장의 웃고 떠드는 물세계
궁궐같은 살림집이며
호텔같은 노동자합숙 연풍과학자휴양소...
이제는 그 모든것이 평범한 우리 생활이 되었
구나

오늘과 미래는
먼 시공간을 꼭 사이에 두는게 아니구나

오늘은 불변의 지구자전으로 흘러가지만
미래는 년대와 세기
그 시공간을 어떻게 비약하는가에 따라
눈앞에 와닿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하거니

아, 우리 원수님
미래를 안으시고 미래를 가꾸시며
하루빨리 미래를 펼쳐주시려
그 위대한 심장으로 천만심장에 불을 지피
이 땅우에 나래치게 하여주신 조선속도!

조선속도 그것은
그이의 구상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그이의 리상이라면
세기를 날아넘는 전설같은 비약의 불바람!

그것은 한계를 모르는
우리의 힘 우리의 속도 우리의 기상
그것으로 이 땅우에
천지개벽 천도개벽 일으키고
그것으로 먼 미래도 오늘에 당겨 펼쳐지거니

젊음으로 약동하는 나의 조국이며
이 행성우에 천하제일 문명강국으로 무궁번영하라
오늘과 미래가 함께 사는 나라
오늘에 미래를 누리여가는 우리 시대
오, 위대한 **김정은**시대여!

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창작가들은 이러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시대의 거세찬 숨결과 시대정신을 작품창작에 구현하여야 한다.

들끓는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장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궁궐같은 집과 휴양소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과학탐구에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창작가들은 과학탐구의 길에 자기의 지혜와 망심을 바쳐가는 새 세기 우리 과학자들의 생

활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고무해 주어야 한다.

창작가들은 현실속에서 선군시대의 공로자들, 아름다운 미풍의 창조자들을 적극 찾아내어 그들의 소행을 소개하는 문학작품들도 적극 써내야 한다. 취재배낭을 메고 현실에 뛰어들었다고 하여 현실체험이 다 되는것은 아니다. 현실속에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마음속에 뛰어들줄 알아야 하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참다운 인간미를 발견할줄 알아야 한다.

창작의 원천도,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터전도 현실속에 있다.

창작가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명작폭포로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이며 밀어다오

김 경 남

한그루의 나무에서
내 조국의 푸른 산천 그려보시는가
천만년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는가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
애어린 한그루의 나무를 드시고
따스한 미소를 보내주신다

그 영상 우러르니 안겨오누나
나라가 허리띠 조이던 어려운 시기
이 땅의 모든 산과 들 푸르게 하시려
여기에 양묘장도 꾸려주신
아버이장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나무야 양묘장의 나무들아
위대한 그 사랑안고 어서빨리 자라거라
이 나라 모든 산마다 푸른 숲 우거지면
숲속엔 온갖 새들 더 많이 깃을 펴고
황금산의 새 력사는 더욱 빛나게 펼쳐지려니

아, 우리 원수님 지금 그날을 그려보시는가
그래서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
지으시리
이제 가야 할 전선길 천리 멀어도

지새우셔야 할 밤 백날천날이여도
쉽을 모르시고 지칠줄 모르시리

그렇다 우리 원수님은 미래를 안고사신다
그래서 추켜드신 이 애어린 나무에도
그리도 정깊은 사랑 부어주시거니
그것이 그이의 심중에 뿜고있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아니라

조국이며 믿어다오
산천에 심어야 할 나무가 많다 하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심장에 피줄을 잇고
우리 원수님의 애국의 숨결로 숨쉬는 우리거니
어이 구실 못할 나무가 있으랴
어이 한치라도 빈땅있는 산 있을수 있으랴

아, 조국이며
그대의 따뜻한 품에 안겨자란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그대의 산과 들에
억년 변색없는 푸른 감옷 입히려니
기어이 그대를 일떠세우리라
세상이 부러워하게

담 시

금에 대한 이야기

김 광 호

자, 여기 이 자리요
두번째로 우리 장재도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떠나시면서 몸소 금을 그어주신
그 자리가 말이요

그때 여기가 어떤 곳인가
사품치는 날바다의 격랑보다
직접조준으로 겨누어져있는
연평도 원수들의 포아가리가
더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이 아닌가

글쎄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작은 목선을 타시고
우리 섬초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었으니
그이를 바래워드리는

우리 병사들의 심정도 오죽했겠나

그래서 눈물속에 자꾸만 따라서는데
여기 이 자리에 이르시여선
이젠 여기서 헤어지자고
몸소 허리를 굽혀 주옥-
이렇게 금을 그으시고는
내 손을 잡고 간곡히 당부하시었소

-중대장동무
내가 배에 올라 떠날 때
전번처럼 병사들이 바다물에 뛰어들지 못하게
여기서 차렷구령을 내리시오!
내 그래야 떠나겠소

섬초병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그이의 음성도 젖어들고

차마 《알았습니다》대답을 선뜻 드리지 못하고
나도 눈물만 흘리며 서있는데
그이께선 또다시 힘주어 말씀하시었소

—자, 중대장동무!
이 금앞에서
어서 차렷구령을 내리시오
이건 최고사령관의 명령이요!

명령이어서
감히 한치도 에누리할수 없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어서
나는 하는수없이 그이 그어주신 금앞에서
구령을 내렸소
—중대 차렷!

허나 구령은 내렸지만
그이께서 타신 배가
서서히 기슭을 떠나가자
그 금을 넘어 또다시 병사들은
침병침병 바다물에 뛰어들었소

아마 천리 불바다에도 그렇게 뛰어들었을거요

그래
저렇게 비록 바다가 가로놓여있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우리 병사들사이엔
진정 자그마한 실금이라도 있었소?

없었지!
그래서 그이께선
위험천만한 장재도에 오시고 또 오시고
우리 병사들은
다신 오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이고 또 아뢰
이고...

자, 이것이 그날의 금이야기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선
뜨거운 사랑의 금을 그어주시며
수령과 전사사이의 혼연일체를
더욱더 철통같이 다져주시었소!

꽃의 세계

박 상 민

한생을 생물학에 바치면서도
내 이런 꽃세계는 처음으로 맞이했네
마가울 소슬바람도 이 호수가에선
봄빛에 젖어 파스함을 한껏 품은듯

코스모스도 마지막꽃잎 떨군지 이윽하건만
휴양각 내 침대곁에선 백합이 웃고있구나
연풍과학자휴양소 산보길가에서
나를 보며 웃던 들꽃들은 무엇을 속삭였던가

사철 꽃속에서 휴식하게 하시려고
기울이신 그이 사랑 꽃향기 되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 환하신 미소에 뿌리를 두고
온 세상의 꽃들이 여기에서 다 피고있구나
휴양생들 얼굴에도 행복의 웃음꽃 만발했으니

호수가 물녘엔 참대숲이 설레고
휴양각 창가엔 돌배향기 그윽해라
룡암덕 잣나무는 언제부터 자랐는가
실한 잣송이들은 다람이의 놀이감인듯

눈길 닿는 곳마다
꽃의 세계 향기의 세계

이런 절경 이런 황홀경에
내 정녕 무슨 일을 했다고 잠겨있는가

송구하기 그지없는 마음속에서
그래도 자꾸만 솟구치는 웃음꽃이여
꽃을 보고 향기에 취해 피어나는것이라면
쉽게 시들지라도
영원히 시들수 없는 꽃이라네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행복의 웃음꽃이 아닌가

한없이 귀한 꽃
대를 이어가며 피워야 하는 꽃
사진속에도 남겨야 하지만
고마움에 울고 보답의 열망으로 높뛰는
이 심장속에 영원히 피워야 할 꽃

피워도 제일 아름답고 향기롭게
세상에 다시 없는 꽃으로 피어나리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등의 하나로 내세워주신
과학전선의 1번수답게 끝없이 피여 향기 풍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의 꽃이 될 마음
아, 연풍과학자휴양소 꽃의 세계속에 가다듬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항일혁명에 그 모든 액운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폭풍이었으며 이 나라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준 세기적인 사변이었다. 조선의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우리 로동당시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여성중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이어받은 무수한 여성영웅들과 여성활동가들, 여성로력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안영애, 조옥희, 리수덕, 리신자, 정춘실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가 낳은 여성영웅들의 사고와 실천을 지배한것은 백두의 낮이었다. 우리의 수백만 여성들은 오늘도 이 낮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보루를 쌓아가고있다.》

나를 동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럼 정 실

나를 동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먼 산골짜기 이름없는 개울가에서
병사들의 땀젖은 군복이며 신발을 빨며
토닥토닥 방치질로
지는 해의 걸음 붙잡던 나를
우리 원수님 동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동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초소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이기에
가정의 호주노릇
병사들의 어머니노릇 다 맡아안은 나를...

동지란 말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에 부르는
가장 높은 칭호 아닙니까?
그럼...
그럼...
내가?!

전조선 근무 마치고
병사들 돌아오는 날 어린애마냥 쫓아보며
—우걱빨아 네 차례다
코노래로 회초리 대신하던
염소방목의 나날들이
동지가 되는 길이였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노래랑 불러드려야지
유치원선생처럼
두 아들에의 꽃잎같은 손 부여잡고

군가도 배워주던 최전연의 기나긴 그밤들이
동지가 되는 길이였습니까?

황송스럽습니다
눈곱이 찌르르 젖어옵니다
군관인 남편의 직무에 이어붙는
누구의 아주머니로
아이들의 이름다움에 놓이는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우던
내가...
원수님의 동지로 되었으니...

태양의 빛을 받아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나는 지금 못녀인들의 선망의 눈길우에
숨을쉴습니다
인생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또 이사짐 싸들고
그 어느 골짜기 인적없는 초소에 간대도
웃으며 가렵니다
《일당백》대오앞에 날리는 선군기폭
부사수의 숨결로 더욱 퍼덕이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입니까?
한겨울 김이 문문 나는
남새밭 두엄무지우에서
넘쳐나는 행복을 껴들고 대지에 뿌리듯
거리대질도 걸한
수박색숨옷의 녀인이 납니다
원수님 불러주신 동지들중의 한명입니다



리 주

바다에선
해병모의
맹기 두오리
잠들지 않는다
병사가 날리는 기발인듯...

(무명시인 2014. 1.15)

1

밤, 바다...
불쑥 타오르다 사그라지곤 하는 불빛들...
적들의 함포사격은 벌써 몇달째 계속되고있다.
잠간씩 동안을 두고 광막한 바다물면은 먼 수평선에서 달음쳐오는 발사의 여광을 받아 피빛으로 출렁인다.

멀지 않은 바다기슭 어데선가에서 둔중한 폭음이 울리곤 한다. 그러면 이 땅의 또 누군가가 침략자의 오만과 악행을 저주하며 잃어진 집과 상처입은 혈육을 부여안고 타오르는 분노속에 복수를 다짐하리라...

이밤도 적의 군함들은 우리의 해변 가까이에 기여들어 주민지대들을 야수적으로 포격하고있다. 함흥과 원산을 비롯한 동해안의 수많은 도시들과 공장, 마을들이 폐허로 되어버렸다.

어둡고인 바다, 굴할줄 모르는 조선의 밤...

그것은 정전을 며칠 앞둔 7월의 어느날 밤에 있는 일이었다...

그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흘러갔다.

...

《평양-개성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갈림길에서 차를 세우시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운전사에게 이르시였다. 차창밖에는 가을걷이에 바쁜들의 전경이 한쪽의 그림처럼 흐르고있다. 통일거리쪽에 준비하게 늘어선 고층건물들이 한결 뚜렷이 안겨오는것으로 미루어 개성방향으로 꺾어드는 갈림길도 얼마 멀지 않은것 같다. 쾌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자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의 모습이 한결 선명해졌다.

농장마을쪽 갈림길로 시누렇게 익은 강냉이이삭들을 한가득 실은 트랙포르가 툽툽 소리내며 달리고있다. 운전수가 보통육십꾸러기가 아닌 모양 한발 잘되게 높은 적재함을 두개씩이나 뒤편에 깔고있다. 역시 잘 여문 강냉이이삭들을 넘칠듯 실은 달구지행렬이 길옆으로 바짝 붙어 바쁜 길을 가고있다. 멀지 않게 강냉이창자들로 둘러싸인 탈곡장이 보였다. 가을걷이를 서두는 모습들을 보니 풍작을 마련한 사람들의 기쁨이 자신에게 그대로 안겨오는듯싶으셨다.

전선시찰을 마치고 이 길로 돌아오실 때면 언제나 잊을수 없는 하나의 회억이 그이의 가슴을 적셔주곤 했다. 머나먼 현지도와 전선시찰로 노상 집을 떠나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을 기다리시며 어머니와 함께 밤깊도록 마음속으로 뵈아보시던

이 길...

기다림으로 밤을 보내던 잊지 못할 그날들이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만 간직되어있다.

...

승용차는 소리없이 멈추어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잠깐 그대로 차에 앉아계셨다. 저 하늘가에 파도모양의 흰구름이 떠가고있다. 파도, 파도... 불쑥 마음속에 또 하나의 못 잇을 모습들이 떠오르셨다.

지난해 2월 동해의 자그마한 군항에서 낮을 익힌 병사들의 모습이였다. 그날 구잡함의 기동훈련을 보아주시길 때 얼마나 씩씩하고 활기에 넘쳐있던 전사들이었던가.

(함장 박명호, 수뢰수 림철순이...)

그이께서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전사들의 이름을 불러보시였다.

훈련결과를 보고하던 함장의 표정 뚜렷한 눈길과 어딘가 바르지 못한 자세로 대렬끝에 서있던 외줄배기 림철순의 잘 익은 사과알모양 발갛하고 통통한 두볼은 아직도 그냥 눈에서 사물거리기만 한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누가 말했든가. 준엄한 평화라고...

그이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웃웃주머니들을 더듬으시였다. 그러시며 맘속으로 뇌이시였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주머니는 비어있었다. 그러나 그냥 의자우로 손 더듬을 하시였다.

문득 옆좌석에서 반들거리는 종이장이 손에 잡힌다. 펼치니 보고 또 보아 눈에 익을대로 익은 용사묘의 형성안이었다.

묘석, 화환진정대, 묘를 둘러싸게 되어있는 란간...

형성안을 만든 해당 군부대에서 무척 성의를 기울였다는것이 알린다. 그러나 어텐가 허전해보인다. 무엇때문일가. 그들은 바다를 지키던 해병들이었다. 해병...

해병들에게만 고유한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 묘비에는 돌사진도 붙여주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고이 잠들어있는 용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하는것도 필요할것이다...

그이께서는 절걱 소리나게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기시였다. 성큼 땅을 밟는 순간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한가득 품에 들어와 차는것을 느끼셨다.

풍요한 가을날을 마음에 안아보는 기꺼움과 이 땅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이 오늘따라 그이의 가슴을 한층 더 뜨겁게 덥혀주는것이였다.

귀중한 전사들의 생이 이 대지에 그 신성한 숨결을 더해주고 떠나간것이다. 인민군총정치국부국장이 발자욱소리를 죽여가며 다가왔다.

《최고사령관동지... 이젠 더 마음을 쓰시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도 슬픔에 떨리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도리를 하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더 커지는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마음을 쓰시면... 최고사령관동지!》

《잇을수가 없습니다. 그 눈이 동그랗던 림철순이... 아직도 랑볼에 솜털을 벗지 못한 그가 그냥 해죽이 웃고있는것만 같은 말입니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린 수행일군들이 길가에 그냥 서있는것을 보시였다. 무거운 사명감이 어깨를 내리누르는것을 느끼셨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상민을 곁으로 부르시였다.

《림철순의 사진을 지금 볼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진이...》

최상민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대답을 좀자른다.

《어서 가져오시오.》

김정은동지께서는 급하신 어조로 이르시였다. 며칠전 집무실에서 회생된 용사들의 사진을 보아주시길 때 웬일인지 림철순의 사진만은 눈을 감고 찍은것이어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다. 그래 즉시 다른 사진을 찾아보도록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최상민이 서류가방을 조심히 열었다.

《중대사물고에 보관되어있던 사품들에서 가족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진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시였다. 아담하게 꾸러진 자그마한 정원에 오붓하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 그리고...

키낮은 꽃나무와 마당 한켠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나무의자마저 사진의 주인공들과 잘 어울리고있다.

사진속의 중학생은 어쩐지 얼굴색이 밝아보이지 않았다. 사진으로는 그가 훈련때 수뢰수로 자기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한 군인이라고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다. 어깨폭이 좁고 목이 길었으며 눈가에는 자기 내심의 그 무슨 불만스러움을 응시하듯 고뇌의 빛이 질었다. 사진의 아래부분에 정히 박아쓴-《고향을 잊지 말라, 주체100년 5월》

이라는 글자가 자못 의미심장하게 안겨왔다. 그러니 군대에 입대할무렵에 찍은 가족사진인 것이다.

《학생시절 사진이구만. …》

그이께서는 서운하신 어조로 뇌이시었다.

《군복을 입은 사진은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최상민이 조심스레 말씀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노상 함선에서 살다나니 언제 사진을 찍어보았겠소. 그런데 이 병사의 얼굴표정이 왜 밝지 못한지 알아보았습니까?》

《아직 …》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가족에서 어떤 문제라도 없었는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관심하시는 해병모의 행처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김수철장령이 당중앙위원회앞으로 사죄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영웅의 해병모를 … 아직 행처를 찾지 못했습니까?》

그이께서도 전쟁시기 한 영웅이 남긴 해병모자를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있는것이 무척 아쉽게 생각되시었다. 모자를 찾는다면 군인교양에도 좋고 영웅의 전투업적을 전하는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젠 더 찾기를 단념해야 하는가. …)

김정은동지께서는 계획된 전선시찰일정을 변경시킬것을 결심하시었다.

《오늘은 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국장동무가 날 대신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군부대에 내려가 전사들의 생활형편을 자세히 료해하구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높아진 가을하늘에 잠깐 눈길을 주시었다. 설된 구름이 뜬 하늘은 어느날과 다름없이 맑고 푸르렀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사들을 아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2월 구잠함을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긴한것을 주고싶었는데 … 그들이 내결을 떠나간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최상민을 향해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무래도 여기서 부국장동무와 얘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동무가 한발 먼저 들어가 림철순의 사진을 찾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야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알아보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구잠함을 시찰할 때 찍은 기념사진이나 특화자료에서도 찾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김수철장령의 편지는 두고가시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행일군들을 모두 자기 사업단위로 돌아가도록 이르시었다. 잠시후 길옆공지에는 총정치국부국장을 비롯한 몇명의 보좌성원들이 남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수철장령의 편지를 잠시 내려다보시었다. 김수철장령은 전쟁이 끝날무렵에 군복을 입고 얼마전까지도 해군에 복무해온 공로있는 사람이었다. 그이께서도 김수철장령에 대하여서는 이미 파악이 제쳤다.

《김수철장령이 이제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총정치국부국장이 정중히 보고드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슨 일에서나 자기 주장을 먼저 내놓지 않는 웅심깊은 총정치국부국장이 그의 나이를 상기시키는것에 주의가 가시었다.

그이께서도 김수철장령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것을 알고계셨다. 그러나 새로 꾸리고 개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강사로서 그의 나이가 많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적 없으셨다.

《전쟁로병들이 이제는 모두 일흔고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가 나이때문에 맡은 일을 하기 힘들어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전쟁로병들은 우리곁에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이께서는 김수철장령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시었다.

전쟁이 끝날무렵 어느날 원산앞바다에서 기뢰공격으로 적군함 3척을 침몰시키고 장렬하게 전사한 영웅의 유물인 해병모자, 그 모자를 영웅의 아들에게 넘겨주던 전후의 어느날 이야기며 지금에 와서 그 행처를 알지 못하고있다는 사연이었다. 그가 영웅의 아들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김수철장령이 구잠함소식을 알고있습니까?》

《그 일이 아직은 군대안에서도 …》

《김수철장령은 구잠함 722호의 세번째 함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갔으니 아마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것입니다.》

《예, 저도 문건상으로만 알고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구잠함

에 대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일꾼들의 마음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해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해왔으며 더우기 한때 구잡함의 함장으로 일한적 있는 장령은 알 필요가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가슴아파하겠지만 알려줄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잡함용사들을 길이 추억하며 영웅의 유물을 끝까지 찾으려는 당의 의도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바친 렬사들의 고귀한 생을 빛내주는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전쟁시기 그 해병모자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조직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정은동지의 음성은 절절하게 울렸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도로의 포석우를 거니시었다.

《그리고 희생된 용사들의 묘소를 꾸리는 문제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대의 일꾼들과 토의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들의 이해와 부모, 자식들에 대하여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

《최고사령관동지 ...》

《용사묘형성안은 전승기념관의 김수철소장같은 로병들과도 협의해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형성안을 만들 때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로병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에 들고계시던 종이장을 총정치국부국장에게 넘겨주시었다.

《사랑하는 전우들을 잃으며 가렬처절한 전장을 피로써 헤쳐온 로병들은 정신심리적으로 매우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그러한 정신세계를 체험하는것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심오한 내적탐구가 없으면, 사람들의 가슴에서 흐르는 피와 땀과 눈물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줄 모른다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기념비를 옳게 형상해낼수 없습니다. ...

반세기이상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속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오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 인간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감정세계, 숭고한 사상세계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시켜나가는것은 항시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

그동안 내가 생각한것들을 여기에 그려보았습니다. 참고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용사묘형성문제로 이 하루동안 무척 생각이 많으셨다. 해당 부문에서 올려온 형성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것이다. 그리하여 짹짹이 연필로 소묘해두시었다. 하얀 종이에 는 그이께서 손수 그리신 용사묘의 구체적인 형성도안이 담겨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협동농장의 탈곡장쪽으로 눈길을 주시었다. 가을걷이에 바쁜 트랙터들이 행렬을 지어 탈곡장을 벗어나는것이 보였다. 조금전에 싣고 들어간 강냉이들을 모두 부려놓고 다시 별로 나가는것이라 생각되었다.

그 평화스런 정경에 눈곱이 아릿해오시었다.

이 나라의 하늘과 땅에 흐르고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생활에도 용사들이 바친 고귀한 생이 깃들어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셨다.

2

소리도 없이 늑실대는 바다.

맛설수 없는 힘, 가늠할길 없는 미지의 세계 ...

밤바다는 자기의 억센 힘을 파도의 갈피마다에 깊숙이 묻어둔채 고요히 뒤설레이고있다.

침침한 물우에는 당장이라도 부서져버릴듯싶은 긴박한 정적이 떠 흔들리고있다. 끊임없이 뒤척이는 파도에 받들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가고있는 전마선 한척 ...

물결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폭이 좁은 배는 자그마한 충격에라도 금시 뒤집혀버릴듯 불안스레 흔들리고있다. 바람에 불려 금방 물우에 떨어져 내린 가랑잎갈기도 한 그 배우에 두사람이 타고있었다.

후렁후렁한 해병내외로 무척 가냘팠 보이는 어깨며 잔등을 조심히 가리운 애송이청년, 고물에서 노를 젓고있는 역척같은 사나이 ...

굵직한 어깨우에 파발총을 엇가로 멘 그는 바다와 한덩어리가 되었다기보다는 무엇으로써도 갈라놓을길 없는 바다의 한부분인듯싶다.

머리에는 꼭 맞는 해병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 역시 바다와 꼭배와 서로 뗄수없이 어울리고있다. 희끄무레 색이 바랜 덧카바, 이따금 모자의 땀기가 땀에 젖은 불편에 날아와 수렴력을 건드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불편을 만지작이는 땀기가 전혀 거치장스럽지 않은듯싶다. 오히려 그것이 제멋대로 날리도록 머리를 엇가로 젓기도 한다. 이물에 주저

앉아 그의 림름한 모습을 부러운듯 훑쳐보던 애송이가 저으기 놀린듯 한 목소리로 묻는다.

《우리가 정말 미국놈들의 군함을 족쳐낼수 있을까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기만 한다면야...》

《아직도 포를 쏘대는군요. 죽일 놈들...》

《얼마 더 날치나 보자. 기뢰전인바줄이 풀리지 않나 잘 살펴야 해.》

노대가 배전을 굽으며 삐걱- 갈린 소리를 낸다. 구대원의 두툼한 입술은 불편에 날아와 지분대는 땀기를 아예 꼭 물고있다. 어둠속에서도 이마를 건너지른 깊숙한 주름이 보이는듯싶다. 애어린 《해병》의 알뜰한 입술에 즐거운듯 미소가 떠날질거린다.

그는 바다에 나서면 두오리의 땀기가 펄펄 날리는 해병의 등글모자가 무척 부러웠다. 아직 그에게는 군복이 차례지지 않고있는것이다. 그가 바깥 여원 몸에 걸치고있는 푸른 줄무늬의 헐버렁한 해병내의도 구대원의것을 얻어입은것이였다.

그러니 모자까지 넘겨달라고 비위를 부리기엔 아직 자기에게 무엇인가 부족되는것이 있음을 알고있는 까닭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원산앞바다에 기어들어와 밤마다 함포사격을 해대는 적들의 군함을 찾아가고 있었다....

《전쟁의 마감무렵 우리 해병들은 기뢰로 적함선들을 답새기는 가렬처절한 육탄공격까지 단행하였습니다....》

...하루일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부터 김수철소장은 퇴근하기 전까지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회상담 비슷한 글을 쓰곤 한다. 집필은 늦게까지 계속되기가 일쑤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은 글이다.

호기심 많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학술연구사들조차 그에게 쓰고있는 글이 어떤것인지 말해달라는 청만은 드리지 못하고있다.

백-

야무진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옆에서 퇴근준비를 서두르던 녀장사의 억양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신경을 진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장사 김송희 전화받습니다.》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구만. 김수철소장동물 바꿔주소시오.》

김수철소장은 펜을 놓았다. 수화기에서 울려오는 정치부장의 사려깊은 목소리를 알아들었던것

이다. 책상우에 널린 종이장들을 간종그리며 불안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림병초영웅의 아들과 영웅이 남긴 유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사회편지를 올린 그날부터 그는 심기가 편안치 못했다. 어쩐지 귀중한 해병모자를 이제는 영영 다시 볼것 같지 못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전화 바꾸었습니다.》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군요?》

《예, 그저 좀...》

무엇때문인지 가슴이 빠근해지며 숨이 가빠났다. 우정 느릿이 늘구는 정치부장의 덤비지 않는 목소리가 진동판을 나직이 흔들었다.

《그럴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보내준 용사묘의 형성안을 보고 견해가 없습니까? 가령 어느 방안이 더 좋을것 같다는 정도만이라도...》

《예, 두가지 방안중에 연필로 소묘를 한...》

김수철소장은 말을 더듬었다. 머리가 복잡한탓인지 선명하게 표현할 말마디가 떠오르지 않았다. 성미가 차분한 정치부장은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짤막하게 당부했다.

《이제 그 형성안들을 가지고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금방 원고개를 넘어선 정치부장은 피로가 담긴 얼굴에 언제나와 같이 웃음을 짓고 김수철소장을 맞이했다.

《퇴근시간을 지체시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바쁜 일같은데...》

김수철소장은 안고온 종이장들을 책상우에 내려놓았다. 색을 먹어 깨끗하게 다듬은 형성안보다 단필로 굵직굵직하게 골격을 세워놓은 하얀 모조지우의 연필화가 더 감각적으로 안겨왔다.

《저는 연필로 소묘한 이 형성안이 마음에 듭니다. 용사묘의 전반적분위기가 주변환경과 어울릴뿐아니라 문주, 묘비를 비롯한 묘소의 구성요소들에 내포되어있는 주제가 명백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정치부장은 송수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조용조용 얘기를 주고받았다. 김수철소장이 용사묘의 두 형성안중에서 연필로 소묘한 형성안이 주제가 뚜렷하고 구도가 독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있다는 보고였다. 이야기끝에 단숨을 내쉬며 송수화기를 놓았다.

《한대 태우십시오. 상급정치부에서 잠간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조금 억양을 높여 강조했다. 나이가 많은 장령을 늦도록 사무실에 《불들어》 두는것을 미안스레 생각하는듯싶었다. 이야기를 주고받은 대방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없었다. 김수철소장은 이즈음 별로 입에 대지 않는 담배를 한대 뽑아들었다. 그러나 피울 생각이 없어 정치부장이 집어주는 라이터를 외면하며 뜨직한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별로…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김수철소장은 책상우에 놓인 종이장들을 조심히 번져놓았다. 소묘한 형성안을 이속도록 들여다보고 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용사묘가 해병의 군모를 상징하고있는게 의미심장합니다.…》

《해병모자를 상징하고있단 말이지요.…》

정치부장의 입가에 느슨한 웃음이 떠올랐다. 나이에 비해 일찍 처지기 시작한 눈꺼풀이 수북한 장미와 피로에 눌러 한층 부드럽게 꼬르르쳤다.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용사묘의 형성안을 두고 무척 마음쓰고계시는줄로 알고있습니다.》

《…》

김수철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름깊은 얼굴이 이듬할길 없는 감동으로 환히 빛나기 시작했다. 말소리도 더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형성안이?!》

김수철소장은 더 묻지 않았다. 담배에 불을 붙인 그는 폭신한 안락의자 한쪽 귀퉁이에 몸을 싣고 허리를 꼴꼴이 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형상하는데 참가했던 어느 한 예술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나서 기념비미술의 생명력을 조형성과 상징성, 구체성과 섬세성으로 특징지은것은 우리 식 미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우리 해병들의 군모에는 〈조선인민군 해군〉이라는 일곱글자가 씌여져 있습니다. 희생된 용사들의 돌사진을 붙이게 되는 화강석 묘석이 바로 해병모자의 이 댕기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댕기라… 그럼 용사들의 돌사진은 그 댕기에 씌여진 글자들을 상징하고있다?》

정치부장의 눈에서 이미 피로의 흔적은 찾을길 없었다. 탄력을 잃고있던 불편마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켜기우는것 같았다.

김수철소장은 그의 달라져버린 얼굴표정을 잠간

여겨보았다.

《바로 보았습니다. 연필로 소묘한 형성안은 그렇게 착상이 독특합니다. 묘소를 둘러싸고있는 이란간을 보십시오. 군항의 부두에 늘어놓은 안전란간의 목직한 쇠사슬고리들을 련상시킵니다. 이젠 용사묘의 주인공이 해병이라는걸 확신성있게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구… 돌사진을 붙이게 되어있는 이 묘석들을 보십시오. 서로 련결되어있으면서도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비둘처럼 처리되었습니다. 화환진정대는 또 어떻습니까, 화강석받침대우엔 군기가 목직한 기폭을 드리우고있는것만 같습니다. 새로 건립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주제상은 총대에 쏜 공화국기발인데 여기엔…》

김수철소장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이렇듯 대답하고 심오한 착상은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기본주제상을 놓고 창작가들속에서 논의가 분분할 때 한상의 소묘로 그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때처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 연필화를 보내 주셨다면…

전화기가 낮으나 또렷하게 신호를 울렸다. 전화를 받고난 정치부장은 김수철소장을 의미심장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서 현판으로 나갑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신다는 련락입니다!》

늦은저녁이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난 뒤에서 청사는 깊은 고요에 묻혀있었다.

김정은동지를 모신 몇명 안되는 일행은 곧추 해병관에 들어섰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영웅적해병들이 얼마되지 않는 함선들로 미제침략자들의 오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방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병관을 돌아보시는 전과정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그저 묵묵히 벌써 몇번씩이나 들어주신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뿐이다. 김수철소장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문진해전에서 우리 해병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제나와 같이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해설해드리었다.

《1950년 7월 1일 조선인민군 근위 제2어뢰정대의 해병들은 조국의 령해에 침입한 침략선들

을 야간어뢰공격으로 소멸해버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대원수님의 전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던 우리 어뢰정대의 해병들은 다음날 0시, 기지를 두고있던 속초항을 떠나 조용히 남쪽방향으로 항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수철소장은 주문진해전이 있었던 해에는 아직 해병으로 군대에 복무하지 못하고있었다. 나이가 어렸던것이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을 징벌한 우리 영웅해병들의 전투이야기는 전쟁의 마지막시각을 해병으로 보낸 그에게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었다. 그는 근위 제2어뢰정대에서 첫 병사생활을 시작했던것이다.

《새벽 4시경 주문진앞바다에 이르러 우리 어뢰정대는 어마어마하게 무어진 적들의 대함선집단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제침략군의 움직이는 섬이노라 자랑하던 중순양함 〈볼티모〉호는 함선의 길이가 205미터, 배수량이 1만 7천 300톤, 승무원이 1 700여명이었으나 우리의 어뢰정은 길이가 21미터, 승무원 7명, 배수량은 17톤으로서 무장은 어뢰 2발과 고사기관총 1정이 전부였습니다.

배수량으로 계산한데 의하면 중순양함 〈볼티모〉호 한척으로는 어뢰정과 같은 함정을 1만 3천여척이나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사에게 손을 흔드시었다.

《그날 전투에 참가했던 해병들이 모두 기지로 돌아온것은 아니었지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김수철소장은 인츰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말끝을 고루었다. 선뜻 대답을 올리기에는 물으시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심오하다고 느껴졌다.

《최고사령관동지, 전쟁은…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근위 제2어뢰정대의 정대장이었던 김군옥영웅과 전쟁의 마지막시기 원산앞바다에서 적함선집단에 대한 기뢰공격을 단행하고 전사한 림병초영웅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그때 우리 해병들이 육탄공격이라고 할만큼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전투를 치르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적들이 받은 손실에는 비할바가 아니지만…」

《림병초영웅도 주문진해전의 참가자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동지께서는 말씀을 맺지 못하시였다. 곧추 김수철소장의 얼굴을 응시하시였다.

《아바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남긴 해병모를 찾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저로서는… 제가 림병초영웅의 아들 림대복이를 만난것은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미국놈들의 폭격에 어머니마저 잃고 리당위원장의 집에 얹혀있었는데… 후에 다시 가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후에도 몇번 찾아보기는 했지만… 워낙 관심이 적다니니…》

《…》

《최고사령관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무슨 낮으로…》

《아바이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동지의 음성은 갈리어있었다. 김수철소장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담겨진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듯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근위 제2어뢰정대의 기정인 어뢰정 21호에 계양하였던 공화국기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파편에 찢긴 기발에는 가렬치절했던 전투의 흔적들이 여전히 그때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이 기발을 보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영웅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해병모자가 두명의 우리 영웅들을 구원해주었다는 감동적인 일화 역시 잊을수 없습니다.》

김수철소장은 가슴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크지 않은 전투일화마저 알고계실줄은 생각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시는 전화의 그날들이 생동한 화폭으로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긋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주문진해전에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킨 우리 해병들은 놈들의 추격을 받으며 귀항하던중 생사기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적함포사격으로 함정이 침몰하여 뿔뿔이 흩어진채 제각기 물으로 헤엄쳐가야 했던것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평소와 달리 말을 더듬는 김수철소장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

시였다.

《물에 오른 우리 해병들이 해안경비대군인들과 인민들로부터 적군으로 오해를 받았던 사연은 나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 일까지...》

《바다에서 며칠을 보내며 해염쳐오다나니 그때 우리의 영웅해병들은 인민군군인이라고 확인할수 있는 아무 근거도 가지고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림병초영웅의 목에 감겨있던 해병모자의 땀기가 다행하게도 그들의 신원을 보증해주었다고 합니다. 땀기에는 〈조선인민군 해군〉이라는 글자가 썩여져있었던것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림병초영웅은 그때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53년 7월 원산앞바다에서 저에게 자기의 해병모를 넘겨줄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해군땀기를 꼭 자기 몸에 지니고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 조선인민군 해군, 김일성장군님의 해군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싸울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 사연을 어떻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후 어느날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해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근위 제2여퇴정대 해병들의 전투일화를 보고 받으시였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얼마나 크시였는지 장군님께서서는 미제침략자들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킨 영웅해병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나 추억해주시였습니다. 몇해전 가을 동해함대의 어느 한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기회에 나에게도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장군님께 해병모자에 깃든 사연을 말씀드린 일군이 김수철장령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다심하시게... 그렇게 깊이 심중에 새겨두고계신줄은 생각 못하고있었습니다.》

김수철장령은 목이 메여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수십년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들으신 한토막의 전투일화를 한생토록 잊지 않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회고하시고 귀중한 유산으로 후세에 남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깊고 뜨거우신 은정을 우리 전사들이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에 흐느끼는 김수철소장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나직이 물으시였다.

《아바이는 구잠함 722호에 대하여 잘 알고있겠지요?》

《최고사령관동지, 제가 한때 그 함의 함장이였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구잠함 722호가 전투항행중에... 잘못되었습니다. 함에 승선하고있던 해병들은...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김수철소장은 휘여든 가슴에 버쩍 힘을 주었다. 가슴밀굽에서부터 불뭉치같은것이 치밀어올랐다. 귀중한 해병들과 함대의 자랑으로 되고있던 함선이 잘못되다니...

그러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금 얼마나 가슴저는 아픔을 안고계시겠는가...

김정은동지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가슴아픈 소식을 아바이에게 전하자니 마음에 걸려서... 내가 직접 왔습니다.》

김수철소장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걱정이 크시고 마음이 아프시였으면 이렇게 밤길을 걸으시여 자기를 찾아주시였으랴 하는 생각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동시에 영웅의 해병모자를 꼭 찾을데 대한 그이의 간곡하신 가르치심에 어떤 깊은 뜻이 깃들어있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매일, 매 시각 돌보셔야 할 수많은 중대사들을 뒤로 미루시고 옛 함장을 위로해주시려 찾아오신 최고사령관동지께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로병은 미처 알지 못하고있었다.

귀중한 전사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켜 아낌없이 생명들을 바치고있는데 이 늙은것은 걱정많은인 최고사령관동지께 무엄하게도 부담이 되는 글월을 올리는 주책없는 망동울...

《최고사령관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아바이, 이 최고사령관과 우리 해병들, 아바이와 같은 로병들이 다 같이 구잠함용사들이 남긴 전투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투항행을 전우인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전우라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전사한사람한사람을 자신의 혈붙이로, 생사를 같이할 혁명전우로 생각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열에 떠는 김수철소장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조국을 위하여 바친 전사들의 생을 빛내여주고 그들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짬짬이 용사묘의 형성안도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랜 해병인 아바이에게 보이고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정치부장동무의 보고를 받아보니 아마 아바이의 생각이 나와 신통하게 맞아들어간것 같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수철소장의 손을 잡으신채 환하게 웃음을 지으시었다.

김수철소장은 자기의 가슴속 깊은 곳에 더미더미 서려있던 땃힌것이 봄날의 눈개비마냥 한순간에 말끔히 스러져버리는것을 느꼈다. 김수철소장은 하얀 모조지를 펴들고 눈물젖은 목소리로 말씀 올리였다.

《저는 이 형성안을 만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군맹기와도 같은 묘석과 거기에 〈조선인민군 해군〉이라는 글자를 상징하듯 뚜렷이 새겨진 돌사진...》

《그것이 알리면 됐습니다. 해병이라는 군종상 특성이 돌아나게 하려고 마음을 좀 썼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수철소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 흔들어주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찌면 그렇게...》

그이의 젊고 역센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김수철소장은 어깨를 떨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었다.

《당에서는 희생된 구잠함용사들의 합장묘를 잘 만들어놓고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길이 전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60여년전 림병초영웅이 남긴 해병모자도 꼭 찾아냅시다. 나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김수철소장의 울음섞인 목소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해병관의 넓은 홀을 울리며 오래도록 메아리를 일으켰다.

3

쿵... 쿵...

적함포의 오만한 포성이 정적을 깨뜨린다.

멀리 수평선에 떠있는 여러척의 함선들이 겨끔 내기로 불을 토하기 시작한다. 얼핏 뚝타 사그러져버리는 불빛은 바로 그 함선들에서 일어나는 발사의 섬광이다.

피빛과도 흡사한 벌건 빛줄기가 부드럽게 숨쉬는 검푸른 물면에 잠깐씩 비꼈다가 자취없이 사라져버리면 기다린듯 물결이 높아진다.

전마선 한척이 뒤설레는 파도를 타고 적의 군함들을 향해 다가가고있었다. 노대의 나지막한 마찰

음이 어둠에 깃든 형언할길 없는 긴장과 서서히 줄어들고있는 폭발의 시각을 상기시켜줄뿐이다. 노를 젓고있는 사람도, 선수에 앉아 긴장한 눈길로 적함선들을 살피고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있다.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더욱 높아지고있었다. 함포의 섬광도 한층 더 강렬해졌다. 적함에 가까이 다가서고있는것이다. 이제는 파도가 일렁이는 서슬에 배우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졌다.

《준빔!...》

《알았습니다.》

선수에 앉아있던 자그마한 그림자가 바짝 허리를 굽히고 선미를 향해 다가왔다. 파란 줄무늬의 얇은 해병사프가 가냘픈 허리를 감싸고도 남아 바다바람에 기폭처럼 퍼덕인다. 힘에 부친 바다일에 선 애송이로 취급되기도 할만 한 나이이다. 노를 젓던 구대원이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노대를 끄당겨 선미에 가로놓은 다음 허리를 굽혀 물에 잠긴 바줄을 찾아쥐고 당기기 시작했다. 인츰 거뭇하게 번들거리는 둥근 무쇠덩이가 보일가말가하게 물위에 드러났다. 기뢰였다. 그뒤로 또 하나의 무쇠덩이가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구대원은 기뢰들이 파도에 밀리지 않게 바짝 바줄을 당겨잡고 짊막하게 명령했다.

《안전핀 해체...》

몸모양이 설핀 애송이《해병》이 자빠진 노대를 밀어놓고 흔들리는 쪽배의 고물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앞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조금만 더...》

공공 갑자르며 기뢰의 안전핀을 뽑느라 애쓴다. 한동안 진땀을 흘린 그의 입에서 단숨과 함께 외마디 대답이 튀어나왔다.

《됐어요.》

《음, 안전핀을 뽑았던 말이지?》

구대원의 짧고 긴장한 목소리다. 애송이는 이마에 뚫은 땀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낮에 배워준대로 했어요.》

그는 허리를 펴고 제법 만족스런 웃음을 지어보였다. 구대원은 총부력을 천천히 앞으로 당겨잡았다. 따발총을 벗겨들고 잠깐 들여다보다가 애송이《해병》을 향해 나직한 어조로 명령했다.

《총을 받으라구...》

《총은 왜 내게 주나요?》

《어서!》

애송이는 더 묻지 못했다. 구대원의 두눈에서 타오르고있는 엄한 불길을 보았던것이다. 총은 차갑

고 무거웠다. 꿈에도 바라던 총을 받아들고서도 어텐가 못미더운지 상대편의 뻔뻔하게 굳어진 얼굴을 보고만 있을뿐이다. 구대원은 빛이 바랜 하늘에 한 가득 돌아난 못별들을 보며 잠깐 서있었다.

《총은 곧 목숨이야. 순간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알았습니다.…》

《자, 이제 선수쪽으로 물러서라구.…》

애송이 《해병》은 잠깐 머뭇거렸다. 구대원의 의도를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곧 기우뚱거리는 좁은 배우에서 날렵하게 몸을 날려 선수쪽으로 물러갔다. 구대원은 어둠을 쫓느라 잔뜩 눈귀를 쫓프리고 물에 잠긴 기뢰의 상태를 꽤 오래동안 살펴보았다. 마침내 허리를 뻗을 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있지 않았다. 드디어 적함선들과 대결할 시각이 다가온것이다. 기뢰와 런결된 바줄을 조심조심 풀어주고나서 무뚝뚝하게 애송이 《해병》을 칭찬했다.

《팬찮아, 이제 기뢰의 안전핀도 제법 해제할줄 안단 말이야.…》

애송이 《해병》은 알팍한 입술을 짹 깨물고있었다. 아직은 삶과 죽음의 계선이 어디에 그어져있는지 그로서는 다 알수 없었다. 잠깐 지척에 보이는 적함선을 쏘아보고있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나도 이제 당당한 해병이에요.》

《좋아, 이제 부대에 돌아가면 정치부에 제기해서 김수철동무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입대하는 군인선서를 하게 해주지.》

《정말이나요?》

《그럼, 아직 군대냄새가 날려면 좀 멀긴 하지만… 소원대로 부모님들의 원췌를 갚아야지?》

구대원은 싱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니 갓 서른에 접어드는 끼긋한 젊은이다. 그는 자기의 머리에서 하얀 덧카바를 씌운 해병의 등글모자를 벗어들었다. 모자의 땀기가 손목에 감졌다.

《이 모자를 써봐.…》

《아주 날 줄래요?》

《그럴수도 있지.》

애송이 《해병》의 입귀가 더욱 병긋해졌다. 큰모자가 머리우에서 빙글빙글 뱅이질을 해뒀으나 제법 욱심꾸러기답게 뺨을 찡기려들었다.

《꼭 맞아요.》

구대원은 전마선바닥에 놓여있던 바람이 들어있는 주브 짹을 찾아내어 바줄로 묶었다. 물에 불어난 바줄의 한쪽끝을 기뢰와 런결된 바줄에 이어놓고

주브를 물에 떨구었다. 그리고는 잠깐 생각에 잠겨 애송이를 여겨보았다.

《이젠 널 어떻게 부를가?》

《어떻게 부르다니요? 나도 이제 당당한 군인입니다. 해병이지요.》

《그렇지, 조선인민군 해군 전사 김수철동무.》

생각지 않았던 군인대접이다. 애송이 《해병》은 후렁한 해군샤쓰의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한껏으로 기울어진 모자를 바로잡았다.

《옛, 조선인민군 해군 특무상사동지, 어떤 명령이라도 주십시오.》

짜랑짜랑 여문 목소리다. 구대원은 어둠속에서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좋아, 첫 대렬점점에서도 합격이야. 바람이 세게 불면 모자가 날아나지 않게 땀기를 입에 꼭 물고있어야 해. 그리구 물에 뛰어들 때엔 군모의 땀기를 목에 꼭 감으라구. 해병이 땀기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걸 알지?》

《옛, 조선인민군 해군이라는걸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좋아, 그걸 잊지 말아. 이제 작별하자. 어서 노를 잡으라구.》

애송이 《해병》은 자꾸 어깨 한껏으로 처지군 하는 따발총을 바로 메려 애쓰며 묵직한 노대를 넘겨받았다. 구대원은 전마선의 선미에서 기뢰와 이어진 바줄을 풀었다.

《동무의 입대청원은 부대정치부에 보고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거구 군복은 내 배낭속에 있는걸 줄귀입으면 될거야.… 사품도 배낭안의것들을 그대로 쓰면 돼. 그리구… 동문 날 잊으면 안돼.》

《?!…》

《자, 이제… 잘 가라구.》

애송이 《해병》은 그제야 자기에겐 무기를 넘겨준 구대원의 속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는 노대를 집어던지고 별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예요. 나도 같이 가겠어요.》

구대원은 불이 이는 눈길로 애송이를 쏘아보았다.

《동문 부대로 돌아가야 해. 기지장동지를 만나 내가 인츰 돌아온다고… 꼭 부대에 돌아올것이라고 보고해야 돼.》

자그마한 아량도 담겨져있지 않은 명령이었다. 애송이 《해병》은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구대원은 뒤설레이는 바다물에 침병 몸을 던졌다. 검푸른 바다물은 소리없이 자기의 아들—해병 림병초를 넓은 품에 받아주었다.

물속에서 긴팔을 벌려 해염을 치며 림병초가 나직이 소리쳤다.

《전마선을 잃어버리면 안돼. 그게 있어야 미국놈들을 이기구 고기잡이를 할수 있거던.》

《림병초동지...》

《빨리 이 수역을 벗어나라. 래일 저녁 부대에 서 만나자.》

림병초는 멍청하니 서있는 김수철을 향해 싱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한손을 들어 뜻밖에도 군인의 거수경례를 보내주었다.

《잘 가라구. 수철이... 꼭 훌륭한 해병이 돼야 해.》

우리 조국의 바다에 깊숙이 기여들어 매일과 같이 함포사격을 해대던 미제침략군놈들의 군함이 3척이나 침몰된 소식은 기지의 해병들과 주변마을 인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놈들의 나머지 함선들은 우리 해안에서 부랴부랴 쫓무니를 빼고말았다.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바다가마을들이 더는 적함포의 성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림병초는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다. 안전편을 해체한 기뢰를 안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함선들을 침몰시켰던것이다.

얼마후 전쟁이 끝났다...

《원수님, 림철순병사의 사진을 새로 형상하옵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시던 문건들을 한켠으로 밀어놓으시였다.

《어디 봅시다.》

최상민부부장이 가져온 사진은 두장이였다. 이미 보셨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림철순이였다. 사진속의 병사는 끝없는 행복으로 환히 웃음을 짓고있다. 먼저사진과는 얼굴모양조차 달라져 보였다.

《며칠전에 가져왔던 사진에서는 눈을 감고있었지...》

김정은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붉은 천에 휩싸인 림철순의 사진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시였다.

자신의 팔굽을 부여안고 의젓한 자세로 서있는 림철순이, 랑볼은 발깃하고 줄 하나뿐인 해병견장을 단 어깨를 높이 추켜올리고 무척 빠기는 자세다.

이렇게 씩씩한 청년이 입대를 앞두고 부모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무슨 일때문인지 의기소침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어떤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을가. 마음속에 웅어리진것이라도 있어 그것을

풀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면...

《철순이는 훌륭한 해병으로 자라날 청년이였소...》

그이의 어조에는 애뜻한 정이 담겨있었다. 서로 어깨를 걸고 허물수 없는 성새마냥 자신을 옹위하고 선 림스한 해병들, 모두가 행복에 겨운 얼굴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자를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구잡함에 승선했던 해병들이 전사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시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끝없이 가슴을 울려주던 심뇌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던가를 그이께서는 진작 깨치고계셨다.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자신의 마음 한부분이나마 남겨줄 자그마한 가능성마저도 영영 잃어지고말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지는듯싶으셨다...

(그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다니...)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가을밤이어서 또글또글 여분 별들이 가없이 넓은 하늘끝까지 한가득 떠 반짝이고있다.

《최상민동무, 지난 2월 함대기동훈련이 끝난 다음 전사들을 만났을 때... 림철순이만은 아버지께 대한 자랑이 없었지. 기억나지 않소?》

《최고사령관동지, 그때 철순이는 아버지가 둘에다 글을 쓰는 석공이라고 하면서 웬일인지 부끄러워했던것 같습니다.》

오랜 당일군인 최상민이 몇달전에 있던 일을 잊었을수 없었다.

림철순에 대해 뚜렷이 기억에 남게 된건 무엇때문이던가...

그는 나이가 제일 어렸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 대하여 별로 자랑할것이 없다는듯 한 인상을 주는것이 주의를 끌었다. 누구의 아버지는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친 용해공, 누구의 아버지는 영웅농장원...

하지만... 석공이라고 왜 자랑할것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러나 대답만은 씨알이 먹었다고 할수 있었다.

《아버진 저에게 해병으로 바다에서 살며 바다를 지키는것이 좋겠다고, 사내에겐 전투함선을 타는것이 해볼만 한 일이라고 말하군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니 철순인 영원히 해병으로 바다를 지켜가겠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게 선명한 표정을 가지고 씩씩하게 군사복무를 하고있던 림철순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붉은 천에 싼 사진들을 넓은 집무탁 한켠에 손수 차곡차곡 가려놓으시었다.

《이 사진들은 합격이요. 가족들에게 빨리 보내 줍시다.》

《알았습니다.》

《용사묘가 다 되었다니 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결식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뭔가 더 해줄 것이 없겠는지... 그러구 최상민부부장동문 김수철장령을 만나보아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상우에서 김수철소장이 올린 편지를 집어드시었다. 이제는 김수철장령이 제기해 온 해병모자문제를 해결할 결심이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해병관을 해설하는 김수철소장이 인상깊었습니다. 남달리 키가 크고 얼굴은 너부죽하고... 아마 한뼘 멋쟁이었을것입니다.》

원산시를 폐허로 만들려고 함포사격을 해대던 미 제침략군함선들을 자그마한 전마선에 기뢰를 달고 나가 족쳐댄 우리 해병들의 전투담은 체험자인 그

가 아니라면 그렇게 실감있게 이야기하지 못할것입니다.

내가 새로 꾸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 보면서 영웅들이 남긴 유물들을 모두 거기에 가져다 진렬해놓으면 좋을것이라고 한 말을 듣고 그가 해병모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상민의 얼굴에 어쭙은 웃음이 피어났다.

《원수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그때 김수철동무가 해병모자에 담긴 긴 사연을 자초지종 다 설명해올리기에 제가 좀 싫은소리를 했던것 같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가 기억을 바로했다고 생각되시었다.

《마음이 고정한 아바이가 그 해병모자때문에 지금 무척 마음을 쓰고있을것입니다.》

김정은동지의 어조에는 근심이 담겨있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이, 전우들에 대한 추억을 지탱이삼아 남은 생을 살고있는 로병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으셨다. 그를 더 잘 돌보아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하시었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격려하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우리의 문학작품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불씨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주체103(2014)년 제18차 《조선문학》축전상 시상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집에 대한 이야기》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김준학

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 4.15문학창작단 작가 최봉무

단편소설 《하모니카》 4.15문학창작단 작가 림봉철

단편소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 리희찬

단편소설 《소방울소리》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백현숙

서정시 《수령님과 농립모》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전승일

시초 《우리 생활은 아름다워라》 평천구역 룡교1동 박 철

평론 《위인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형상》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고철훈

평론 《바다만풍의 선물속에 넘쳐나는 서정의 향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권선철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서고금의 이름있는 작가는 다 언어의 능수였으며 민족어발전의 개척자였다.》

《문학은 오직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사상감정을 전달하는것만큼 읽는 사람들이 작가의 능란한 언어솜씨에 매혹되어 한문장한문장 눈을 밝혀가며 새겨나갈수 있게 되여야 한다. 아무리 큰 사상을 심어놓아도 문장이 읽을 맛이 없으면 독자의 마음을 끌수 없다.》

《명문장, 명표현, 명대사의 기본표징은 뜻이 깊은데 있다. 그래서 글속에 글이 있고 말속에 말이 있다고 한다. 문학의 언어는 깊은 뜻을 담은 명문장, 명표현, 명대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 선생님

오 정 로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탓에
장리쌀 서말에
땅을 때웠던 농군이
땅을 되찾으며 불렀습니다
선생님!

머슴인 탓에
너무도 억울하게
외동딸을 때웠던 녀인도
다시 딸을 불안고
눈물에 젖어 불렀습니다
선생님!

의병의 창대를 꺾고
초야에 묻혀
독한 술로 울분을 삼키던 지사들도
넋을 담아 불렀습니다
아, 선생님
김형직선생님!

애어린 가슴들이
꿈결에도 그리웠던
학교와 야학들을 열어주시어
노래처럼 울리던 이름입니다

눈은 떴어도
세상을 못 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며
난생처음 큰소리로 외운 이름입니다

교단이 따로 없고
학생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 어느 길가 발머리
초마가리 농가집 옷방도
그이께선 그대로 학교였고 강당이였습니다

상처깊은 가슴에
죽음이나 같던 삶에
재생의 피방울을 뿜게 한
환희였습니다

머슴살던 이들이
노예처럼 천대받던 이들이
큰걸음을 떼며
력사의 새벽길에
동트는 새날로 부른 이름입니다

인민이 희망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인민이 구성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선생님
김형직선생님

세월은 흘러
오늘은 강성부흥하는 새날속에 사는 우리
지원의 큰뜻을 새기며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그 신념
그 푸르청청한 기상으로
힘차게 나가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 그 이름 높이 부르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최후승리의 그날로 달리는 우리를
불굴의 투사로 키워주는
우리 선생님
김형직선생님!

백두의 부름소리

조 광 원

해마다
온천으로 바다가로 등을 떠밀며
고마운 손길이
이 손에 룡양권을 쥐어줄 때도
내 마음은 백두산 백두산을 향해있었다

료양의 그 나날
경치 아름다운 백사장에서
안해와 함께
파도소리에 취하던 그런 순간에조차
그 파도소리너머 들려오던 백두의 부름소리

삶의 순간순간
내 때없이 들던 이 부름이 아니었던가
열일곱 애젊은 가슴에
조국의 귀중함을 새겨주며
방선의 초소예로 부르던 소리
복무의 그 길에서 쓰러졌을 땐
어서 일어나라고 나에게 힘을 주던 그 소리

꿈결에도 나를 부르던 그 소리를 들으며
내 오늘 백두의 길에 올랐나니
삼륜차에 몸을 싣고서는
갈수 없으리라던 이 길
두발로 걸어서 갈수 없으면
기여서라도 기어이 오르리라던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이 길이 아니던가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안기리라

쓰러지면서도
피흘리면서도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가던
투사들의 그 정신이 내려치는 길

나는 모른다
내 이제 가야 할 이 길
얼마나 힘겨울것인지
허나 이 길은
툭으로 다리를 자르면서도
《적기가》를 부르며 투사들이 걸어난 길
수령님을 따라서 선렬들이 헤쳐간 길

신념의 이 길이 없다면
고마운 어머니조국이
영예군인 내 앞에 끝없이 열어주는
축복받은 꽃길이 어이 있으랴
한점 그늘없이 웃으며 걸어갈
내 한생의 그 길이 어이 있으랴

가노라
천리산발을 내닫던 병사시절의 군화를
마음속에 다시 조여신으며
백두의 눈보라가 나를 부르는 길
내 한생 걸어야 할 영원한 행군길로

오, 어서 오라 두팔 벌려
이 아들을 부르는
백두산 백두산으로 나는 가노라
김정은원수님을 따르는 혁명의 천만리틀!

산나물

도시에서 나서자라
산나물은 한번도 뜯어본적 없는 안해
강사의 설명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하나 책갈피에 끼워넣누나

곰취며 청취 무수해며 우정금...
음식에선 모르는게 없었던 안해
우리 굴 익히는 소녀가 된듯

조리방법도 하나하나 물으며
빨찌산복차림의 처녀강사를 부여잡고
놓을줄 모르는구나

어이 알라 손에 든 그 풀이
이른봄 남먼저 돌아나
녀대원들 기쁘게 해주던 그 산나물은 아닌지
한겨울 허리치는 눈속에도 남아
투사들을 기다려준 그 고마운 풀뿌리는 아닌지

아, 산나물
빼앗긴 조국을 찾는 길에서
우리의 선렬들
너의 뿌리도 달게 씹으며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살았거니

너를 어찌 천만석의 낱알에 비길것인가

오늘의 커가는 행복에 겨워
너의 맛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태어나도
혁명의 대를 이어갈 세대는 끊기려니

오늘도 밀림속 곳곳에 억세게 자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겨주는 너
더욱 청청 무성하여라
이 땅에 생을 둔 백두의 후손들이
언제나 참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오, 인생의 첫 강의를 받듯
강사의 한마디도 심장에 새기며
안해여 그대는 소중한 푸른 잎새를
하나하나 정히 품는구나
답사책의 갈피갈피에
우리의 인생에!

진대나무앞에서

거목이 우거진 청봉밀림에
두터운 이끼덮고
엄숙히 누워있는 진대나무
네앞에 하나의 생각 멈추어선다

찬바람 눈서리 피해
양지바른 언덕에서
천년을 살아있는 나무라면

이리도 장하랴

오, 살아 한생 백두앞에 부끄럼없고
죽어도 백두산을 베고 누운 너
한없이 성스러운 이 땅에선
밀림속 하나의 진대조차
나에게 참된 삶을 깨우치누나

전적지마을사람들

청봉, 건창
삼지연, 소백수...
그 어디에 가나 반가웁구나
인사말 한마디면 정이 통하는
천고의 밀림속 이 고장 사람들

떠주는 한 공기 물도 백두의 물
차려주는 상우에도 밀림속 산나물
말은 적어도 속깊은 마음들에
천지의 웅심이 어려오고
대곧은 이깔의 모습이 비껴오는
전적지마을사람들

잡아보자
 밀립속의 늘씬한 이빨나무같은
 숙영소처녀야 너의 손도 잡아보자
 백두에 뿌리박은 천연바위같은
 삭도공 사나이의 그 역센 어깨도 안아보자

이들이 아닌가
 백두의 풀 한포기 부석 하나도
 자기의 살점보다 더 아끼며
 한생을 사는 사람들
 불달린 한그루 나무에도
 서슴없이 한목숨을 덮을줄 아는 사람들

정녕 이들이 지켜가는
 백두의 이 흙 한줌이 없다면

수만정보의 간석지는 넓혀서 무엇하며
 백두의 돌 하나 그 무게를 모른다면
 수억톤의 보화를 캐고캐신 무엇하랴

그래서
 이 땅우에 거창한 창조물을 세워가는 영웅도
 말없이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애국자도
 그대들의 평범한 하루하루앞에
 자신들의 한생을 생각깊이 세우나니

아, 전적지마을사람들
 우리 민족만대의 번영을 떠받든
 영원한 재부가 무엇인지 깨우치며
 여기 눈바람 세찬 백두산기슭에
 흔들림없는 그대들의 삶이 있도다

성산의 물

내 어린 날
 이 몸을 길러준
 고향의 맑은 샘물도
 여기서 시작되어 솟구친것이구나

내 나라 산과 들을 적시며
 오곡을 자태우고
 이 땅의 행복을 쫓피우며
 흐르고흐르는 락원의 강들도
 여기서 시작된것이구나
 백두성산의 물

걸음은 천리를 걷고
 마음은 만리를 달려
 내 여기 백두산에 오른것은
 이 한모금 물로
 가슴을 적시기 위함은 아니었던가

물이어
 삼천리가 떠인 성산의 물이어
 민족의 은인을 맞이한 그날로부터
 마침내 혁명의 냇이 깃들어
 너없는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의 피가 된 백두의 물이어

세대와 세대가 바뀌는
 혁명의 먼먼길에
 행복한 날에도 이 물을 마시며 우리 자랐고
 참기 어려운 시련의 날에도
 이 젖줄기만은 놓지 않아
 백두앞에 세운 삶을 더럽히지 않았거니
 백두성산의 물
 너는 그 어떤 천지풍파도 흐리울수 없는
 우리 혁명의 순결한 피줄기
 만년세월에도 변치 않을

영원한 백두의 명맥

너로 하여

이 나라 강줄기들은

변함없이 푸르고푸르리라

너로 하여

이 땅의 아들딸들은

더욱 참되고 억세여지리라

오, 네가 이 메부리우에

백두의 정기 뿜으며

천만년 용솟아 삼천리를 적시는 한

인민의 무궁한 힘은 하늘에 닿으리니

안고가리라

방울방울 이 몸에 흘러들어

내 삶을 언제나 백두의 숨결로 높뛰게 할

성산의 물이어

백두의 하늘가에

영원히 너를 떠이고 우리 살리라

옛 토지문서앞에서

곽 명 철

지주놈의 무릎우에서 때없이 번져지며
소작인들의 고혈을 악착스레 짜내던 토지문서
지금은 계급교양실의 진렬대우에서
새 세대 우리들의 걸음을 멈춰세운다

토지개혁의 그 봄날
빼앗긴 땅 어느때건 기어이 되찾는다
이를 갈며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었다던
우리 마을 황지주놈의 저 토지문서

세월은 흐르고흘러
저렇듯 토지문서 누렇게 퇴색되었다고
세대가 바뀌고바뀌어
그날의 지주놈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계급적원썹들의 그 본색마저 희미해졌으랴

계산하고있으리라
그 아들놈에 이어 그 손자놈이
그 손자놈에 이어 그 증손자놈이
피를 물고 오늘도 맘속으로
수판을 튕기고있으리라

비록 저 토지문서에 내 이름 올라있지 않아도

원썹들은 사회주의 이 제도에서
복을 누리며 산 우리들 절대로 용납치 않으리
칼을 품은 가슴에
너와 나의 이름을 똑똑히 새겨두고있으리라

잊지 말자
그날의 토지문서의 갈피는
여기서 더 번져지지 않아도
원썹들은 세월을 번져가며
기어이 우리를 또다시 노예로 삼으려
개거품을 물고 미쳐날뛰고있음을

땅만이 아닌 행복의 이 락원전부를
다시는 잃을수 없는 우리
증오로 타끓어번지는 이 가슴속에서
원썹에 대한 복수의 갈피를
쉽없이 끝없이 번지고 또 번져야 하리

오, 말해주고있다
누렇게 뜬 저 토지문서는
계급의 준엄한 피의 결산이 앞에 있음을
순간도 순간도 잊지 말라고

단 평

시대와 생활의 진실한 감정에 대한 시적형상

리 원 길

참으로 매혹과 흥모, 감동이 없이는 들을수 없는 노래이다.

노래 《고백》은 진실한 가사와 세련된 선율형상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형상의 진실성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지며 화폭속에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이 구현되면 될수록 진실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 번영하는 내조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노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면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가 가슴에 새겨지는것이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문학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리론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것이 옹게 결합된 작품의 사상예술적감화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커다란 흥분속에 느끼게 되기때문이다.

노래 《고백》에는 확실히 문학이 있다.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심오한 철학적사색으로 이끌어나가는 문학적인 발견이 있는것이다.

가사에서는 철학의 세계와 미의 세계가 펼쳐져있는 가사의 내용을 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이 가사에 구현된 시적형상의 경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실지 생활을 그대로 련상시키는 평범한 시어속에서 철학과 미를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심원한 사상과 숭고한 미를 개성적으로 실감있게 밝혀내고있는것이다.

그 경험을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저 한다.

노래 《고백》의 시적형상에 대해 고찰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먼저 관심을 돌리게 되는것은 그 어떤 심각성보다도 시형상의 진실성을 돈구면서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탐구한것이다.

언어를 극히 아껴쓰며 간결하게 표현하는것은 가사의 본성적요구이다. 따라서 생활에서 본질적인것을 찾고 그 본질속에서 심오한 사상과 숭고한 미에

감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누가 그 누가 불려서 그 품에 안기랴
심장이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그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그 누가 그 누가 떠밀어 이 길을 가는가
심장이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열정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그이의 곁에서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고백
그 령도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을 시와 노래에 담아 부르고싶은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심정이다. 이 가사에서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인품에 이끌려 따르는 자기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한것이다.

이것을 넘두에 둘 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시대와 생활을 폭넓게 일반화하는 내용을 담을수도 있다. 그러나 가사는 《나》와 령도자와의 관계를 생활적인 시어속에서 진실하게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생활감정은 2절과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다.

이 가사를 쓰게 된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당의 사상을 받들고 쓰기 시작했을수도 있고 세기적 기념비적창조물로 우뚝 일떠선 창천거리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직접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는 우리 근로자들의 행복상을 바라보며 썼을수도 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이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비약의 발전이 이룩된 그 력사적과정을 더듬어보기도 했을것이며 자기자신이 언젠가 삼을 들고 여러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였던 보람찬

생활을 회상도 했을것이다.

이러한 상상,련상과 더불어 총적으로 부언하게 되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주도적인 감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품과 덕망에 매혹되어 그이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전인민적인 감정을 노래에 담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속의 절절한 속삭임, 심장의 고백을 듣는듯 하다. 그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는바를 솔직히 말하는 토로이기도 하며 그 인품에 끌려 끝까지 따르려는 복받치는 정열이기도 하며 그 령도를 일편단심 받들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작곡가는 바로 이 고백에 넘치고있는 이 모든 열정의 감정을 감수하고 이 가사에서 선물을 발견하였을것이다.

이처럼 노래 《고백》은 시적형상이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다.

그것은 가사에서 시형상이 진실하고 철학적깊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론리를 앞세우거나 시인의 의도를 생경하게 로출시킨것이 아니라 사상의 핵을 틀어잡고 하나의 정서로 일관시켜나가기 위한 작가의 재능에 그 비결이 있다.

이 가사에서 또한 시어를 라렬하지 않고 뜻이 명백하게 씬으로 하여 작품의 진실성과 철학적깊이를 보장한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바와 같이 가사는 노래로 불리워야 한다.

따라서 가사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수 있는 생활적인 언어로 씬여져야 한다.

가사 《고백》의 시어들은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고 부르기도 쉬운 언어들이다.

대표적으로 《그 누가 그 누가 불려서 그 품에 안기랴/심장이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에서는 쉬운 말과 간결한 표현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천만군민의 감정을 생동하게 노래하였다. 이 시어들이 보여주는것처럼 가사의 모든 표현들이 알아듣기 쉽고 순탄하며 그 뜻이 명백히 살아나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고싶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외적 표현으로써만이 아니라 내적표현과의 결합속에서 정서적으로 표현한것이다.

이처럼 가사에서 《꿈에도 안기네》라는 표현을 쓴것은 여러가지 사물현상을 의식하는 정신적 현상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쓴것으로 하여 시적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적깊이가 확고히 보장되게 하고있다.

이와 같이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시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노래의 세계에 더욱 깊이 잠겨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따르려는 진실한 느낌을 보다 인상깊이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이상의 경험들을 분석하면서 시인들은 언제나 개별적이며 외형적인 사실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갈라보고 파악한데 기초하여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느끼게 된다.

모든 시인들은 노래 《고백》에서 발현된 시적형상을 적극 본받아 시대가 내세우고 인민이 사랑하는 가사들을 더 많이, 더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가 사

세 포 처 녀

리 종 원

꿈많은 가슴에 배낭을 메고
고향집 떠나서 달려온 마음
조국의 부름을 받드는 길에
내 삶의 자욱을 새기여가네
라 나는야 세 포 처 녀
해빛안고 피어난 꽃송이

사나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선렬들 녀으로 불라는 마음
원수님 따르는 오직 한길에

돌격대 어머니 누이 되였네
라 나는야 세 포 처 녀
해빛안고 피어난 꽃송이

인생의 꽃시절 세 포 등판에
보람찬 삶으로 빛내갈 마음
어머니 우리 당의 참된 딸 되여
이 나라 강산을 빛내여가리
라 나는야 세 포 처 녀
해빛안고 피어난 꽃송이



안 명 국
그림 김 광 석

1

《향국오빠, 빨리 따라와야지 그러다 나한테 저.》

숫눈길 위에 포박포박 발자국을 찍어나가던 영순이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함박눈이霰은 뒤 맑고 청신한 공기를 헤가르며 울리는 소녀의 명랑한 목소리에 향국이라 불리운 총각애는 어질게 생긴 눈을 습벅이며 씩 웃었다. 주먹으로 코등을 문지르고난 향국은 영순을 향해 배심 좋게 대답했다.

《내 걱정은 말고 네 자국이나 똑똑히 찍어.》

친오누이처럼 자별한 사이인 그들은 눈이 멧기 바쁘게 프락프락바퀴찍기놀이를 벌려놓았다.

빠그득, 빠그득...

소복이 내려썰인 눈을 밟는 소리가 고즈넉한 대기를 귀맛 좋게 흔들어놓는다.

《영순아, 네가 찍은 바퀴자국은 왜 그렇지? 줌 포박포박 찍으렴.》

머루알같이 까만 영순의 눈동자가 방금 지나온 길을 훑었다.

《응.》

영순은 머리를 까닥거렸다.

캐득캐득 즐거운 웃음소리를 날리며 소년소녀는 바퀴자국내기놀음에 여념이 없었다.

은빛눈우에 한대의 프락프락이 지나간듯싶은 바퀴자국이 그들이 지나온 길우에 새겨졌다.

《영순아, 우리 저기까지 가자.》

향국은 전차선로가 지나간 저탄장의 3층짜리 종합지령실을 가리켰다.

《응.》

향국을 친오빠처럼 따르는 영순은 군소리없이 머리를 또 한번 까닥거린다. 한메터, 또 한메터...

발자국자리가 점점 길어졌다.

이때였다.

《영순아!》

향국이와 나란히 발자국을 찍어가던 영순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딜 다녀오는 길인지 영순의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엄마!》

영순은 향국이와 하던 놀음을 단박에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눈우에 찍히던 발자국이 흐트러졌다.

《채탄공아저씨들이 준거다. 향국이와 나눠먹어라.》

영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난 어머니는 새끼곰이 귀엽게 웃고있는 상표가 찍힌 사랑봉지를 쥐여주며 말했다.

《응.》

영순은 발쭉 웃으며 고개를 까닥까닥했다. 그리고는 향국이쪽을 헬끔 돌아보았다. 향국은 흐트러진 영순이의 발자국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입술을 감빨고있었다.

딸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쓸어주고난 어머니는 탄광마을쪽으로 사라졌다.

《울엄마가 준거야. 어서 먹어.》

사랑봉지를 터쳐 향국의 손에 한웅큼 쥐여주고난 영순은 자기도 한알 입에 물고나서 제자리에 가섰다.

《자, 또 해보자.》

영순은 전차가 사라진쪽을 할곳 보고나서 향국에게 재촉했다....

《애 영순아, 교대시간 늦지 않겠냐?》

경대앞에 앉아 함치르르 흘러내린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비다듬다말고 어린시절의 추억에 잠겨있던 영순은 뒤울안에서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문득 깨어났다.

《예. 다 됐어요.》

영순은 꺼내보던 사진을 누가 볼세라 황급히 책갈피속에 끼워넣으며 대답했다.

향국의 동생 향옥이가 두해전 가을 시집을 갈 때 그가 운전하던 전차를 배경으로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손가방에 출판물보급원에게 부탁하여 구입한 《발파각도와 그 효률》이라는 책까지 넣고난 그는 서둘러 토방을 내려섰다.

《어머니, 나 일어나가요.》

《오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담가에서 울려왔다.

마당에 나서 대문을 열려던 영순은 무릎 걸음을 멈추었다. 저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나갔다.

《아이, 고와.》

손벽을 짝 마주치는 영순의 예쁘장한 얼굴에 함뿔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머니, 여기 좀 와요.》

영순은 뒤울안에 대고 소리쳤다.

《일나가다말고 왜 또? 무슨 못 볼거라도 봤니?》

《글쎄, 빨리 좀 와요.》

영순은 어리광조로 아부재기를 쳤다.

흙밭이 묻은 호미를 든 어머니가 다가왔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내가 심은 살구나무에 드디어 꽃이 폈어요. 무려 다섯송이씩이나...》

영순은 천진란만한 소녀와도 같이 다섯손가락을 활짝 펴보이며 방긋 웃었다.

《아니, 정말... 네가 애지중지하며 정성을 기울이더니 끝내 첫 꽃이 폈구나.》

어머니는 영순이 기뻐하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능청스런 표정으로 말을 잇달았다.

《혹시 이 꽃이 우리 영순이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느라고 핀건 아닐까?》

《무슨 소식 말이에요?》

영순은 쌍까풀진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옛날부터 꽃이 곱게 피면 벌나비가 찾아든다지 않던.》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비졌다.

《엄만 또...》

영순은 고운 눈을 할깃했으나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에는 웃음발이 서서히 퍼지고있었다. 황황히 대문을 열고 나오는 영순에게는 두해전 늦은가을 어느날 저녁 골개울가에서 외로이 자라던 어린 살구나무를 떠오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영순은 고개너머에 있는 탄광벌목장에 이동작업 나갔다가 돌아오고있었다.

바위썸으로 지졸대며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앉아서 손을 씻고 일어서던 그는 물에 씻기위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난채로 바위틈에 외롭게 서있는 연약한 살구나무를 발견하였다.

두손으로 흙을 감싸쥐고와 뿌리를 덮어주던 영순은 이 살구나무가 다음해에 장마가 지면 아예 떠내려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은연중 갈마들었다. 외롭게 서있는 살구나무에 대한 런던의 정이 사무쳐왔다.

(이 나무를 우리 집에 옮겨심으면 어떨까?)

영순의 눈앞에는 아지마다에 연분홍꽃을 피우며 소담하게 자라는 살구나무의 모양이 안겨왔다. 영순은 어린 살구나무를 정성들여 뜨기 시작했다.

이때 압축기운전공 순희가 개울가로 다가오다 물었다.

《영순아, 그 살구나무를 떠선 뭘하러니?》

《응?! 집에 가져다 심으려구.》

《애, 그만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짧은 열매만 달리는 그런 나무를 집에 심어선 뭘해.》

순희는 괜한 수고를 한다면 영순을 나무랐다.

(그렇가?)

영순의 마음속에서는 한순간의 동요가 일었다.

《어서 가거나 하자, 날도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재촉하고난 순희는 앞서가는 동무들을 따라 실개울을 닮은 돌덩이로 달려갔다.

순희의 말이 옳은것 같기도 했다. 머리를 기웃하고 한참이나 앉아있던 영순은 이제는 거의 드러난 뿌리위에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다.

이때였다.

《그래도 정성을 기울이기탓이 아닐까?》

느닷없이 울리는 웅글은 목소리에 영순은 놀라 머리를 들었다. 뜻밖에도 얼마전에 새로 온 탄광초급당비서가 그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있었다. 아까 동발목을 나르는 현장에서 보았더랬는데 그도 아마 손씻으러 개울로 나온 모양이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영순동무가 마음만 먹으면 크고 탐스러운 백살구가 주렁주렁 열리게 할수도 있지.》

《어떻게 말입니까?》

영순은 주저하고 망설이던 자기의 마음을 알아맞춘 당비서에게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말해줄까?》

당비서는 처녀의 감정을 슬쩍 든장질하며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영순이와 함께 잔뿌리 하나 상할

세라 살구나무를 쓰면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봄이 오면 여기에 백살구나무를 접해보오. 그러면 백살구가 주렁주렁 달릴거요. 글썄 두고보라니까.》

이듬해 봄 영순은 과수원에 가서 한창 봄물이 오르는 백살구아지를 얻어왔다. 그리고는 당비서가 가르쳐준대로 눈접을 했다. 그 나무가 한해사이에 이렇게 자라 어느덧 첫 꽃을 피웠던것이다....

《어머니, 이제 석달만 지나면 이 나무에서 이만큼씩 큰 백살구를 딸수 있을거예요.》

영순은 자기의 주먹을 들어보이며 장담하듯 말했다.

《그래그래, 듣기만 해도 흐뭇하구나. 일 늦겠다. 어서 가봐라.》

《그럼 나 가요.》

《아참, 내 정신 좀 보지. 영순아, 내 깜박 잊을번 했구나.》

성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꽃보자기에 싼 꾸레미를 들고나왔다.

《이걸 향국이에게 갖다주어라.》

《이게 뭔데요?》

꾸레미를 받으며 영순이 물었다.

《글썄 오늘이 향국이 생일이구나. 그 애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생일상을 잘 차려주었겠는데... 변변치는 않지만 소대원들과 나누어먹으라고 해라. 요즘 그 애가 무슨 새 발파법을 연구한다면서 뛰어다닐내기 제 생일이나 생각하겠니.》

영순은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향국이와 막장에서 매일이다싶이 만나곤 하는 자기는 그의 생일에 대해 감감 잊고있었는데 어머니의 사려깊은 마음속에는 잊혀진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시샘이 가득한 표정을 짐짓 지었다.

《응- 엄만 그저 향옥이 오빠밖에 몰라.》

《어이구, 명절날만 되면 향국이네 오누이가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모르겠다며 뭘 좀 꾸러달라고 조르던건 누군데.》

어머니는 딸의 도도룩한 이마를 손가락으로 꺾 눌러주며 기겁계 허를 찼다.

《그땐 향옥이가 생각나서 그런거지 내가 뭐...》

영순은 얼굴을 활짝 붉히며 변명하듯 말했다.

《됐다. 어서 가봐라.》

종종걸음으로 출근길에 오르는 영순의 눈가에는 미소가 잔글거렸다. 그는 출판물보급원이 때맞추어 도서를 구입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여간만 즐겁지 않았다. 지금 한창 새 발파법에 대해 연구하느라 고심하는 그에게 참고서적을 생일날과 맞추어 주게 된것이 영순에게는 몹시도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새봄을 맞는 탄광마을의 정취를 미쁘게 느끼는 영순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봄아지랑이처럼

뒹 피어오르고있었다.

2

여느때에 비해 많은 공차를 문 전차는 천천히 막장으로 달렸다.

이따금 평긋거리는 수전기불꽃을 바라보며 전차를 운전하는 영순의 눈앞에는 지나간 나날 향옥이 형제와의 우정의 단편들이 언뜻언뜻 어려왔다.

어릴적 영순이네는 밤골에서 향옥이네와 가깝게 지내며 함께 자랐다. 탄광지구에 새 살림집들이 많이 일떠서면서 영순이네가 먼저 이사를 하게 되자 영순은 향옥이네와 헤어지는것이 싫어 영영 옮기까지 했었다.

그후에도 영순은 공부가 끝난 후 잠만 생기면 밤골에 찾아가 해가 지도록 향옥이네와 놀곤 했다. 그러다가 새 동무들이 생기면서 발걸음이 점차 뜸해졌다. 그러던것이 향옥이가 영순의 교대전차운전공으로 되면서 소꿉시절에 맺어진 그들의 우정은 다시 이어졌고 동심의 세계를 뛰어넘어 더욱 차별해졌다. 영순은 어린시절의 추억이 다름다름 새겨져있는 향옥이네 집을 뻗질나게 드나들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향옥이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렇게 차별한 사이이던 향옥이 두해전 가을 이웃탄광으로 시집을 갔다.

그때부터 향국이 혼자서 생활하는 그의 집에 대한 발길은 더디어졌지만 영순은 탄광에서 순직한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어엿한 굴진공으로 자라나는 향국을 볼 때마다 은근한 동경심을 품게 되고 무엇으로든 위해주고싶은 생각이 자꾸만 서려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말이 없고 일밖에 모르는 청년...

영순은 차츰 그것이 그의 남다른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때없이 드는것을 느끼곤 하였다.

어느날 영순은 어머니에게 향국의 이런 성격에 대해 은근히 내비쳤었다. 바느질감을 잡고앉아 딸의 말을 듣고있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자란, 더구나 탄부란 그렇게 무게있고 진중해야 하는거야. 너의 아버지도 그랬지.》

어머니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영순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한 말이 탄부의 성격에 대한 해답처럼 또렷이 새겨졌다....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잠겨있던 영순은 로선이 구배진 곳에서 전차에 부하가 실리는것을 감촉했다. 오랜 전차운전공으로서의 예민한 감각이 공차가 레루에서 탈선되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게 했다.

전차를 세운 영순은 안전등으로 공차를 하나하

나 살펴보며 나갔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공차가 레루이음부위를 넘어서다가 탈선되어 침목우에 내려앉아있었다.

영순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배관을 타고 흐르는 압축공기소리만이 소연할뿐 인적이 하나 없었다. 영순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갱안의 모든 막장들에서 작업의 첫시작부터 공차를 요구하고있어 막장을 다람쥐 채바퀴 굴리듯 돌아야겠는데 일은 참 골고롭게도 되었다.

탈선된 공차를 복구하자면 시간이 필요했고 적어도 한두사람의 손은 더 있어야 했다. 채탄장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해볼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내 머리를 짓고말았다. 방금 막장을 인계받은 그들은 공차가 들어오기 전에 석탄을 확보해놓으려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을것이다.

(옹지, 교대를 마치고 좀 늦어서 나가는 탄부들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의 도움을 받자면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영순은 동발목을 가지러 뛰어갔다. 그리 굽지 않은 동발목 두대를 메고 다시 숨차게 달려오느라니 앞쪽의 공차옆에서 안전등빛이 번쩍거리는것이 보였다. 무등 반가움이 앞섰다.

《공차가 탈선됐구만.》

버력을 차며 달려오는 사람이 전차운전공임을 알아보았는지 저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라고 생각한 영순의 걸음새는 점차 더더어졌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다른 아닌 탄광초급당비서임을 그는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던것이다. 당황해졌다.

당비서는 처녀가 몹시 당황해한다는것을 느꼈는지 호방스레 말하였다.

《운전공이 누군가 했더니 영순동무였구만. 우리 탄광에서 기능이 제일 높다는 운전공이 탈선을 시켰다는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다. 허허.》

그리고는 주땃거리는 영순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어서 오오.》

영순의 어깨에서 동발목을 받아 내려놓은 당비서는 자기가 런결고리들을 뽑겠으니 어서 가서 전차나 후진시키라고 했다.

영순이 수전기불꽃을 날리며 전차의 가동을 시작하는데 안전등빛신호가 왔다. 런결고리들을 해체했으니 전차를 앞으로 길게 뽑으란다. 영순은 전차를 얼마간 전진시켜놓고나서 다시 당비서쪽으로 뛰어갔다.

김성혁초급당비서는 우선우선한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볼가?》

영순에게는 당비서가 《다시 한번》이라는 말에 그루를 박는다는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전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영순은 어쩐지 꼭 필요할 때에만 나타나주는것 같은 초급당비서의 모습이 신기하게 되새겨왔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볼가?》

그 말의 의미가 영순에게 두달전의 추억을 안아왔다.

...그날 영순은 전차의 실동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는 방도를 서툰 도면으로나마 옮겨가지고 탄광기계공장으로 찾아갔다.

영순이 들고온 감속기치차를 개조하기 위한 도면을 찬찬히 연구하고난 공장기사는 장은 처녀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동무의 부락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지만 런합 기업소의 산하탄광들에서 요구하는 부속품가공이 많이 제기되다보니 지금은 도무지 짬이 없구만. 그러니 후에 토론해보는것이 어떻소, 응? 그렇게 하지? 처녀동무!》

기사는 영순의 부락을 당장 들어주지 못하는것을 무척 미안해하며 달래듯 말했다. 영순은 기사의 말이 리해는 되면서도 마음만은 허전했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걸음발이 무거워졌다. 설핏해지기 시작한 저녁해빛을 밟으며 영순은 고개를 소곳한채 탄광으로 향한 길에 나섰다.

30리 상거한 곳에 있는 탄광마을을 향해 타발타발 걸음을 옮기던 영순은 지나치는듯 한 차발동소리와 함께 《거 영순동무 아니요?》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앞에 벗어선 승용차문이 열려지고 탄광초급당비서가 차에서 내려서는것이 아닌가.

《옹구만.》

김성혁당비서는 그를 이끌어 차에 태웠다.

《 시내에 왔던게구만.》

달리는 차안에서 묻는 그에게 영순은 《예, 탄광기계공장에 좀...》 하고 일버무리었다.

당비서는 영순의 말꼬리를 제꺼덕 잡고서 다시 물었다.

《탄광기계에? 거긴 왜?》

그는 심란해하는 영순의 목소리에서 무엇인가를 예감한 모양이었다.

영순은 호- 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영순이가 만지작거리는 종이두루마리속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것을 짐작하였는지 당비서는 그것을 자기가 볼수 없는가고 친근하게 물었다. 도면을 들여다보면서 영순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당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이것만 도입하면 전차의 실동률을 그만큼 더 높일수 있다는거겠소?》

《예.》

차는 어느덧 탄광마을에 들어섰다.

《영순동무, 이 도면을 내가 좀 보면 안되겠소?》
영순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어귀에서 그를 내리워 주며 당비서가 하는 말이었다.

이튿날 영순은 뜻밖에도 새로 가공한 감속기치차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당위원회일군으로부터 당비서가 탄광기계공장으로 찾아가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여 밤을 새워 치차를 가공해왔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다.

그때 영순은 한 처녀의 고심이 깃든 소박한 창조물을 위해 남모르게 한밤을 바친 당일군이 고마와 속으로 눈물을 지었었다....

그때의 추억에 이어 오늘일을 떠올리니 영순은 얼굴이 뜨거워났다. 공연히 잠생각에 잠겨있다가 공차를 탈선시켰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났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언제나 따뜻한 빛이 자기를 은은하게 휩싸안고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며 마음이 훈훈해왔다.

채탄장들에 공차를 넣어주고난 영순은 나머지 공차를 끌고 굴진막장으로 향했다.

향국은 착암기의 드센 진동에 몸을 맡긴채 발과 구멍을 뚫느라 여념이 없어 영순이가 가까이에 온 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향국의 작업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는 영순의 가슴속에서는 따뜻한 편민의 감정이 샘처럼 솟구쳐 올랐다.

영순은 향국의 곁에서 착암기정대를 바로잡아주고 공기호스도 당겨주는 공훈탄부아바이에게 참고도서와 함께 어머니가 꾸려준 생일음식을 내밀었다.

《허허, 오늘 우리 소대가 향국이덕분에 명절을 쇠겠는걸...》

아바이는 마음이 즐거운듯 막장을 드렁드렁 울리며 유쾌한 웃음을 날리었다.

영순은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아바이의 웃음소리를 수집은 마음속에 새기며 전차에 올랐다.

3

다음날 후야근교대시간이었다.

교대를 인계받던 영순은 향국이가 일하는 고속도 굴진막장에서 봉락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교대운전공에게서 들었다. 영순은 얼굴이 순간에 해쓱해졌다. 혹시 향국이가 새 발파법에 대한 시험을 하다가 그렇게 된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에 가슴이 철렁했던것이다.

그는 굴진소대에 배당된 공차를 끌고 서둘러 막장으로 향했다.

느닷없이 찾아드는 불안에 잠겨 전차를 운전하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다급한 심장의 박동소리만이 울리고있었다.

(내가 정말 맹공이였어. 그날 공훈탄부아바이가 물을 때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야 했을걸... 그러면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지 알게 뭐야.)

영순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자신의 처사를 속으로 꾸짖으며 전차를 몰았다.

이틀전이었다.

그날 영순은 종합목욕탕 탈의실에서 향국의 작업복을 찾아 빨아말리우고 퇴근길에 오르다나니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거 영순이 아니냐?》

등뒤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향국의 소대 공훈탄부아바이였다.

《인제야 퇴근하나?》

아바이는 영순이와 걸음을 맞추며 물었다.

《예.》

《허, 오늘 우리 영순이 얼굴색이 밝지 못한것 같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니냐?》

《아, 아닙니다.》

영순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다.

《그래 - 그럼 내 하나 물어도 될가?》

영순은 아바이의 기쁜 얼굴을 의아쩍게 쳐다보았다. 아바이는 여전히 웃고있었다.

《우리 저기 좀 앉았다 가자구.》

아바이는 실버들아지들이 바람결에 흐느적이는 청년공원을 가리켰다.

큼직한 물고기를 낚아안고 포만한 자세로 웃고있는 곰조각상상의 의자에 자리를 잡고앉은 아바이는 담배불을 붙여물고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순이 보기엔 우리 향국이가 어떤가?》

방금전까지 향국이에 대해 생각하고있던 그였지만 정작 이런 질문을 받고보니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껏 그를 남다르게 생각해오긴 했지만 선뜻 가슴속에 품은 감정을 터쳐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있는 그를 더욱히 바라보던 아바이는 처녀의 심정이 리해가 된다는듯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영순이가 이 늙은이의 말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자구. 내 지금껏 살아오면서 터득한 진리라 할가. 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것 같군. 어쨌든 그러루한것인데 참된 사랑을 지닌 인간의 심장은 동요를 모르고 식지도 않는다는거네.》

그러며 아바이는 안해와 얹혀진 자기 가정사의 이모저모를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소박하나 한생이 집약된 아바이의 말을 영순은 두손을 무릎우에 모두어쥐고 그린듯이 앉아 들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한다는 말만은 쉬이 할수가 없었다....

봉락된 굴진막장에 공차를 들이밀기 바쁘게 전차에서 내린 영순은 날으다싶이 막장으로 뛰어들어갔다.

다행히도 영순이가 우려했던바와는 달리 봉락은

별로 크지 않았다. 영순은 안도의 숨을 호- 내뿔었다.

굴진공들은 이런 봉락쫄은 대수롭지 않다는듯 심상한 기색으로 버럭들을 옮기고 방틀을 쌓고있었다. 영순은 그들속에서 향국의 모습을 더듬어 찾았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서려도는 불안...

그가 공훈탄부아바이에게 향국에 대해 물으려고 다가가는데 천반에서 버럭부스레기가 안전모우에 후두둑 떨어져내렸다.

《어마나.》

영순은 와플 놀라며 외마디소리를 냈다. 그러자 웅글은 공훈탄부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 제일 반가운 사람이 제일먼저 왔구만. 그런데... 내가 걱정돼서 오진 않았을게구, 향국이 가 그렇게 걱정되던가?》

시까스르듯 건네는 아바이의 말에 영순은 부끄러워졌다.

《아이, 아바이두 참.》

그러나 공훈탄부아바이는 몸돌바를 몰라하는 영순이와는 무관계한듯 돌아서며 소리쳤다.

《향국이, 그만하면 될것 같구만. 이제 내려오라구.》

아바이는 안전등으로 방틀우를 비치며 말했다.

《예.》

향국의 목소리는 허공중에서 울려왔다. 울려다보니 향국은 다 쌓은 방틀우에 췌기를 박고있었다. 그러고보니 향국이 천반에 올라가 방틀을 쌓은 모양이었다. 언제 천반에 매여달린 돌이 떨어져내릴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그가 어쩐지 불굴의 용사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향국은 혼연한 표정으로 내려왔다.

《아바이, 더이상 다른 일은 생길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도 심상했다.

《수고했네. 이제 우리 향국이기도 다 컸거든.》

아바이의 목소리에는 다 자란 아들을 대하는 대견함이 비껴있었다.

《그럼 한숨 돌리고 또 한바탕 내밀어보자구.》

영순은 착암기옆에 앉아 책을 펼쳐드는 향국을 그들먹이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품고 바라보다가 전차를 뽑기 시작하였다.

4

전혀 다른 나무에서 자라던것이 어쩌면 이렇듯 조화롭게 융합이 되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수 있을까? 아직은 연약하다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는 아지에 기특하게 열린 백살구, 그것이 여불없는 백살구임을 증명해주듯 열매가 노르끼레한 빛을 띠우기 시작하자 영순은 날마다 류다른 감개

속에 살구나무와 마음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대화였다. 평범하고 단순하게까지 보이는 자연의 이 리치가 어쩌면 매 인간들의 생활속에 비껴들며 이렇듯 의미심장한 감정을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인지 영순은 요즈음에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바치고 위하려는 고상한 감정의 분출이 없다면 이 땅에 흐르는 생활 그자체가 무의미하다는것을...

때없이 갈마드는 이런 생각에 잠길수록 영순은 석탄증산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탐구를 거듭하는 향국의 가장 가까운 방조자가 되어주고싶은 마음이 청청한 나무잎새와도 같이 왕성하게 자라는것을 느꼈다.

영순은 어느날 자기의 이런 감정을 어머니에게 조심히 비쳤다.

재봉기를 마주하고앉아 막장에 보낼 작업장갑을 만들던 어머니는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다 입을 열었다.

《향국이야 더할나위없는 청년이지. 일하는것을 봐도 그래, 성품을 봐도 그래...》

영순은 자기의 심정을 향옥이에게 터놓았다.

《어머.》

향옥이도 바라고 고대했던 오빠의 행복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온것이 믿기 어려운지 놀란 눈으로 영순을 쳐다보며 숨찬 소리를 내질렀다.

《영순아, 고마워.》

영순의 손을 꼭 잡아쥐는 향옥의 눈에는 따스한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영순이가 향옥이에게서 받은 소식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향국이 영순의 청혼을 완강히 거절한다는것이였다.

그날부터 것처럼 명랑하던 영순의 얼굴에서는 웃음발이 사위여갔다.

영순은 며칠을 두고 향국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무엇때문에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알고싶었다.

어느날 영순은 출경하는 향국을 만나 주저없이 물었다,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외면하는가고...

향국은 가슴속에서 뿜어내는듯 한 긴숨을 내뿜고 나서 대답했다.

《영순동무, 정말 고맙소. 나에겐 정말 파분한 행복이요. 하지만...》

향국은 말끝을 흐리마리해버렸다.

영순은 타는듯 한 눈길로 향국의 얼굴을 지켜보다 다우치듯 물었다.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난 동물 행복하게 해줄수 없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또다시 향국은 잠자코 침묵해버렸다. 영순이가 재촉해서야 향국은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난 동물 행복하게 해줄수 없소. 나에겐 어머니, 아버지가 없지 않소, 동무를 축복해줄 부모님들이 말이요.》

너무도 단순한 향국의 말에 영순은 한순간 아연해지고말았다.

《그러니... 그게... 그게 리유예요? 너무 웅졸하군요. 그러고도 뭐 암벽을 미는 탄부라고...》

하지만 향국의 립장은 단호했다. 요지부동이였다. 영순은 눈물을 짓씹으며 돌아서고말았다.

그러던 며칠후였다.

퇴근길인듯 공혼탄부아바이가 밥짝이 든 가방을 멘채로 영순의 집을 찾아왔다.

영순이가 깔아주는 방석을 밀어놓고앉은 아바이는 흐뭇한 눈길로 처녀의 알뜰한 손길이 어려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영순이 어머니, 실은 내 영순이문제때문에 왔수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붙여문 아바이는 마주앉은 어머니에게 의논조로 말했다.

《오늘 당비서동지가 우리 막장에 들어왔수다. 향국이가 연구하는 새 발파법에 대해서랑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나서 비서동지가 문득 이제 향국을 장가들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고 넌지시 묻는게 아니겠소. 내가 대답이 궁색해서 있으니 비서동진 빙그레 웃으며 〈향국이가 글썽 고운 우리 영순동무 올렸더군요.〉 하질 않겠소. 그리고 하는 말이 향국이가 영순이를 마다하는 눈치는 아닌듯 한데 그들의 사랑을 이루어주면 먼저 간 향국이 부모들도 기뻐하고 그가 연구하는 일도 눈에 띄이게 성과가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날더러 향국이 의향도 물어보고 자기를 대신해서 영순이 어머니도 만나봐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 어떻게? 영순이 어머니생각엔...》

《글썽, 애들이 좋다면야...》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표정이 어려있었다.

《그럼 난 그렇게 알고 가겠수다.》

아바이는 만족한 기색을 띄우며 자리를 일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십니까? 저녁식사라도 하시고 천천히 가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가봐야 할데가 있어 그러니 오늘은 랑해를 해주시우.》

아바이는 헌헌하게 웃으며 토방을 내려섰다.

탄광마을에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있었다.

물소리 유정한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노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어머니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탄광마을의 저녁정서를 더해주며 울려왔다. 그 소리를 새겨들은 영순의 눈앞에는 탄부들 한사람한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헤아리고 보살펴주

느라 남모르게 마음쓰는 당비서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

정비를 끝낸 영순은 인입선에서 전차를 뽑기 시작했다.

이때 순희가 숨가빠 달려와 운전실에 머리를 들이밀더니 영순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렸다.

《당위원회에서 너를 급히 찾는데.》

《당위원회에서?... 왜?》

《애두 참, 그걸 내가 알게 뭐니. 그럼 난 가.》

생긋 눈웃음을 지어보이고난 순희는 날듯이 뛰어나갔다.

《순희야!》

서둘러 그를 찾았으나 저만치서 《빨리 가야해.》 하는 대답소리만이 바람결을 타고 갱구로 흘러들어왔다.

교대를 마치고 당위원회청사로 향한 영순은 서산마루에 걸터앉아 대지를 내려다보고있는 태양과 눈맞춤을 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초여름의 따뜻한 햇빛이 영순의 온몸을 어루쓸며 걸음에 활력을 더해주는것 같았다.

송수화기를 들고 어딘가 통화를 하고있던 초급당비서 김성혁은 눈웃음을 지으며 영순을 맞아주었다.

전화를 하고난 당비서는 잠시후 영순에게로 다가왔다. 의자를 끄당겨 영순이와 마주앉은 당비서는 고개를 소곳하고 앉아 무릎우에 놓은 손가락만 움직여가리는 그를 지켜보다가 물었다.

《영순동무, 일이 힘들지?》

《아닙니다.》

《영순동무 여느때보다 더 많은 탄차를 끌어내느라 바쁜 속에서도 운반갱도의 고속도보장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까지 한다면서?...》

《어마?!...》

영순은 손을 들어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그게 연구사업일게 뭐니까? 어마어마하게...》

《하하하.》

당비서는 크게 웃어제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왜, 연구라는게 뭐 큰거요? 다 자그마한것에서 시작되는거지. 요즘 영순동무 얼굴이 몹시 축간것 같애.》

당비서의 목소리는 딸의 건강을 녀려하는 사려깊은 어머니의 다심한 음성인양 영순의 마음을 급시 따뜻하게 적시였다.

《내 진심으로 권고하는데 건강이랑 돌보면서 일하오.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아무때건 찾아와 얘기도 하고...》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당위원회 부원이

방에 들어섰다.

무엇인가 보자기에 쓴것을 책상에 놓고난 그는 《향국동무가 왔습니다.》 하고 당비서에게 말하였다.

당비서는 그에게 물었다.

《영순동무 어머니는?》

《예, 제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응, 그리로 곧장 모셔오오.》

부원이 향국이를 들여보내는가싶었다.

향국이라도 얼떠름한 표정이었다. 그들 두사람을 여겨보던 성혁당비서는 돌아서서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안에서 새 탄부제복이 나타나자 영순과 향국은 의아한 눈길을 서로 마주쳤다.

당비서는 탄부제복을 쓸어보고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영순동무, 향국동무! 내 동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오. 동무들의 부모들은 우리 탄광의 연혁사에, 우리 탄부들의 추억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사람들이었지. 그 부모들의 뒤를 꺾듯이 이어가고있는 동무들이 정말 자랑스럽소. 그래서 우린 동무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거구 부모들처럼 살기를 바라고있는거요. 자, 이 새 제복을 입고 우리 함께 가지요.》

영순의 검은 눈에 금시 눈물이 핑 - 고여올랐다.

(비서동진, 비서동진 다 알고계셨구나. 향국동무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 알고계셨어.)

향국이라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가싶더니 격동된 표정으로 당비서를 바라보다가 다시 영순에게 눈길을 돌렸다.

《비서동지!》

잠시후 새 탄부제복을 갈아입은 두 청춘남녀를 태운 승용차는 살같이 달렸다. 눈에 익은 탄광전경이 차창밖으로 스쳐지나갔다. 저만치 앞에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 향국의 집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그사이 증축을 하고 새 기와를 얹어 몰라보게 환하게 달라진 집이었다.

영순이와 향국은 차에서 내려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며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향국은 그동안 연구완성한 새 발파법 발명안을 가지고 도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축전에 참가했다가 오는 길이라 달라진 자기 집앞에서 못내 감격하여 눈을 습벅거렸다.

《자, 주인들이 앞서야지. 어서 들어들 가자구.》

당비서의 친근한 떠밀림에 둘이 천천히 마당에 들어서는데 박수소리가 짹짹 울려 퍼졌다.

마당에는 탄광일꾼들과 영순의 어머니, 향옥이 그리고 지금껏 함께 일하며 정을 나누어온 탄부들과 전차운전공들이 가득 들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있었다. 느슨한 미소속에 박수를 치는 공훈 탄부아바이도 보였다.

《영순아!》

목메인 부름소리와 함께 향옥이가 달려와 영순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집에 들어서던 영순은 놀랐다.

눈에 익은 집이었으나 모든것이 새로웠다. 부엌을 환하게 둘러해주는 윤기나는 타일들이며 찬장에 그췌히 자리잡은 새 부엌세간들, 방안에는 새 가구들과 함께 천연색텔레비존을 비롯한 가장집물들이 구색에 맞게 들어앉아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방 한가운데에는 뜻밖에도 결혼식상이 차려져있는것이 아닌가.

성혁당비서가 말하였다.

《영순동무, 향국동무! 여기 앉으시오.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은 바로 동무들입니다.》

누군가의 이끌림에 자리를 잡고앉은 영순은 종내 흑 - 하고 흐느낌을 터치고야말았다.

《동무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탄광의 발전력과 더불어 잊지 못할 자욱을 남긴 향국동무의 부모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앉은 탄부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함께 왔습니다.》

흐느끼는 영순의 옆에 앉은 향국의 얼굴에도 온통 눈물이 번들거리고있었다.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가는 당비서의 목소리도 감회깊은 추억으로 축축히 젖어있는상싶었다.

《나는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 탄광을 오늘과 같은 번영하는 탄전으로 전변시키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향국동무의 부모들을 비롯한 우리 서창청년탄광의 오랜 탄부들을 대신하여 선군시대 새 탄부가정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환희에 넘친 박수소리가 방안을 흔들었다.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영순이와 입을 막고 가가스로 오열을 누르는 향국을 이윽히 바라보던 김성혁당비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향국동무, 동문 자기들을 축복해줄 부모들이 없다고 처녀의 사랑도 거절하고 울리기까지 했는데 아니요, 동문 잘못 생각하고있소.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그런 험애한 생각을 가지고있단 말이요? 명심하오. 동무결에, 우리결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계시오.》

걱정이 흐르는 좌중을 둘러보던 당비서는 감개에 젖은 표정으로 추연한 눈길을 어딘가 보내는가싶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뜻깊은 오늘 내 동무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줄가 하오.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요.》

뜨거운 목소리를 통한 화폭이 사람들의 눈앞에 연줄연줄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해방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함께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잠결에서까지 만세를 부르는 어른들을 따라 아이

들은 아이들대로 그것이 얼마나 큰 사변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파라 목터지게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던 나날들이었다.

징용, 징병에 끌려갔던이들과 왜놈의 폭압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떼차로, 자동차로, 도보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 소년의 아버지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의 집에 어린 자식을 맡겨두고 덕천땅 어디엔가 있다는 탄광으로 품을 팔러 간 아버지를 찾아 떠나갔던 어머니마저도 종무소식이였다.

매일을 기다리는 소년의 작은 가슴속에는 점차 외로움과 함께 서러움이 구름처럼 덮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소년이 었혀살던 마음무던한 동무네 아버지가 이사집을 싸가지고 동해기슭의 고향으로 떠나갔다. 함께 가자고 이끌었지만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겠다고 떼거지를 쓰며 남은 소년은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고 몇달을 기다렸다.

종내 소년은 어느날 발뼉발뼉 동구밖너머로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방향도 몰랐으나 무작정 길을 떠났다. 그저 이 길을 따라 가고가느라면 어느때인가는 꼭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소년에게 있을뿐이었다.

저녁하늘에 황혼이 비끼더니 산천은 차츰 어둡속에 덮이기 시작하였다.

소년은 더럭 겁이 들었다.

수수그루터기만이 앙상한 나지막한 등관우에 올라선 소년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배고픔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골짜기를 덮으며 슬몃슬몃 다가드는 어둠이 더 무서웠다.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왔다.

《엄마야!》

소년은 목이 쉰 가냘픈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 소리는 처량하게 산천을 흔들었다.

이때 산자드락쪽에서 누군가가 소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근아!- 달근아!-》

소년은 화들짝 놀라 채 그치지 못한 울음을 훌쩍거리며 소리나는쪽으로 몸을 돌렸다.

흰 무명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소년을 향해 달음질쳐오고있었다.

《너 여기 있었구나.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여인은 와락 소년을 껴안았다.

소년은 왜서인지 낯선 이 여인이 무작정 자기 어머니라고 믿어졌다.

《울엄마나요?》

반가움과 서러움으로 범벅이 된 가느다란 목소리

가 소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여인은 흠칫 몸을 떠는가싶더니 제격 대답하였다.

《그래,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여인은 소년을 품에 꼭 껴안은채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엄마!》

《달근아!》

《어디 갔다 이제야 왔다? 엄마야!》

소년은 여인의 목을 꼭 그러안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 엄마가...》

여인은 소년을 꼭 품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그때 소년은 그 여인을 자기의 친어머니로 알았다. 철이 들어서야 그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왜놈이 경영하던 탄광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그 여인은 면에 갓 조직된 공산당의 첫 세포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행이 행복으로 뒤바뀌어 홀러운 아버지의 생을 더듬어보는지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닦고난 당비서는 말을 이었다.

《동무들! 나나 동무들의 한생애 깃들어있는 당의 사랑, 힘들세라 피로울세라 따듯이 보살펴주며 참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부어주는 당의 품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보람차고 긍지높은 탄부의 삶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향국부부의 첫날옷을 마련했지만 이들이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탄부제복을 입고 결혼식상을 받도록 하자고 한것입니다.》

또다시 방안이 터져나갈듯 울리는 박수소리...

《한가지 기쁜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다가오는 8.28청년절 경축행사에 온 나라의 모범적인 청년들을 불러주시였습니다. 탄광당위원회는 이번에 도파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돌아온 김향국동무와 우리 탄부들이 사랑하는 전차운전공인 리영순동무를 경축행사 대표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다시 결혼식장을 진감하는 박수소리, 박수소리...

열광으로 끓어번지는 습결들과 박수갈채속에서 눈을 들던 영순은 향국이와 시선을 맞부딪쳤다.

맑은것이 끓고있는 영순의 눈을 마주보는 향국의 광채어린 눈에서는 강렬한 웨침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영순동무! 난 정말 너무도 몰랐소. 너무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 우리 삶처럼, 생활처럼 습판된 그 귀중한 어머니란 존재를 난 너무도 몰랐소.)

(그래요. 향국동무! 어머니는 정말 우리곁에 계시요.)

땅을 분여받은 그해 이야기

김 정 경

1

봄빛을 흔드는
호기찬 메질소리
들판가득 메아리쳐 울리자
송진내 향긋한 나무표말이
밭머리에 우뚝 머리를 들었다

—김정화 밭 3천평
표말속의 먹글자는
해빛 받아 유난한데
마디 굵은 손으로 보물을 어루쓸듯
—이게 참말 내 이름자 옳긴 옳소?

꿈같은 현실에 심장이 멎는듯
풀썩 오금이 꺾이며 땅을 그리안을 때
후두둑 표말에 땅우에 쏟아진
농민의 더운 눈물

이렇게 난생처음으로
농민은 포옹했더라
수령님 풀어주신 한평생의 숙원을
수령님 찾아주신 목숨같은 제땅을

2

바람이 불면 넘어질가봐
공공 밟고 또 밟은
자리를 뜨면 꿈처럼 사라질가봐
표말결에 아예 자리퍼고 앉은 농민

황금낫가락같은 초생달이
밤하늘 중천에 걸리었다고
은근히 귀뜸하는 안사람에게
—저녁밥도 저리 내오오
두말없이 아예 맨땅에 누웠네

어찌 이 한밤뿐이라
깊숙이 박힌 돌들도 뽑아내고
한줌 흙도 씻길세라 석축도 다시 하고
표말을 찍으려는 원썬들과의 싸움에도

뜨거움에 젖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토록 사
랑하고 때없이 즐겨부르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울
리고있었다.

...

천만의 아들딸 영웅으로 키워온

쇠스랑 비껴들고 주저없이 나선 농민

봄내 여름내 땀으로 걸구고 피로 지키며
농민은 말없이 증명하였네
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 조선에
진정한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3

금과도 물결치는 계절도 지나
뜨락에 높이 솟은 난가리우에
둥근달 병실병실 웃음 던질 때
농민은 눈굽을 손등으로 닦으며
—이게 다 내 처분이겠다

뼈를 녹이고 육신을 깎아
피타게 지은 농사
타작날 싹 쏘어가는 지주놈때문에
구걸꼭박신세로 한생을 보낸
지난날의 기막힌 생각도 나고

김장군님 건국위업
무엇으로 받들라
어벌없는 궁냥도 대통속에 재우며
하많은 생각속에 긴밤을 새운 농민
—아무리 제 처분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면 안되지

웁쭉 자리를 차고일어나
안사람 재촉해 주먹밥 지어차고
난알을 듬뿍 실은 소달구지 앞세워
평양으로 향한 행길에 나설 때

아, 땅이 없어
노예의 멍에를 메었던 농민이
성스러운 애국의 고삐를 쥐었다고
이름자도 모르던 천덕꾸러기가
김장군님 받드는 큰길에 나섰다고
새벽닭 똬치는 우렁찬 소리가
들판 가득 멀리로 메아리쳐 퍼졌네

그대의 붉은 당기밭
기폭에 어머니웃자락이 어려와
목메여 노래하노라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품 내 운명 당이여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나무를 심자

엄 성 영

이 땅에 봄이 왔다. 봄, 봄,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이 풀리고 어디선가 조잘거리며 흐르는 여울물소리가 유정도 하다. 아직도 얼음버께가 채 꺼져내리지 않은 강설에서는 버들개지가 방긋 웃는다. 해묵은 풀덤불을 헤집고 뽕족뽕족 키돋움하는 새싹들... 문득 가슴 흐뭇하게 물씬 풍겨오는 구수한 흙냄새, 흙냄새!...

봄을 맞이한 조국의 산과 들은 지금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산은 산마다, 골은 골마다 나무심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하얗게 뒤덮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구리빛얼굴에 삽날을 번쩍이며 나무구멍이를 파는 사람들, 구슬땀을 철철 흘리며 나무모의 뿌리흙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날라오는 사람들, 찰랑찰랑 바깥씨가 넘치도록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 모두의 일손에 성수가 났다.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신심에 넘친 모습들뿐이다.

조국해방 70돐,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고있는 것이다.

왜 그렇지 않으랴! 이 땅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 땅인가. 백두의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찾아준 조국 땅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우리 나라에서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비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할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었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려보곤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모든 부문들

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올해의 봄철나무심기는 여느해와는 다르답니다. 그 잡도리부터가 보시는 것처럼 만만치 않지요.》

우리와 만난 산림감독원의 말이였다. 그는 벌거숭이가 된 산봉우리와 지역마다 필지별로 나무심기 계획을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해낸다고 자랑답아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그전에 소나무나 몇대 심어놓고 봄철나무심기계획을 수행했다고 말하던 때와는 판판 다르다는 것이였다.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쓸모있고 모양이 좋은 종자를 골라잡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사름들을 백방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믿음이 가고 신심이 넘친 목소리다. 하거늘 저들의 일손에 어찌 날개가 돋치지 않으랴!

문득 어디선가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나서자란 이 땅의 산과 들마다
...

노래소리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
부강한 나라위해 모두 떨쳐나
내 조국을 수림화 원림화하세
구슬땀 흘리며 정성다하는
그 마음이 애국이야
그 사람이 애국자야

그렇다,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실천으로 대답해야 한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피더운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키워온 그 마음, 그 정성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그 애국주의가 아닌가!

나는 절로 뜨거워지는 마음에 이끌려 산자드락길로 급히 걸음을 다그쳤다. 이미 담당구역인 산봉우리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의 사름률도 알아보고 채 끝내지 못한 나무심기과제도 오늘중으로 마저 끝내기 위해서였다. 한동안 걸음을 옮겨놓던 나는 산중턱에 이르러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내가 심은 나무구멍이의 흙을 퍼내고 어린 나무모를 뿌리채 댕궁 들어냈것이 아닌가. 아니, 이

것이 웬일인가?

나는 눈이 등그래진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남이 정성껏 심어놓은 나무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글썽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어 복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파괴를 하다니...

《게 누구요?》

나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격해나서 소리쳤다. 그 제서야 농립모를 눌러쓴 그 사람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병삼이가 아닌가?...)

내가 자기 눈을 의심하고있는데 저쪽에서 귀에 익은 거센 목소리가 마주 들려왔다.

《병삼일세. 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고향을 떠나갔던 그 병삼일세.》

《그렇다면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나?》

《내가 무슨 낫을 들고 빈몸으로 찾아올수 있었겠나. 난 지금도 자네의 그 말을 잊지 않고있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사람들은 나무껍질, 풀뿌리로 때식을 굶때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병삼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저 산봉우리에 올라 소나무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송기를 벗기고 물에 불구어 방치질을 한 다음 그것으로 송기떡을 만들어 어린것들의 배고픔을 얼마간 달래었다.

껍질을 벗기운 소나무에서는 아픔의 상처인양 진액이 흘렀다. 그때 나는 병삼의 소행을 두고 호되게 닦아세웠었다.

《병삼이, 자네가 어쩌면 이럴수 있나. 자네도 이 고향에 태를 묻은 사람이겠지. 난 저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진액을 보면서 내 살점을 저며내는것 같아 차마 견딜수 없네.》

《미안하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병삼이는 그 이튿날로 처자를 앞세우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그랬던 병삼이가 돌연 이 산봉우리에 나타난것이 아닌가.

《그래, 지금 어디서 일하나?》

《군양묘장에서 안해와 함께 양묘공으로 일하고 있네.》

《양묘공?》

《그렇네. 그때 죽어가는 소나무의 정상을 보며 자네가 몸에서 살점을 도려내는것만 같아 참을수 없다고 하던 그 말이 귀전에 쟁쟁하네. 나는 고향을 떠나 다른데로도 갈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양묘장을 찾아 양묘공이 되었네. 용서하라구. 제가 지은 죄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씻어야 할게 아닌가. 그래서 몇년간 정성껏 양묘장에서 키워온 수종이 좋은 큰 나무모를 이 산봉우리주변에 심자고 찾아왔네. 자네를 만나고싶었지만 새 나무모를 심어놓은 다음에 자네를 만나볼 생각이었네.》

《이 사람 병삼이,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나는 얻어질듯 병삼이에게로 달려가며 그의 두 어깨를 와락 가슴에 그러안았다. 이때였다. 한 청년이 바께쓰에 물을 가득 길어가지고 나타났다.

《아버지, 나무마다 물을 듬뿍듬뿍 주자요.》

《오냐, 그러자꾸나!》

병삼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여보게, 이 애가 지난날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던 그 아들녀석일세.》

《그래?!...》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병삼이와 그 아들녀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심은 작은나무모대신 수종이 좋은 키가 큰 나무모를 심어 이 땅에 푸른 숲이 우거질 그날을 앞당기려는 이들의 불같이 뜨거운 마음들!...

그 뜨거운 마음들에 이끌려 이 땅에는 한해가 다르게 푸른 숲 우거질것이 아닌가. 온갖 새 날아들며 지종지종 노래부르고 온 나라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된 내 나라, 내 조국땅!...

정오의 해빛이 눈이 부시게 쏟아져내린다. 나는 병삼이네와 함께 나무구멍이를 더 파고 채 심지 못한 나무모를 한그루, 한그루 정성껏 심어나갔다.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가슴이 흐뭇하게 물씬 풍겨오는 구수한 흙냄새, 상쾌한 숲향기!...

상 식

식 수 절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들에서는 나무와 수림의 중요한 작용과 의의를 인식한데로부터 식수절을 정하고 나무심기를 장려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법적형식으로 식수절을 정한 나라는 50여개나 된다.

지리적위치와 각이한 계절변화에 따라 식수절의 이름과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실례로 카나다는 산림주, 이슬란드는 학생식수일, 프랑스는 전국나

무일, 쓰르비아와 쓰르나고라는 식수주, 인디아는 전국식수절로 부르고있다. 요르단의 식수절은 해마다 1월 15일이며 에스빠냐는 2월 1일, 중국은 3월 12일, 오스트랄리아는 5월 첫주 금요일, 핀란드는 6월 24일, 파키스탄은 8월 9일, 꾸바는 10월 10일, 수리아는 12월 마지막주 목요일이 식수절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해마다 식수절을 계기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좋은 봄이다

김 명 철

하늘엔 높이 떠 우짖는 종다리
땅우엔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날씨도 따듯하다
내 사랑 나무모들아
오늘은 산으로 이사를 가자

씨를 뿌려 키울 때는 어서 크라고
가물면 시들세라
추우면 얼세라
벌써 몇해째 낮과 밤 따로없이
땀도 정성도 다 쏟아온 이 마음

정작 이렇게 떠돌기자니
아직도 키가 작은듯
실하지 못한듯
아기의 첫걸음을 떼여주는 엄마처럼
한번 더 너희들을 쓰다듬게 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즐겁기만 하다
얼마나 살뜰한 손길들이
너희들모두가 잘 살아나도록
고이 심어주고 보살펴줄것이나

산마다 숲이 설레이게 하자고
문수봉과 장산에 나무를 심으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뜨겁게 품어안아 가꿔오신 이 강산

그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시려
늘 마음쓰시는 **김정은**원수님
지난해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여
조국산천을 더 푸르게 하자고
우리 군민을 불러주셨나니

보아라 이산저산
구멍이를 파고 부식토를 나르며
일손에 신바람난 어린아이들
어디 가나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기
가슴을 뚫여주는 방송선전차의 노래소리

이제 너희들 무성하게 자라
울창한 수림이 되면
금수강산 이 땅은 더 수려해지고
너희들 안겨주는 무진장한 보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지려니

아, 종다리 뜨고 아지랑이 피어
철도 좋은 철이지만
원수님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
후손만대의 재부를 마련해가니
기쁘고 보람차서 더 좋은 이 봄이다

어서 가자 산으로
내 사랑 나무모들아
절세의 애국자들을 수령으로 모시는 나라
인민이 살기 좋은 이 땅에 뿌리내려
행복의 열매들을 주렁지우거라

상 식

주 패

력사자료에 의하면 주패는 13세기 십자군원정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 시기 아시아에서 주패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다.

1894년경에 런던의 구락부들에서는 교패가 유명하였는데 그것이 점차 지금과 같은 유럽주패로 되었다. 주패는 력법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1년이 52주로 되어있으므로 52장의 정패를 설정하였고 부패 2장중 따왕은 태양을, 쏘왕은 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년은 4계절이므로 주패꽃도 4가지로 되어 있다. 그중 붉은 꽃 2종은 대낮을, 검은 꽃 2종은 밤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 계절은 13주이므로 꽃마

다 13장이고 매 계절은 91일이므로 매 꽃의 13장의 수자의 합도 91이다. 52장의 주패수자에 쏘왕 1점을 합치면 1년인 365일, 따왕의 1점을 합치면 윤년의 366일이 된다. K, Q, J가 모두 12장인데 이것은 1년의 12달을 의미하며 태양이 1년에 12개의 성좌를 통과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크로바, 하트, 다이아몬드, 스페드는 옛날 점칠 때에 쓰던 부호이다. 스페드는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잎을, 하트는 지혜와 사랑의 상징을, 다이아몬드는 벽돌이므로 재부의 상징을, 크로바는 행복의 상징을 담고있다.

통속적인 가사, 독특한 절가형식

—가사 《근위부대자랑가》를 두고—

박 현 학

인민들은 누구라없이 통속적인 노래를 좋아한다.

가사를 통속적으로 쓴다는것은 말그대로 인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가사를 쓴다는것이다.

때문에 가사를 통속적으로 쓰는가 못 쓰는가 하는 문제는 창작기교상의 문제이기 전에 문학작품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가사를 통속적으로 쓰기 위하여 나서는 실천적인 방도는 여러가지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사의 절가성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가 절가화되지 못하면 음악구조의 특성에 맞게 시형상을 높일수 없고 따라서 노래의 사상적내용도 심화시킬수 없다.》

가사의 절가성을 보장하는것이 가사의 통속화를 실현하는 방도로 되는것은 가사의 절가성을 보장하여야만이 생활정서를 명료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여 인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차 따라부를수 있기때문이다.

절가화되지 못한 가사는 난해하며 간결하고 명료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수가 없다.

여기에서 절가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단순히 형식의 절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매절에서 글자수나 맞추고 행수나 맞추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적내용의 절제있는 련관과 발전을 의미한다.

가사가 인민들속으로 빨리 침투되고 친숙해지게 하자면 가사의 매절에서 사상적내용의 절제있는 련관과 발전을 이룩하면서도 절가형식에 기초한 새로운 구조형식을 더 많이 탐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인민들은 통속적이면서도 새로운것을 좋아한다.

뜻깊은 사상적내용을 새로운 형식으로 노래할 때라야 인민들이 모든 노래를 그 노래의 특성에 맞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으며 새로운 형식미에 매력을 느끼고 사랑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된 가사 《근위부대자랑가》의 절구성형식은 독특하고 새로우며 그로 하여 통속적인 가사의 혁신적면모를 보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승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아가는 천만군민의 긍지와 자랑을 담은 우리 시대의 명작 《근위부대자랑가》!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작사, 작곡 설태성)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각오를 새롭고도 혁신적인 시형상속에서 노래하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꺾어버린 통패한 력사적사변이었다.

이것은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이었다.

가요는 이러한 패승의 감정을 근위부대들의 자랑찬 위훈을 자랑하면서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에서는 근위부대들의 자랑찬 위훈을 5개 편에 걸쳐 이야기하는 식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궁지높은 감정을 이야기형식, 자랑의 형식속에 담은것부터가 이 가사가 다른 가사와 다른 독특한 점이라고 할수 있다.

가사는 시적정황속에서 분출되는 시인의 주정토로를 펼치는 형식이 아니라 말그대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의 력사를 자랑스럽게 펼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때문에 가사를 읽는 사람들의 눈앞으로 전투의 장면과 장면들이 표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근위부대의 자랑찬 력사를 궁지높이 돌이켜보게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형식, 자랑의 형식으로 가사는 통속성을 보장하고있다.

가사 1절에서는 전쟁 3일만에 서울에 공화국기를 날린 근위105땅크사단과 금강방어선을 돌파하고 현대포위전의 모범인 대전해방작전에서 승리를 이룩한 근위4보병사단의 위훈을 자랑하고있다.

이렇게 가사 1절에는 서울해방작전으로부터 대전해방작전까지의 혁혁한 승리가 집약되어있다.

가사 2절을 보자.

바다의 섬이라 떠들던 미제의 침략선 중순양함을 통패히 수장한 해군의 영웅한 근위2어뢰정대 하늘의 요새라 뽐내며 날아든 미제의 공중비적들

가을의 락엽 만든 공군의 슬기로운 근위추격기
런대

보는바와 같이 가사 2절에서는 바다와 하늘이라는 위훈의 활무대에서 이룩한 근위사단들의 위훈이 노래되고있다.

가사 2절이 하늘과 바다의 승리를 노래하였다면 가사 3, 4절에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계속하여 개괄하고있다.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 무서워 죽음의 공포에 떨던/멸적의 부대인 진격의 화살 근위3보병사단/징벌의 포화로 정의의 총칼로 날강도 미제 무찔러/멸망의 함정굴에 처넣은 방위자들 근위2보병사단》, 《광활한 격전장 누비며 진군해 혁혁한 전과 올리며/락동강 불퇴의 방어선도 깨버린 근위6보병사단/힘준한 산악을 폭풍쳐 넘으며 승전의 포성을 울려/적들을 전멸케 한 그 이름 자랑높은 안동 12보병사단》...

가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느라하면 전전선에 걸치는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적들의 기세를 꺾고 나아가던 근위부대의 용맹스런 기세가 안겨오는가 하면 직사포를 고지에로 끌어올려 미제에게 멸망을 주는 함정굴, 상심령을 파놓던 1211고지방위자들의 자랑찬 모습도 안겨온다.

또한 락동강영웅전사들의 잊지 못할 위훈을 되새기게 되고 제2전선에서 비수와 같이 활동하던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이 우렁치 떠오르기도 한다.

바로 이렇게 4개의 절에 걸쳐 조국해방전쟁사를 말그대로 함축한 가요는 가사 5절에서 자기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보다 뚜렷이 하고있다.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제를 격멸한 부대 전승과 더불어 전설로 기억된 자랑찬 근위부대들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진

그 이름 영원토록 후대들 가슴속에 긍지로 빛을
뿌린다

(후렴)

군기에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영광을 떨치리

가사 5절에서는 앞에서 소리높이 노래한 근위부대들의 긍지와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제를 격멸한 부대》라는 집약된 시행속에서 밝히고있다.

용맹한 근위부대들이 이룩한 승리의 비결은 수령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정신에 있다.

수령결사옹위의 고결한 정신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주춧돌로 놓여있는것이다.

바로 《영원토록 후대들 가슴속에》 빛을 뿌리는 긍지는 다만 전투적인 위훈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 세대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있으며 그것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전통에 있다.

가요는 바로 이러한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통속적인 절가형식에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혁신적인것이다.

지금껏 통속적이면서도 독특한 절가형식들로서 요일풀이가사, 수자풀이가사 등이 창작되어 이체를 띠였지만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처럼 부대들의 명칭을 밝혀가며 그들의 위훈 빛나는 뜻깊은 역사 전과정을 개괄한 가사는 없었다.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절가화하여 곡에 맞추어 불리워지게 하고 찬양하도록 하였는데 이 가사의 통속성이 있으며 형상적매력이 있는것이다.

가요 《근위부대자랑가》는 다시한번 시인들에게 뜻깊은 사상적내용을 통속적이면서도 새로운 형식속에서 구가할것을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유 래

선 입 견

선입견은 미리 들은 어떤 말만 믿고 새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서 나왔다. 중국의 한나라때에 황제밀에 식부공이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그는 황제를 만나 곧 흉노가 침공해 올것이니 대군을 별방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황제는 그의 의견을 그럴듯하게 여겨 왕가라는 대신과 상론하였는데 왕가는 식부공의 주장이 허황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침하는 말은 국왕의 덕을 허물고 부정스럽고 음험한 말은 아래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며

너무 아름다운 말은 종종 옳은 도리를 파괴하고 심히 각박한 주장은 국왕의 은혜를 손상시킵니다. 옛날 진나라의 목공은 현명한 신하의 주장을 듣지 않아 실패를 크게 한 다음에야 교활한자들을 멀리하고 경험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지난 시기의 교훈에 주목하면서 먼저 들으신 말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말을 한자로 쓰면 《무이선입지어위주》인데 그후 점차 줄어져 《선입주》가 되고 또 《선입견》으로 되었다고 한다.

뿌리깊은 나무



리 국 철

경옥은 걸싸게 호미질을 하고있었다.

겨울의 첫추위가 시작되었지만 온실안은 여름이 한창이다.

폭신한 부식토가 한벌 쪽 깔린 땅에선 지금 뽕족 뽕족 파란 순이 돋은 어린 나무모들이 저마다 맑은 이슬을 반짝거리며 경옥이가 호미로 자기들의 발밑을 시원스레 긁어주기를 기다리느라 발돋움하는듯 했다.

갑자기 온실문이 벌컥 열려지는 바람에 경옥은 깜짝 놀랐다.

날씨가 뽕잔지 소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이 얼굴이 빨개서 다가왔다. 학교에서 지금 돌아오는 모양이다.

《예구, 놀랐구나야. 무슨 애가 이리 세차담.》

아들애는 동그란 얼굴에 온통 웃음을 물고 제 엄마를 울려다보며 재잘거렸다.

《엄마, 이제 며칠후에 학교에서 우리 집 온실을 보러 온다.》

《필? 그건 무슨 소리냐?》

경옥은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소리를 하는 아들을 어리둥절해서 내려다보았다.

숨이 차다는듯 제법 어른홍내를 내며 동가슴을 톡타거리대던 아들애는 우쭐해서 말했다.

《우리 집 온실에 여러가지 나무모들이 다 있대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가자구 했대. 이제부턴 계절에 관계없이 자연관찰수업을 하게 됐대나. 요런 작은 나무모들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라는가를 멀리 양묘장에 안 가구두 보여줄수 있게 됐대구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필?》

경옥은 당황해나 그저 웃고말았다.

아니, 우리 집 양묘온실이 뭘 볼게 있담....

남편이 온실에 들어와 늘 하던 그대로 뒤집을 지고 제법 나무모들을 사열하던 아들애는 다시 종알거렸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와서 물어보겠다고 했어.》

경옥은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한동안 서성거렸다.

이제 아이들이 쓸어들어오고 선생들이 큰일이나 해낸 사람처럼 에워싸고 떠들어대며 사연을 물을걸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방망이질해됐다.

경옥은 저도 모르게 흘러간 지난날의 추억의 갈피를 한장한장 번져보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1

경옥의 어린시절은 탄광마을에서 흘러갔다.

신통히도 학교 기하공부시간에 자막대기로 그리던 삼각형모양의 산들이 어디에나 솟아있는 고향이었다. 끝마다에서 노래하듯 도글거리며 구울러내리는 골개물은 한여름철에도 이가 시렸고 산속 수림속에 들어가면 대낮에도 메돼지무리가 뼈죽이 나온 송곳이발로 땅을 두지며 돌아갔다. 《산》자가 붙은 짐승들과 새들은 다 자기 고향 산에만 있는것 같았다. 산토끼, 산양, 산비둘기, 산매...

경옥은 그 산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계집애가 무슨 산바람이 났냐고 야단했지만 아버지는 그저 대견해 병글거렸다.

《탁씨가문은 대대로 산과 함께 살았다. 너도 산

을 사랑해야 이 탁성보의 딸이야.》

경옥이가 하루는 머리며 웃으며 신발에까지 온통 산에서 꺾은 꽃들로 치장을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내녀석처럼 별차기만 한 딸이 저런 녀자다운데도 있다고 어머니는 웃었지만 아버지는 범처럼 성이 나 소리쳤다.

《이년, 이 무슨 망할짓이나. 그 귀한 꽃들이 네 눈엔 그래 너의 잘난 몸치장이나 해주는 장난감으로 보였더냐.》

술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려치는 서슬에 씨레기를 담은 담배통이 뒤집혀졌다. 그렇게 성이 난 아버지모습을 처음 보는 경옥의 속도 왈칵 뒤집혀져 입에서는 울음이 쏟아졌다.

《명심해라. 그렇게 산을 귀해할줄 모르면 일생 사람구실을 못해!》

아버지는 산림분소 산림감독원이었다. 그래서인지 애송나무 한그루도 무척 귀해하였고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진 나무가 있으면 가슴아파하며 잠 못 들곤 하였다.

아버지의 등실하고 실박한 어깨엔 늘쌍 삼이 아니면 부식토배낭, 나무종자지게가 메여져있었다.

아버지는 나무를 무척 많이도 심었다.

수림속에서 아버지는 늘 나무들과 속삭이곤 했다.

《단비를 맞더니 펍 자랐구나. 용타!》

《최년출때문에 혼났지. 이젠 숨쉬기가 편안할게다.》

아버지의 꿈무늬를 따라 산에 올라올 때면 경옥이는 그러는 아버지가 펍 우습게 생각되어 혼자 입을 막고 웃곤 했다.

《나무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들나요?》

《듣지. 이 나무들은 이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랑 그리구 이 아버지 소원이랑 다 알구 땅속에 깊이깊이 뿌리를 내린단다.》

경옥은 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이 펍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아버지는 산을 내릴 때면 어린 경옥이를 목마테 우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경옥아, 뿌리깊은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단다. 그 뿌리는 땅을 지키구 또 산을 떠받든단다. ...》

경옥은 이렇게 나무와 함께, 고향의 산과 함께 자랐다.

그 산을 오르내리고 할 때면 경옥이가 항상 오빠 오빠하며 따라다니던 총각애가 하나 있었는데 꽃을 꺾어 경옥이를 치장시켜주어 욕을 먹게 한것도 사실은 산림감독원인 아버지가 늘 나무에만 달라붙는다고 독고마리녀석, 담쟁이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던 그 인철오빠였다.

경옥이가 소년단에 입단하고 인철이와 돌아오던 날이었다.

그날 경옥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인철은 마을동구길에서 문득 경옥의 손을 잡아끌었다.

《경옥아, 이 오빠가 오늘 소년단원이 된 너를 축하해서 무얼 줄가?》

경옥은 이 장난꾸러기오빠가 또 무슨 재미난 일을 벌여놓으려나 하는 생각에 흥이 나서 다가들었다. 치마보다도 바지를 입기 좋아하고 머리도 가위를 들고 제 손으로 남자처럼 승덩승덩 잘라버리던 경옥은 인철이에게 있어서 남자 못지 않게 《용감하고 배짱이 맞는》 동생이었다.

《잠깐 기다려. 내 이제 너에게 고운 까치알을 줄게. 좋지?》

인철은 경옥이가 붙잡을새도 없이 아슬히 자란 뽕뿌라나무로 달려가더니 손에 침을 탁 뱉아 비비고는 찰싹 달라붙었다. 언제부터 버려오던 까치둥지였다.

경옥이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나두 같이, 나두 올라갈래.》

인철이가 말렸지만 경옥은 막무가내로 애를 뽕뽕 쓰며 따라오르기 시작했다. 조그마하면서도 감쪽한 까치알을 손에 쥐어본다는 흥분에 겁이라는 것도 몰랐다.

늘쌍 남자애들만 따라다니며 산에서 나무잡이도 곧잘 해온 경옥이여서 인철은 내버려두었다. 둘은 거침없이 쉰쉰 잘도 올라갔다. 한참이나 쉼쉼거리며 올라갔어도 등지는 까마득한데 밑을 내려다보니 경옥은 눈앞이 아찔해났다. 하늘땅이 핑 돌았다. 어떻게 예까지 올라왔던지 저로서도 놀라웠다. 그렇다고 다시 혼자 내려가기도 무서웠다. 미끄러져내리기에는 너무도 높이가 올라왔던것이다. 오히려 자꾸 우로만 올라가는 인철이를 따라오르는게 더 나을것 같았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경옥은 옆으로 뻗은 가지에 간신히 한발을 뻗쳐던기고 섰다가 조심히 타고앉았다.

그제야 숨이 나갔다. 경옥은 개구리다리처럼 열심히 구부러졌다펴졌다하는 인철의 다리만을 조마조마해서 올려다보았다.

인철이 용케도 누군가가 올려놓은듯이 나무가지에 끼여있는 바구니같은 까치둥지에 올라갔건만 새도 알도 없는 빈둥지일줄이야. 그때의 맹랑함이란...

실망으로 새까매진 인철이의 얼굴이 미안스레 경옥이를 내려다보았다. 불이 부어오른 인철은 주위를 두릿두릿 살펴보았다. 이왕 올라온바엔 이따위 빈 둥지에 속히온 분풀이라도 하고 내려와야 속이

시원해질것 같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인철은 (참, 어머니가 사오라고 한 성냥이 있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주머니를 뒤져 성냥갑을 끄집어냈다. 드윽— 성냥에 불이 달리자 그것을 등지안에 던져버렸다. 바깥 마른 삭정이들로 촘촘히 엮어진 등지에서 확 불이 솟구쳤을 때에는 인철이가 이제 겨우 등지로부터 한메터나 내려올가말가한 거리였다. 탁탁 불씨가 튀며 솟구치던 불이 위위 소리를 내며 밑으로 똑똑 떨어졌다.

일 하나 없이 가지들만 삐죽삐죽 나온 나무우에서 인철이는 물론 경옥이도 그야말로 불소나기를 들쓰는셈이 되고말았다.

정신이 다 쑥 빠질 정도였다.

경옥은 왕왕 소리내며 울었다. 인철이도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속에는 경옥이 아버지도 있었다. 아버지는 익숙된 솜씨로 나무우를 올랐다. 불은 아버지에게도 쏟아져내렸다. 혼맹이 나간듯 눈물범벅이가 되어 병아리처럼 떨며 내려오지도 못하는 경옥이네를 올려다보며 아버지는 소리쳤다.

《죽지 않아, 천천히 내려오너라. 옳지, 옳타.》

땅에 내려섰을 때 경옥이네는 승승 옷에 구멍이 뚫리고 머리카락도 타들어 주체가 말이 아니었다.

물론 아버지는 경옥이네를 가만놔두려 하지 않았다.

《이녀석들, 새둥지를 털다못해 나무에 붙질해. 사람구실 못할 녀석들!》

인철이가 경옥이를 막아섰다.

《내가 올라가자고 부추겼어요. 경옥이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옥도 안 나가는지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늘만 쳐다보며 푸념처럼 중얼거렸다.

《저놈의 계집애 커서 뭐나 되겠는지...》

옥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해댔다.

《꼴좋수다. 축구를 해라, 레스링을 해라 하더니 그 애비에 그 딸인데 감독원을 시키구레. 나무타기도 쟁내비 찹떡먹겠으니 종자파기야 그저그만 아니요.》

아버지도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모여섰던 사람들도 한바탕 웃어댔다.

집으로 오면서 어머니는 경옥이에게 올리댔다.

《너 다시 저 망종같은 녀석을 따라다니면 다리갱이를 분질러놓겠다.》

《싫어, 나 인철이오빠하구만 놀래. 커서 어른이 되두 인철오빠만 따라다닐테야.》...

《뭐이 어쨌어? 어른이 돼두? 아유, 기차라. 이년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럼 시집갈 땐 어찌겠니?》

경옥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머리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시집갈 땐? 음— 나 인철이오빠가 시집갈 때도 꼭 따라갈래.》...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던 인철이와 대판 싸우게 될줄이야.

그것도 나무때문이었다.

학교에서는 매해 봄이면 산들에 나무심기를 조직하곤 하였는데 아버지가 나무모들을 나누어주곤 했다. 아버지는 선생님 못지 않게 나무모 심는 방법을 무던히도 까근까근 설명해주었다. 렬을 어떻게 맞춰라, 간격은 어느만큼 보장해라. 극상 커야 저가락만 한 애리애리한 이깔나무모였다.

그런 애기나무모 한줄을 산등덕에서부터 정점까지 올라가며 줄을 맞추어심는다는것이 인철이에게는 여간 빠근한 일이 아니었다.

지루해난 인철은 나중에 손에 쥔 몇십대의 나무모를 몰래 샘터주변 풀덤불에 뿌려던지고말았다.

그리고는 실컷 장난을 치다가 아이들이 산정점에 나무를 심으러 다 올라갔을 때에야 부랴부랴 올라가 두석대 남겨두었던 나무모를 심어버리고말았다.

《다 심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이악스레 나무모를 심어가던 경옥이가 자기의 시꺼먼 행동을 지켜보았다는것을 인철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이 모두 산을 내릴 때 경옥은 조용히 인철을 붙잡았다.

《왜 그래?》

경옥의 손에는 인철이가 던져버렸던 나무모들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오빠 뭐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며 키운 나무모인줄 알아?》

인철은 동생벌되는 계집애에게 들킨것이 망신스러워 얼굴이 벌개져 목소리를 높였다.

《야, 아버지가 감독원이라구 너두 감독원이야? 고까짓 몇대 안되는걸 가지구 눈이 울롱해서... 이거 동생처럼 생각해주니까 이젠 버릇없이.》

가만있을 경옥이가 아니었다.

불시에 두눈동자가 눈물속에 풍당 빠져버린 경옥은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들었다.

《뭐야? 다시 말해봐. 너같은것두 오빠야?》

너무도 돌변한 경옥의 태도에 인철은 꿈쩍 놀라 물러났다.

독을 쓰며 달려드는 경옥이를 마음어진 인철이는 당해낼수 없어 찢절매며 달아났다.

경옥은 울며 혼자 나무를 심었다. 나무의 귀중함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수고를 모르는 인철이에 대한 야속함과 분한 마음에 나무를 심었다.

주위가 먹칠을 한듯 캄캄해서야 산을 내린 경옥은 그밤 너무 분해 베개깃을 몰래 적셨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인철이는 학급학생들이 모인 앞에서 선생님께서 뒤편을 받았다.

마감에 산을 내리던 인철이네 학급처녀애가 그들이 다투는것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에게 사실을 말했던것이다.

인철이와 경옥의 사이는 이때부터 《원췌》시간이 되고말았다.

《고자쟁이, 내 너하군 다신 말 안해!》

인철은 한번 아니하고 돌아서면 다였다.

그런데다 인철은 며칠후에 탐사대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다른 리로 이사를 갔다...

2

《따르랑, 딸랑...》

동심의 내가로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던 경옥을 별안간 울리는 손전화소리가 건져주었다.

남편인 인철이가 걸어온 전화였다.

《여보, 돼지우리를 넓히는데 쓸 목재를 가져가라누만. 산림분소에서 전화가 왔됐소.》

《그래요?》

경옥은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여서 얼굴엔 함박꽃같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가슴속에선 확 우등불이 일었다.

돼지우리가 좁아 늘 마음이 무거웠던 그였다.

《저녁에 내 산림분소에 들러 날라오겠소.》

남편의 이 말에 경옥은 펄쩍 뛰었다.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내가 얼른 가서 날라와요. 당신은 걱정말구 탄광일이나 잘 하세요.》

서둘러 전화를 끈 경옥은 부리나케 온실문을 나섰다.

산림분소까지는 10여리 잘되었다.

손수레를 끌고 동구길에 나선 경옥은 돼지우리 짓는데 드는 목재량을 속구구해보기 시작했다. 지붕에 었을 들보감에 생각이 미치자 문득 다투고 헤여졌던 인철이를 다시 만나던 때가 났혀와 웃음을 머금었다.

...

탄부인 인철이가 혁신갱 소대장으로 임명받은 그 날이었다.

혁신갱은 기본탄광과 떨어진 매두봉중턱에 새로 전개된 소갱이었다.

수십년전에 캐먹을대로 캐먹은 탄밭이었는데 탐사과정에 몇백톤의 비게탄이 아직 매장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탄광에서 인철이네 소대를 먼저 거기로 보냈던것이다.

지령전화기로 작업지령을 준 갱장이 인철이네 소대를 그 소갱으로 막 떠나보내려고 하던 그찰나였다.

갱장방문결에 오도카니 앉아있던 경옥은 발딱 일어나 달려와 갱장아바이의 전화기를 부여잡았다.

《아바이, 그 소대를 그냥 보내면 안돼요.》

자기 방에 들어와 앉아있는 경옥을 감감 잊고있던 갱장아바이가 《아차.》 하며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가만. 소대장, 이제 곧 소대를 몽땅 데리구 회관으로 오게. 오, 다르게 아니구 산림분소에서 식수절과 관련한 해설을 나왔어. 뭐뭐? 안돼. 그냥 갔다간 처벌받을줄 알라구.》

갱장을 따라 회관무대쪽 문을 열고 들어선 경옥은 무대에 나서기 전에 갱장에게 매두봉에 전개된 혁신갱 소대장이 누구인가부터 물었다.

무대 한끝에 몸을 숨긴 갱장은 무엇을 훑쳐보는 사람처럼 한쪽눈만 내밀고 객석에다 손가락총을 겨누며 경옥이에게 소곤거렸다.

《저기 가운데줄 앞에서 네번째 앉은 총각이야. 미남자구 일군이이지.》

《아이참, 갱장아바이두...》

아바이가 겨는 몽툰한 손가락끝을 따라 시선을 주니 머리를 푹 숙인 사람이 걸려들었다.

그때 인철은 불이 부어올라있었다. 마치 출발선에 나선 육상선수가 땅을 박차보지도 못한채 발목을 굽지른듯 한 기분이랄가.

맹랑한 자세로 짝 찬 회관의 빈자리에 들어와앉아서는 수첩만 내려다보며 속구구를 해보고있었다. 동발목이며 레루, 버럭처리 등 월석탄계획수행에 대한 궁냥뿐이었다.

불시에 물속에 잦아들듯 하는 정적에 머리를 들던 인철의 눈이 점점 부엉이눈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산뜻한 연곤청색잠바옷을 가끈히 차려입은 처녀가 무대로 나오는데 분명 낮이 익었던것이다. 기연가미연가 처녀를 주시하던 인철의 얼굴은 한순간 조명빛이 들쭉워진듯 환해졌다.

《저게 누구야! 하! 이런...》

부지불식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간 소리에 탄부서넛이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다.

《여 소대장, 아무리 미인이 나와섰기로서니 그렇게까지 놀랄진 뭐가. 소리까지 내지르다니, 원.》

무대에서 내려와 어느새 옆에 앉았던 갱장아바이가 보기 민망한듯 한마디 돌려주었으나 인철은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딱 굳어져 반박 한마디 못했다.

천만뜻밖에도 나타난 경옥이를 그는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만 보았다.

헤어저서도 몸시도 보고싶어 늘 그려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처녀가 밝게 웃으며 탄부들앞에 나서서 침착하게 강연을 시작하고있었다.

홀린듯 처녀의 자태를 바라보던 인철의 눈앞에 부지중 입술을 옥물고 기를 쓰고 자기를 따라 나무에 오르던 경옥의 그 귀여운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고양이처럼 독을 쓰며 막대기를 쥐고 달려들던 그때의 발끈한 모습도 방불히 안겨와 얼굴이 붉어졌다. 숲이란 숲은 다 헤치며 싸다니고 개울이란 개울은 다 들어가 침범거리던 어린시절의 그 추억들이 그를 꼭 붙잡고 고향으로 발뼉발뼉 이끌어 가는듯도 했다.

한편으로는 경옥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불안했다.

고개를 수그리고 생각에 움해있던 그는 경옥이가 한가지 물어보겠다며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저 가운데줄 앞에서 4번째 앉은 동지!》 하고 자기를 지명한줄도 몰랐다.

뒤에서 누군가 잔등을 쿡 찔러댔다.

《왜 그래?》

《찾지 않아.》

인철은 관청에 온 촌닭처럼 사방 둘러보며 되물었다.

《누가 찾는단 말이야?》

주위사람들이며 소대원들도 모두 웃으며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여, 정신은 주머니에 넣고 앉아있나? 아, 강사가 찾았다는데...》

꿈쩍 놀란 인철은 그제야 쇠꼬챙이에 찔리운듯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경옥의 눈가에도 번쩍 놀라운 빛이 스쳐지나갔다.

너무도 낮은 얼굴이어서 자기가 왜 저 사람을 일으켜세웠는지도 잊어버렸다.

분명 그 독고마리야. 참 일두, 그런줄 알았으면 지명두 하지 않았을걸...

고개를 숙인 경옥은 팬히 제강만 뒤적거렸다.

탄부들이 웬일인가싶어 인철이와 경옥이를 번갈아 쳐다볼 때에야 경옥은 도마도처럼 빨개진 얼굴을 겨우 쳐들고 기여드는 소리를 내다가 그나마 급기에 삼켜버렸다.

《저 나무를 캐자면 아니, 저...》

경옥은 어쩔줄 몰라하며 얼굴을 감쌌다.

야, 내가 왜 이러니...

《나무를 캐다니?》

《무슨 소리야?》

《췌, 그러다 처녀가 울겠네.》

탄부들이 술렁거렸다.

한참만에야 경옥은 자신을 다잡은 모양 청높은 소리를 냈다.

《저... 탄을 캐자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너무도 단순한 그 물음에 인철은 얼친 사람모양 꺼져부정해서 중얼거리듯 했다.

《에, 그건 저... 동발목이 있어야 하구 그리구 또...》

경옥이는 체격 말을 받았다.

《에, 옳습니다. 동발목 즉 나무가 있어야 합니까.》

인철은 얼굴이 벌개서 자리에 눌러앉았다.

경옥이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많은 말을 했지만 인철의 귀에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자 인철은 휴식터에서 팬히 서성거렸다. 자기가 지금 경옥이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느꼈을 땐 가슴이 막 울렁거렸다.

누군가 살머시 다가와 눈을 가리웠다. 열결에 그 손을 잡아보니 무척 자그마하면서도 말큰하고 따스한 손이었다.

아직 한번도 쥐여본적이 없는 처녀의 손이었다.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경옥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귀가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예요, 경옥이! 알아보겠지요?》

금시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된 인철은 경옥의 생글거리는 얼굴을 넋없이 쳐다만 보다가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탄광에 다 왔어?》

《전 여기 산림감독원으로 왔어요.》

인철은 어마지무 놀란 소리를 질렀다.

《뭘? 아니, 처녀가 산림감독원이라?》

항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있는 인철을 끌고가며 경옥은 말을 돌렸다.

《어마나, 인철동진 어릴 때하군 전혀 달라졌군요. 키도 이깁나무처럼 미출하게 쭉 빠지구 정

말 멋있어요. 어제날 말썽 많던 독고마리가 이런 멋쟁이 총각이 됐다는걸 알면 모두들 깜짝 놀랄거예요.》

경옥의 맑은 눈동자가 인철의 모습을 더듬었다. 처녀의 시야에 비낀 총각은 그때사납던 어릴 때의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는 퉁퉁하고 날씬해 보이면서도 다부진 사내였다.

여자처럼 쌍꺼풀진 맑은 눈빛만은 담찬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예전 그대로인것 같았다.

무릅없는 성미 그대로 자기를 대하는 경옥의 태도에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진듯 인철의 눈에 어릴 때처럼 장난기가 비끼기 시작했다.

《경옥이, 생각나? 우리가 까치등지에 올라갔던 날...》

그의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가쁜히 드러나는 차돌같은 하얀 이빨들마저 살짝살짝 웃고있는듯.

경옥이가 큰일난듯 말을 막았다.

《음- 만나자바람에 그 소린 왜 해요. 생각만 해도 오싹한데.》

인철이의 눈은 그냥 재글거렸다.

《그 소리가 아니야. 그때 경옥인 나한테 시집가겠다고 했지.》

경옥이가 깜짝 놀라며 주먹을 쳐들줄 알았던 인철은 그가 너무도 태연히 대꾸하는 바람에 제가 더 껌쩍 놀랐다.

《왜요? 무서운가요? 가면 가는거지요 뭐. 난 그때 벌써 맹세했거든요, 오빠한테 시집가겠다고...》

인철은 돌리묵처럼 되어 눈만 껌쩍거렸다.

세상에 이런 처녀도 있나?

경옥은 뻥헤진 인철의 모습을 보며 허리를 꺾고 웃어대더니 활기차게 걸어갔다.

인철은 그밤 행복으로 설레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허나 그 행복은 보라빛 공상과도 같이 며칠 못 가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말았다.

또 어릴 때처럼 나무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옥은 온통 버럭돌뿐인 매두봉에 두그루의 아카시아나무모를 가지고 찾아왔다.

《인철동지, 여기도 산인데 나무를 심지요.》

인철은 어이없어 웃었다.

《여긴 흙산이 아니라 돌산이야, 돌산. 그것두 풀 한대 없는 버럭산. 그리구 계획수행에 눈코 뜰새없는데 언제 나무심을새가 있어?》

경옥은 그래도 막무가내였다.

《인철동진 벌거숭이산을 오르내리기가 가슴아프지 않아요?》

함께 나무를 심자고 삼을 쥐여주려 하는 경옥이

에게 인철은 오늘은 정말 바빠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경옥은 저 혼자 그 나무를 심고 내려갔다.

식수절이 다 지나가도록 인철은 그후에 경옥이가 마련하여보내준 몇십그루의 아카시아나무모를 심겠다고 약속하고도 음달진 한곳에 림시로 묻어둔채 감감 잊고있었다.

그것이 경옥의 격분을 자아낼줄이야...

경옥은 갭에서 나오는 인철을 무작정 잡아당겼다.

와플 놀라 돌아보던 인철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경옥이야? 난 또 어떤 장난군녀석인가...》

인철은 자기를 쏘아보는 경옥의 눈길에 그만 입이 얼어붙었다.

《남자가 시시하게 한입가지구 두말을 해요? 나무모를 어떻게 했어요?》

날이 선 그 말에 인철은 허둥거렸다.

《나무모 말이지, 래일 심을려구...》

인철이를 따라 나무모를 심어둔 곳에 이른 경옥은 말라가는 모들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나무모들을 쓰다듬었다.

인철은 바빠맞아 중얼거렸다.

《경옥인 왜 그리 극성이야. 구멍이 승승한 돌쥬에 아카시아를 박으면 살아난대? 흙을 저날라야 하는데 어느 쥬에 그 역사질을 한단 말이야.》

파들과들 떨리던 경옥의 입술이 열렸다.

《어쩔...》

인철동지, 우리 아버지 늘 나무를 귀해할줄 모르는 사람은 일생 사람질을 못한다고 외우군 했어요. 꼭 인철동지에게 맞는 말인것 같어요.》

이 말에 인철은 리성을 잃었다.

그의 손가락이 땅을 맞구멍낼듯 아래로 향해졌다.

《여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누가 그랬어? 누가? 난 탄부야, 탄부. 탄을 많이 캐는게 내 임무란 말이야.》

소대원들이 일단 성이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자기네 소대장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흠뻑흠뻑 뒤를 돌아다보았다.

경옥이는 무서운듯 뒤로 물러나면서도 말을 받았다.

《웁아요. 탄을 많이 캐는게 임무이지요. 바로 그 탄을 많이 캐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철동진 청맹파니처럼 왜 이 뻔한 리치도 모르는가요?》

인철이 더는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짹 소래기를 내질렀다.

《뭐야? 청맹과니? 보자보자하니까. 여긴 우리 탄광이 넘겨받은 산이란 말이야. 말은 산들이나 잘 돌아볼게지 괜히 따라다니면서...》

순간 경옥의 얼굴은 하얗다못해 파랗해지고 아래 입술은 바르르 떨리었다.

눈가에는 안개같은것이 서서히 차오르더니 꼭 다물린 입언저리로 눈물방울들이 거침없이 구울러내렸다.

경옥은 얼굴을 싸쥐며 달려내려갔다.

그때야 인철은 제 허를 깨물었다.

어릴 때처럼 또 괜히 처녀를 울렸다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악스러운 손같은것이 자기의 앞가슴을 짹 움켜잡아 비트는듯도 했다.

다음날 말라가던 그 나무모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경옥이가 다시 그 나무모들을 떠났던것이다.

그 나무모들과 함께 자기 마음속의 귀중한 그 무엇인가도 쑥 뽑아간듯이 인철은 속이 허전했다.

이젠 결별이다, 예이...

하지만 아무리 털어버리려 해도 어린시절 잊지 못할 추억들이 때없이 머리속에서 맴돌았고 꿈속에선 경옥의 시원스러운 이마며 복스러운 랑볼이며 선이 또렷한 입술이며가 너무도 방불하게 나타나곤 했다.

느닷없이 마음이 착잡해지고 금시 비가 쏟아질 하늘처럼 어수선했다가 일쭉였다.

몇밤을 패며 일을 해도 지칠줄 모르던 육체가 나른해지고 허탈감이 심신을 휩쓸었다.

소대원들은 자기네 소대장이 상사병에 걸렸다고 쉬쉬했다.

그런데 며칠후 그 산에 배낭을 멘 경옥이가 다시 나타났다.

돌산에 글썽 흙을 편다는것이였다.

험한 돌투성이 어디에 흙을 퍼는지 매일과 같이 배낭을 멘 경옥의 모습은 보였으나 그가 퍼나가는 흙무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산은 컸고 높았으며 험했다.

날바다에 흙을 처넣어 땅을 만들겠다는것만치나 어리석은것같아보여 인철은 기가 막혔다.

험한 돌산에서 굶히우고 굴러날 때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기가 더 괴로웠다.

소대원들이 모두가 말렸으나 막무가내였다.

그 성미를 아는지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끔끔 앓기만 하던 인철이도 끝내 막아나섰다.

《경옥이, 이건 무슨 역사질이야? 응? 당장 그만 두지 못하겠어?》

경옥은 입을 욱물며 인철이 앓아낸 배낭을 나꿔챘다.

《증명하겠어요. 이 산에두 나무가 자란다는걸 보여주겠어요.》

《에이, 안타깝비. 고집불통.》

그때 소대에서는 여가시간마다 와닥닥 달라붙어 휴계실을 짓고있었다.

경옥이가 심어놓은 두그루의 아카시아나무가 자라는 공지에 짓는 그 휴계실은 한증탕이 달린 목욕탕에 침실과 식당까지 붙은 그야말로 멋쟁이건물이였다.

성수가 난 소대원들은 기초구멍이안에서 먼저 《돌산의 작은 집》이라는 이름부터 지어놓았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며 집을 너무 크게 짓다나니 통마루에 없을 들보감이 문제로 되었다.

그만한 길이의 나무가 여기 주변산에는 없는것 같았다.

한 소대원이 안을 내놓았다.

경옥이를 녹여내면 분명 그런 나무가 나진다는 것이였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소리였다.

산림감독원이였던 경옥이 아버지는 마을에 집을 지을 때면 언제나 들보감을 메다주곤 하였다.

그 소대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갓 이사온 경옥이네 집일을 도와주다가 뒤마당에 있는 긴 들보감 몇대를 보았다는것이다.

소대원들은 어서 빨리 경옥이네 집에 가서 들보감을 메오자고 떠들어댔다.

허나 인철은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이제 무슨 체면에...

바로 그 저녁이였다.

경옥이가 온몸이 땀에 화락하니 젖어가지고 들보감을 끌고 매두봉에 올라왔다.

금시 땅에 주저앉을듯 숨을 튕는 경옥이와 마주선 인철은 너무도 천만뜻밖이어서 누가 바늘로 꿰매놓기라도 한듯 입이 떡 붙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경옥은 눈가에 애써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휴계실을 짓는다지요?》

너무도 쓸쓸한 미소였고 랭담한 목소리였다.

《?...》

《다 들었어요, 소대장동지가 석탄도 캐면서 휴계실을 짓느라고 수고한다는걸. 들보감이 없어 애타한다는것두...》

인철은 자기를 《인철동지》라고 정답아 부르던 경옥이의 입에서 《소대장동지》라는 말이 흘러나올 때 커다란 거목이 우지끈 넘어가는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태연히 앞장에서 걸어가는 경옥이를 처음 보듯 바라만 보다가 무엇을 잃어버릴가봐 허둥거리는 사

람처럼 황황히 밭을 내짚었다.

들보감이 뒹눴하다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인철은 탄복했다. 이깎나무가 어찌나 길고 미출한지 여기 어느 산에 이런 나무가 있었는지 놀라기만 했다.

《믿어지지 않을거예요. 이 나무가 우리가 심었던 그 나무예요, 중학시절에…》

말끝을 맺지 못하는 경옥의 말에서 인철은 이 이깎나무가 나무모 한줄때문에 다투던 그날에 심었던 나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인철을 불시에 멍청이로 만들어버렸다.

경옥은 분명 우리가 심은 나무라고 했다.

머리가 저절로 폭 꺾이였다.

경옥인 바재이더니 힘들게 말을 뱉었다.

《아버진 학생들이 나무를 심을 때면 덕재골엔 어느 학급이, 또 다재골엔 어느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는가를 다 적어두셨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구 또 군대에서 제대되어 오면 꼭꼭 그들이 심은 나무 한대씩은 남겨두셨다가 새집을 짓는 들보감으로 주곤 했어요, 제 손으로 심은 나무의 덕을 볼 때의 기쁨도 맛보아야 나무의 귀중함을 더 잘 알게 된다면서.

여기 이 나문 동지가 심었던… 아버진 여기로 이 사오면 소대장동지에게 이 나무를…》

경옥은 얼굴을 싸쥐며 달려갔다.

인철은 꺼칠꺼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한채 두손바닥이 닳도록 한참이나 나무를 어루쓸어보았고 나무에서 풍기는 씩씩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까지도 걸탐스레 들이켰다.

우리가 심은 나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묵직한 쇠뚱뚱이로 얻어맞은듯 한 머리속에 깊숙이 새겨졌다.

나무를 사랑하라! 산을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이르던 경옥의 아버지얼굴도 떠올라 불시에 눈굽이 뜨거워졌다.

《경옥이, 동무 아버님은 나무들만 키운게 아니라 사람들도 키운 훌륭한분이요. 헌데 난 구새먹은 나무처럼 쓸모가 없는 놈이었어. 나도 이젠 아버지처럼 살기 위해 애쓰겠어. 진짜사랑을 아는 사내가 되겠어.》

인철은 억척스럽게 일했다. 봄과 가을엔 짬만 있으면 나무모를 심어보았다. 경옥이의 뒤를 따라 흙배낭도 졌다. 소대원들도 아침에 갱으로 오를 때면 강바닥흙이건 터밭흙이건 꼭 지고서야 오르곤 했다.

그런 속에서도 소대는 석탄생산을 놓치지 않았다.

소대는 늘 매달계획을 훨씬 기일을 앞당겨 넘쳐

수행했고 도일보신문이며 방송에서까지 인철의 이름이 불리워졌다.

이런 혁신자총각을 누가 마다하랴.

그러는 새 한달, 두달 날이 흘렀다.

안달이 난것은 경옥이 어머니였다.

다기차고 드살스러운 밤나무집로친이라면 아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기로 소문난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팔을 걷고나서면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해 가을 인철은 경옥이와 결혼하였다.

경옥은 첫아기를 낳을무렵에 산림감독원일을 인계하였다.…

3

손수레에 목재를 실은 경옥은 힘을 쓰느라 온몸이 땀에 젖으면서도 성수가 났다.

이 나무들이면 돼지우리를 넓히는데 쓰고도 남을것이다.

산림분소 소장아바이며 분소사람들이 고마왔다.

소장아바이는 산에 올라간 산림감독원들이 내려오면 붙여주겠으니 같이 끌고가라고 하였으나 경옥은 고집을 부렸다.

《역시 탁성보의 딸이 달라. 돌밖에 없던 산 하나를 푸른 산으로 만든다는게 이게 다른 사람들같으면 어디 엄두나 낼 일인가?》

소장아바이는 혀를 끌끌 차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

《아이참, 그게 어디 내 혼자 하는 일인가요 뉘.》

사람들은 누구나 경옥이네 부부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다 해낼것 같았다.

빨리 가야 했다. 할일이 좀 많은가.

경옥은 수레를 끄느라 번디딘 다리에 힘을 주며 입술을 옥물었다.

이상하게도 손수레가 잘 올라와 뒤를 돌아다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남편이 밀어주고있었다.

힘을 쓰느라 얼굴은 벌개졌지만 온통 웃음을 물었다.

언덕을 올라선 수레를 부부는 나란히 서서 끌어간다.

《힘들지?》

경옥은 땀흐르는 얼굴을 흔들었다.

《아니요. 우린 지금 행복의 수레를 끌고있지 않나요. 철훈이 아버지, 전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나무들이 모여 수림을 이루듯이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산을 맡아 가꾸간다면 우리 나라

산들이 그 얼마나 아름다와질까 하구말이에요.》

부부는 멀리에 나무들이 우거진 산을 바라보았다.

인철이가 일하는 갱이 자리잡은 그 푸른 산 매두봉이었다.

부부는 힘들 때도 그 산을 바라보았고 기쁠 때도 그 산으로 달려올랐다.

그 매두봉에선 지금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사열을 받듯 줄지어선 10년생, 5년생, 3년생 이갈나무들이 층층이 빼곡이 자란다. 아카시아나무들이 아직은 엉성한 가지들에나마 기특하게도 향기로운 꽃들을 피워놓고 벌과 나비들을 부른다. 가을에는 그리 무성치는 못해도 손바닥만 한 잎새를 빨갛게 물들이며 단풍나무들이며 넓은잎나무들이 제법 춤추듯 설레인다.

경옥은 그 산속에 들어선듯 대번에 가슴이 활 열리는것 같아 더욱 꿈 힘을 쓰며 수레를 끌어갔다.

부부는 결혼하여 지금까지 울고웃으며 산을 가꾸어오던 그날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

신혼살림을 편 그때에도 나무심기는 계속되었다. 버럭산에 많은 나무모들을 옮겨심었으나 살아나는 나무모들은 적었다.

경옥은 그것이 안타까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경옥이, 산림분소에서 아까운 나무모들이 죽는다구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인철이 하루는 집에 들어와 하는 소리에 경옥은 마침이라는듯 자기가 생각하던 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말이에요, 산림분소에만 매달리지 말구 우리 집 터밭에 양묘장을 만들자는거예요. 그 옆엔 온실도 크게 짓자요. 그래서 겨울에도 나무모를 키우자요!》

인철은 벌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은 인철이네 소대가 1년계획분의 탄을 다 캐낸 날이었다.

장마가 들이닥쳤다. 몇십년만에 들이닥친 그 장마는 사정을 보지 않았다.

갱입구에 쌓아두었던 마지막 2차분의 귀한 탄이 하루밤새 몽땅 사태에 밀려 떠내려갔을 때 인철은 너무 분해 태를 치며 딥굴었다. 온통 물천지인 산판에서 실신한 사람처럼 두손으로 땅을 허비며 통곡했다. 버럭만 쌓인 산아닌 산을 저주하는 그의 웨침소리는 영각소리처럼 메아리쳤다.

《아, 어떻게 캐낸 탄이라구. 이 망할 놈의 버럭산!》

망연한 눈길로 경옥이가 휴계실앞에 심어놓았

던 두그루의 아카시아나무를 바라보던 인철은 놀랐다.

몽청 떨어져나간 우묵한 구덩이속에 드러난 뿌리, 시누렁고 꺼멍기까지 한 탕수가 와글거리며 끓어번지는 속에서도 그 뿌리들은 땅을 짊 거머쥐고 있는 거인의 손을 런상케 했다.

그 나무들은 덩실한 휴계실을 끄떡없이 지켜냈던것이다.

드러난 뿌리를 재여보기까지 하며 인철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러댔다.

얼기설기 땅속으로 뺀내린 아카시아나무뿌리는 15메터나 되었다.

안해가 왜 그리도 극성을 부렸는지, 어째서 지금도 마음속에 뿌리깊은 나무가 자라고있는지 이제야 진짜 알게 된것 같았다.

나무! 뿌리깊은 나무!

《아, 내가 좀더 일찍 이런 나무들을 자래웠을걸, 좀더 이 산에 진정을 바쳤을걸...》

인철은 그 아카시아나무에 마구 불을 부벼대며 부르짖었다.

그 다음날부터 인철은 억척같이 일하며 산밑에서 등짐으로 기를 쓰고 흙을 날랐다.

경옥이도 인철의 뒤를 따랐다.

부부는 이른아침 배낭을 메고 돌산에 올라갔다고 서야 각기 자기 일을 시작했다.

저녁이면 퇴근하여 다시 흙배낭을 메었다.

소대장의 안해까지 흙짐을 지고 오르자 소대원들의 흙나르기도 다시 시작되었다. 누구나 그 매두봉으로 오를 때에는 의례히 흙마대를 쥐고 오르는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그렇게 흙이 퍼지는 땅에 다시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심어나갔다.

인철은 갱옆에도 양묘장을 꾸리고 겨울에도 나무모를 자래울수 있게 온실을 지을 결심을 했다. 산을 깎아내려야 하는 그 일은 웬간한 품을 들이지 않고서는 끝을 볼수 없는 조련치 않은 작업량이었다.

하루는 인철이 집에도 못 내려가고 그 양묘장터전에서 굶아떨어졌다.

저녁밥을 싸들고 찾아올라온 경옥은 흙무지에 기대어 잠든 남편의 모습을 한참이나 앉아 지켜보다가 눈곱이 축축해나 고개를 떨구었다. 이자 산으로 올라오면서 들은 말이 다시 들려와 가슴이 아파났던것이다.

《마음 어진 소대장이 제 안해말만 듣고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놓았으니 소대가 사서 고생을 하지 않나요, 글썄.》

《아유, 그건 마음 어저서가 아니라 남자가 주대

가 없어 그래요. 탄부야 뭐니뭐니해도 탄을 많이 캐야지요. 지금 석탄사정이 얼마나 긴장한가요. 그런데 이건 어쩔두 크지 버럭산에 나무가 뭐예요. 괜히 우리 남편들이 고생을 하니... 글썄 뭘 바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구 소대원들까지 혹 사시키면 돼요?

어쩌나 다몰아대는지 우리 쌍둥이아버진 집에 들어와 밥술을 뜨면서도 존다니까요.》

개천에서 갓 시집왔다고 하여 개천색시라 불리우는 녀인과 쌍둥이엄마가 하는 그 소릴 듣고 입술을 깨물며 주저앉았던 경옥이었다.

남편이 깨어난줄도 모르고 경옥은 울음을 짓씹으며 어깨를 떨었다.

《경옥이,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말짱 잠기가 달아난 인철은 덩돌해진 눈길로 경옥의 손을 잡아쥐며 물었다.

경옥은 인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철훈이 아버지, 힘드시지요? 저두 막 힘들어 이 일을 해낼것 같지 못해요. 이제라도 그만두는 게 어때요, 예? 나야 이제 산림감독원도 아니지 않나요.》

인철은 허허 웃었다.

《난 또 무슨 큰일이 났다구.》

인철은 일어나 다시 삼을 찾아들면서 혼연히 말했다.

흙을 파던진 삼이 다시 땅에 박힐 때마다 인철은 꿈 힘을 쓰며 말했다.

《난, 당신... 힘들어서... 괜히 그래본다는걸 알아. 또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것두 알구. 아버지뒀을 이어서 산림감독원이 되었던 경옥이야 달린 살수 없지 않아. 그리구 왜 아버지가 여기로 이사 오려 했는지도 당신은 너무도 잘 알지.》

결혼한 첫날 경옥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인철은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고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옥의 눈앞에는 아버지얼굴이 떠올랐다. 귀가엔 어느날인가 밤늦게야 산에서 내려온 아버지가 떠듬거리며 하던 말이 쟁쟁히 들려왔다.

《글썄 최전연초소들을 돌아보시고 오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나무가 몇대밖에 없는 산을 보시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오래도록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는구나.》

푸른 숲 우거진 산을 인계하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아버지였다. 이웃리의 돌투성이인 매두봉이 마음에 걸린다는것이였다.

허나 아버지는 선뜻 이사를 갈수 없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아버지는 몇몇 사람들이 산을 벗기기 시작할 때 제 살점이 벗겨여지는것처럼 분해서 맹수마냥 산을 지켰다.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못해 어머니가 올라와 푸념을 늘어놓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산을 지켜야 하오. 저마다 산을 벗길내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소.》

봄, 가을에는 종일 굶으면서도 혹 누군가가 부대기를 일구다 불을 놓을가봐 산에서 살다싶이 하며 내려오질 않았다.

길쭉구가 섞인 풀밥을 싸들고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날에 다래풀에서 불이 일었다.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번개가 일고 벼락이 치며 잠간 소나기가 내린 그 저녁에 일어난 불길은 너울거리며 일어서더니 피물처럼 숲우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더럭 겁이 난 경옥은 미끄러지고 굴러나며 아버지가 불과 싸우고있을 그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하늘을 데우며 치솟던 그 무서운 불길속에서 아버지는 영영 나오지 못했다. 사람들의 말이 아버지는 불을 끄기 위해 수십번이나 불속을 뒹굴었다고 했다.

《아버지—이!—》

우우— 밀려가고 밀려들던 그 바람소리며 흐느낌 소리인듯 찌—걱 찌—걱 소리를 내며 몸을 흔들어대던 소소리 자란 나무들밑에 주저앉아 경옥은 슬피 울었다.

아버지의 발자욱이 수없이 찍힌 그 오솔길들은 사무치게 경옥의 가슴속에 새겨졌고 나무잎 설레이는 소리는 아버지의 당부를 전하는 메아리가 되어 그랴그랴 귀가에 들려왔다.

경옥은 산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산림감독원이 되었고 매두봉으로 이사를 왔던것이다.

인철이 생각에 잠긴 경옥의 손을 꼭 잡아쥐며 속삭였다.

《경옥이! 경옥인 쉽게 넘어지지 않아. 언제나 앞장에서 나를 채찍질해줘야 해, 응?》

경옥은 눈물범벅이가 된 얼굴을 인철의 그 넓은 가슴에 묻고말았다.

별들이 깜빡이는 참으로 유정한 밤이였다.

다음날 경옥은 탄광당위원회를 찾아갔다.

탄광녀맹산림반은 이렇게 무어졌다.

경옥이를 곱지 않게 보던 녀인들도 남편들의 성화에 못이겨 마지못해 산림반에 들어왔다.

녀자들이 뭉치고 달라붙으면 남자들도 감당 못할 일을 해내는 때도 있는 법이다.

그날부터 녀인들은 매두봉에 땀을 묻었고 웃음을 뿌렸다.

돌산은 차츰 푸른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해 보리장마는 례년에 없이 횡포했다.

그렇게 애면글면 키워 산에 옮겨심은 나무모들이 세찬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사물쳐흐르는 골개물에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다.

경옥은 맥을 놓고 주저앉아버린 녀인들을 다시 산으로 이끌고오를 용기가 없었다.

더우기 쌍둥이엄마나 개천색시를 이제 다시 산으로 오르게 한다는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것 같았다.

아닌게아니라 괜히 헛고생만 했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오고있었다.

그때 비서댁 금동이 엄마가 경옥을 잡아끌었다.

《자, 또 산에 올라야지요. 떠내려간 나무몬 할수 없지만 뿌리내린 나무들이야 살려야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경옥이가 용기를 못 내자 금동이 엄마는 제가 술선 팔을 걷고나서 집대문들을 두드렸다.

다음날 산에 힘들게 올라온 녀인들은 참담한 광경에 모두가 손땀이 풀려 누구 하나 선뜻 일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한곳을 응시하던 개천색시가 발딱 일어나더니 탄성을 질러댔다.

《어마나, 토끼! 토끼예요!》

녀인들의 시선이 그의 눈길을 따라 돌려졌다.

경옥이네와 좀 떨어진 바위밑에 과연 재빛토끼 한마리가 웅크리고앉아 파랗게 돌아난 풀을 뜯느라 호물거리고있었다.

바위밑 음달진 곳이어서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뼈죽이 솟아오른 귀며 통통한 몸이며 뼈죽한 대가리는 토끼가 분명했다.

《아유나, 정말 토끼네.》

주저앉았던 녀인들이 언제 그랬나싶게 와작 떠들어댔다.

《아니, 이 돌산에 어떻게 저런 토끼가 다 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누가 집토끼를 잃은게 아니예요?》

누군가의 이 말에 금동이 엄마가 짜증어린 소리를 내질렀다.

《거 누가 그따위 소릴 해요. 저건 산토끼예요. 집토끼와 산토끼도 못 가려봐요? 저건 우리 매두봉의 토끼란 말이에요. 이 산에두 나무가 자랄수 있구 산짐승도 살수 있단 말이에요. 안그래요?》

《웁야요.》

《그러니 여기 돌산두 이제 산토끼들이 풀을 뜯구

평들이 등지를 트는 그런 산이 된단 말이지요?》

모두들 법석 끊어대며 물끓을 다시 켜다, 돌을 쳐낸다 야단들이었다.

산을 내릴 때에 쌍둥이엄마가 경옥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첼훈이 엄마, 날 욕하라구. 이 참새가 또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놓았다구 동네방네 소문을 낼가봐 속상했겠지? 아닌게아니라 이 주책머리 없는게 또 입이 뽀죽해졌겠지. 오죽했으면 금동이 엄마가 제 집 토끼를 안고 올라와 너력바위밑에 매놓을 생각을 다 했을가. 아유, 내가 죽일 년이지.》

《예? 아니, 그럼 그 토끼가?... 글썄 설마하니...》

《그럼, 누가 집토끼와 산토끼도 못 갈라보겠나. 다 알면서두 모두 산토끼라고 우정 떠들어댄거야. 첼훈이 엄마가 우리때문에 주눅이 들가봐서이지.》

경옥은 눈앞이 뿌잇해져 걸음을 멈추었다.

개천색시도 경옥의 손을 가만히 잡아쥐었다.

《용서해요. 첼훈이 엄마, 나두 남편한테서 다들어 알아요. 나라의 자원을 가꾸는 일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구 또 시간을 내서 하는일이 아니라는걸...》

경옥은 눈물범벅이가 된 얼굴에 활짝 웃음을 피우며 목멘 소리를 곱씹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유, 뭐가 고맙다는거예요.》

아, 내가 이런 녀인들을 오해하고 곡해하다니...

경옥은 아름다운 탄광녀인들을 새삼스레 다시 쳐다보았다.

《매두봉산토끼이야기》는 소대를 감동시켰고 온 탄광에 옛말처럼 퍼져갔다.

다음날 아침부터 경옥은 매두봉을 오르내리며 늘 쾅무니에 차고다니던 호미로 여기저기를 두쳐도 보고 파낸 흙을 손으로 비벼도 보았으며 냄새를 맡아 보기도 했고 살짝 허끝을 대보기도 했다. 토양분석을 한다면 흙배낭을 지고 군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을 돌아가더니 불쑥 만원들을 모여놓고 하는 말이 모두를 아연케 했다.

《여러분, 보리장마때 나무모들이 떠내려간것도 제 잘못이구 싹을 틔우던 모들이 죽어간것도 다 제 탓이에요.》

녀인들은 천만뜻밖의 소리에 땅이라도 흔들리는듯 법석 고아댔다.

《아니 반장, 그건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야?》

《그러니 첼훈이 엄만 저 하늘을 길들이구 죽는 나무들을 살리는 무슨 재간이라두 있었다는건가?》

경옥은 자책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척박한 산이라구 매두봉을 우습게 봤 거던요. 그저 무턱대고 나무모들을 심어만 놓았 으니… 지금은 땀으로 나무를 심는 때가 아니지 않나요. 지식을 물어야 해요, 지식을!》 경옥은 손에 들고있던 수첩을 펼쳐들더니 모두를 둘러보 았다.

《그래서 매두봉을 보배산으로 만들 방도를 찾아 보았어요. 전 우리두 매두봉에 림농복합경영방법대 로 나무를 심자는거예요.》

호기심을 안고 다가드는 녀인들에게 경옥은 차근 차근 설명을 해나갔다. 우선 물끓을 여러군데 깊 이 잘 썰야 한다, 그리고 돌이 많고 습기많은 덕지 골엔 돼지풀을 나무 그루그루사이에다 심고 경사가 급해서 물이 쭉쭉 빠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진주덕 엔 그루사이마다 고추를 올라가면서 쭉다 심는다, 그리구 산밑 주변 평퍼짐한 공지들엔 수수와 조, 보리를 심는다…

머리를 기웃거리는 녀인들에게 경옥은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될수 있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자래우면서도 돼지풀은 물론 고추도 톤반 따들일수 있구요, 수수, 보리, 참, 잘만 하면 버섯도 키워 수확할수 있 어요.》

그의 말에 모두들 와짝 떠들어댔다.

《생각만 해두 흐뭇하군요. 고추와 버섯이라 니, 원.》

《정말 그렇게 되면 고추가루 걱정은 안하게 되 겠어요. 내 서방님은 고추가루를 친 음식두 꼭 제 손으로 던치고야 자시군 해서 속상했는데… 우리 령감이 이제 살통이 났구나. 아이구나 좋아라.》

어깨춤까지 춰대며 노죽을 피우는 금동이 엄마의 모습에 모두들 즐겁게 웃었다.

성수가 나서 일손을 잡은 녀인들이 뿔아대는 노 래소리와 명랑한 웃음소리가 그날은 산판을 흔들며 그칠줄 몰랐다. 경옥이는 나무들의 사름들을 높이 려면 산에 거름을 내야 한다는것을 알고는 집창고 를 헐고 돼지우리를 지었다. 한해에 50마리의 돼지 를 키워낼 헐치 않은 목표를 세웠다.

우리가 모자라 다시 넓혀 짓다나니 뒤마당은 아 예 없어지고말았다.

그 돼지우리에 새끼돼지들을 넣던 날이었다.

산림반녀인들이 저저마다 돼지새끼를 안고 찾아 왔다.

《이게 다리는 짧아두 먹성은 좋대요. 본가집에 가서 한마리 채왔어요, 호호.》

《이놈은 자모종돼지 원종이래요. 이 주둥이를 좀 봐요. 코구멍이 평 뚫린게 우리 혁신경 같다니 까요.》

그 저녁 새끼돼지들이 와글거리는 우리에서 부부 는 떠날줄 몰랐다.

인철은 경옥이에게 물었다.

《경옥이, 행복한 부부란 어떤 사람들일가?》

《예? 그거야…》

경옥은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으나 대답이 나가 지 않았다.

비내리는 먼곳의 산봉우리를 보듯 료략만 안겨올 뿐 경옥은 신통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한해, 두해 심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던 봄철 이었다. 하루계획을 끝낸 인철이네 소대는 유쾌히 웃으며 산을 내리고있었다.

기분 좋게 한대씩 붙여문 그들이 산중턱에 다달았 을 때 어디선가 와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새된 녀 인의 비명소리를 가려듣고 멈춰섰다.

어떤 녀인이 비탈진 곳에 불뚝없이 쓰러져있 었다.

부리나케 그리로 달려가던 일행속에서 인철이가 고함을 질렀다.

《경옥이!》

황급히 안해를 그러안았다.

경옥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미안해요. 좀더 높이 매달아놓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괜히 나무가지만…》

경옥의 오른쪽발목은 벌써 퉁퉁 부어오르고있었 다. 그런데도 경옥은 부러진 나무가지를 거머잡고 무척 피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치에 휘뿌려진 나무패쪽들을 보고 소대원 들마저 눈들이 벌개졌다.

《산불금지!》, 《흡연금지!》라고 쓴 패쪽들이 었다.

바위들이며 눈에 잘 뜨이는 곳마다엔 그런 패쪽 들이 걸려있었다.

《누가 당신더러 이런 일까지 하라오? 여기에 산불이 어떻게 일겠소? 어떻게 가꾸는 산이라구, 응?》

인철이 격해서 부르짖으며 안해를 들쳐업었다.

남편의 등에 업히면서도 경옥은 모두가 듣기를 바라는듯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두 아차 실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어릴 땐 꽤 높은데까지 오르됐는데 이젠 안되겠어요.》

억대우같은 소대원들속에서 고개를 떨구고있던 소대원이 손에 쥐고있던 담배를 꺾어버렸다. 누구 는 담배불을 죽이고도 안심치 않는지 땅에 묻기까 지 했다.

모두들 주머니에서 담배갑들을 꺼내 구멍이에 던 저버렸다.

인철은 경옥을 업고 산을 천천히 내려갔다.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자!

— 공동구호에서 —

《경옥이, 아프지?》

《예, 아파요. 잔등이 얼마나 편안한지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철훈이 아버지에게 평생 업혀있으면 좋겠어요.》

인철은 별스레 목이 뜨끔하여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걸기만 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생 업혀있겠다는 소리를 다 할가 하는 생각에 코허리가 매워났다.

경옥은 업혀가면서도 계속 걱정을 쏟아놓았다.

《돼지물을 뚫어야겠는데 다리가 이팔이 됐으니 어쩔 줄 아요. 온실나무모들도 산에 옮길 때가 됐는데... 애들도 돌보고 당신 시중도 들어야겠는데...》

《걱정두... 내가 있지 않아. 설사 이제부터 철훈이 엄마를 평생 업고다닌다고 해도 난 힘들지 않아. 우린 생각두 마음두 꼭 같지. 그리구...》

인철은 오늘은 어찌된셈인지 청산류수같이 흘러나오던 그 유쾌한 말들이 다 달아난것이 놀라왔다.

팬히 눈곱이 달아오르고 안해가 없다면 하는 두려움마저 덜컥 들었다.

이제는 안해의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고 몸도 썩 체소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알알해났다.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남편으로서의 자각과 의무감을 생각케 했다.

그러나 다음날 경옥은 절뚝거리며 돼지물을 날랐고 온실에 부식토를 뿌렸다.

방안으로 떠미는 인철을 붙잡고 경옥은 절절히 말했다.

《난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리도 푸른 산, 푸른 들이라는 말을 자주 외워보셨다고 하신 원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나와 못 견디겠어요.》

인철은 경옥을 더 말릴수 없었다.

석탄생산에 바쁜 속에서도 인철이네 소대원들은 안해들을 도와 짬만 있으면 갓 심은 애 어린 이깔나무들을 혹 누가 났기라도 할가봐 그 나무들 밑에 돌을 가져다놓고 하얗게 회칠을 하기 시

작했다. 그 품이 간단치 않았다. 나무들을 수천 그루나 심다보니 회칠하는 일도 거의 한주일이나 걸렸다.

혁신갱 소대장이 산림감독원인지, 탄부인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말을 걸 때면 그는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탄부는 파낼줄도 알아야 하지만 물을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탄부야.》

인철이네 소대원들은 《돌산의 작은 집》이 이제 《푸른 산의 작은 집》이 됐다고 했다. 그 산에서 배여낸 첫 동발목들이 갯으로 들어갈 때 그 동발목들엔 산림반려인들의 이름들이 새겨져있었다....

×

수레를 끌어온 부부는 성수가 나서 돼지우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참 여보, 오늘이 얼룩이가 새끼낳는 날이 아니요?》

《그래요. 야, 못해두 한 열다섯마리는 낳아야 할텐데...》

인철은 판자에 못을 박다가 경옥의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욕심쟁이, 오십마리돼지가 좀 작소? 그거면 나무들에 널 거름이야 얼마든지 되겠는데두... 당신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니까.》

경옥은 곱게 눈을 흘겼다.

《당신은 뭐 아닌가요 뭐. 돼지를 한 백마리 더 늘구자요.》

인철은 탕탕 망치질을 하며 대꾸했다.

《그러니 우린 욕심쟁이 부부구만, 하하.》

경옥은 인철의 일손을 거들어주며 저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요. 아마도 행복한 부부란 욕심이 많은 부부인 것 같아요.》

달밝은 밤하늘가로 부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사는 세상

김 정 삼

우리네 조상들이
하루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고싶다고
그리고 소원해온 새 세상
그려보았어도
다는 그려볼수 없었던 행복의 별천지에서
나는 마흔세해의 세월을 살아왔다

월사금과 토스레웃이란 무엇인지
소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알며 자란 나의 세대
학대의 채찍아래 피를 토하며
원한품고 쓰러졌다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들어도 다 헤아릴길 없는 옛말과도 같았다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세상
한없이 파사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삶이 노래가 되고 춤가락으로 물결치는
이 꽃피는 인민의 락원에서
내 어느덧 한식술의 가장이 되었던만

오늘도 내 정녕 다 알고나있던가
유치원뜨락에서 고추잠자리 쫓던 그 아이를
손잡아이끌어 걸음걸음 이끌어
영광의 마루에로 받들어올린
로동당세상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주체사상탑이 바라보이는 대학창가여
창조의 희열 넘친 정든 일터여
소년궁전으로 귀여운 아들을 바래우며
안해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여
아, 피고피는 추억의 이 꽃송이
가슴벅찬 생의 이 모든 기쁨을
우리 당의 품속에서 내 맞이했어라

당이며 내 운명의 어머니이시여
그대의 자애로운 그 품이 아니라면
누가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을
그러히도 살뜰히 안아주고 돌봐주랴
진정 사랑에 젖은 그대의 손길 아니라면
그 누가 세기의 암흑 드리웠던 이 강토에
백화만발한 인민의 지상락원
이렇듯 눈부시게 펼쳐놓을수 있으랴

인민위해 혁명의 붉은기 추켜들고
그대 헤쳐온 험난한 로정이어

시련의 찬눈비 다 맞으며
로고의 천만밤을 다 지새우며
세워주고 지켜주는 인민의 집이어서
누리는 행복에 눈굽이 젖어
그대 손길 부여잡고 머리를 숙이노니

해빛안고 치솟는 선경의 새 거리들
설레는 능수버들 날으는 비둘기떼
대지우에 들어찬 오탁백과 향기여
무적의 철진을 두른 조국의 요새들이여
눈길 닿는 곳 그 어디나 들려오는
정에 넘친 당의 목소리 내 들노라
—이 모든것 그대 인민의것이로다!

그 옛날 설음났던 우리네 조상들이
오늘의 변천된 이 세상을 본다면...
기쁨의 열매 주렁지는 금수강산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땀땀 누리는 주인들이
지지리도 천대받고 멸시를 받던
백성의 후손들임을 알게 된다면...

아, 어버이대원수님들이 바쳐오신
이민위천의 그 거룩한 한평생
우리 원수님의 눈물겨운 그 헌신이
억년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행복의 지붕이 되어 온 세계에 빛나는 집
태양의 존함 빛나는 이 집이
인류가 부러워하는 우리 집 우리 세상!

백년을 살아도 다 알수 없는 그 은혜
천년을 살아도 다 알수 없는 그 귀중함
허나 단 하나의 진리를 나는 안다
넓으나넓은 이 행성에서
나의 락원은 로동당의 품!
잃으면 삶이 곧 막돌로 내던져질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나의 녀인 이 품에서
나를 떼어놓을 힘 그 어디도 없음을

내 이 심장의 붉은 피에 붓을 적서
저 구만리창공에 아로새기고싶구나
수억만마디 맹세를 다 대신하여
태양민족이 합창하는 영원한 웨침이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집집마다 가보라는것이 있을까? 없는 집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바로 우리 집이 가보가 없는 집들 중의 하나일것이다. 나는 오랜 나날 이렇게 생각하며 나이들어왔다.

나의 어머니는 가난한 총각이었던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구리가락지조차 받지 못하고 신희살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릇가지도 없어 쪽박에다 감자보리밥을 담아먹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해 아버지가 질병에 걸려 한밤중에 옷보통이와 남비 하나를 꾸져들고 온 가족이 찌그러진 초가마가리를 떠나 북만땅으로 피해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산설고 물선 이역땅에서 추운 겨울밤 이불대신 마대를 덮고 자야 했다.

이같이 조상대대로 가난에 찌든 집에 그 무슨 값나갈만 한 가보가 있었는가.

이렇다할 가보가 없는 집에 시집온 나의 안해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가보로 될만 한 물건이 없는 것을 은근히 서운해하는듯 했다.

그러던 지난해 어머니날이었다.

전쟁이 끝나갈무렵부터 우리 집 부엌에 놓여있는 커다란 늪버치를 안해가 정성스레 닦고있었다.

《여보, 오늘은 어머니들의 명절인데 하필 명절날에 땀흘려 그 늪버치를 닦는거요?》

나의 물음에 안해는 진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늘 우리 집이 가보가 없는 집이라고 섭섭해했지요?》

난 요즈음 이 늪버치를 보면서 생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시 추억하게 돼요.》

안해는 차근차근 얘기했으나 나는 첫 순간에 그 뜻을 다 헤아려들지 못하였다. 몇십년을 작가의 길동무로 살아온 안해는 자기판에 사물현상들을 분석하여 소박하게나마 시대적의미도 부여할줄을 알았다. 나는 안해의 말을 듣고나서야 60여년세월 너무도 범상한 물건으로 치부되어온 우리 집 늪버치의 매력을 더듬어보게 되었다.

1950년 9월 준엄한 세월이었다.

아버지는 팔공산전역에 있었고 어머니는 어린것들을 데리고 고성군 내무서(당시) 독신자합숙에서 일을 보았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어 적들이 코앞에 왔다. 어머니는 해방후 단란하고 이쁘게 꾸뻐던 살림이 넘치는 두칸짜리 기와집문을 활짝 열어놓고 입술을 깨물며 서있었다.

채봉침, 라지오, 축음기, 아버지의 애용품이던 기타... 크고작은 부엌세간이 짝 들어찬 부엌과 이

불장, 양복장... 이 모든것들과 결연코 헤어져야 했다.

순가락과 남비, 쌀 서너되박과 소금 몇줌, 이것이 압록강류역까지 가야 할 어머니의 이사집이었다. 어머니는 다가올 겨울을 예견하여 우리에게 입을수 있는껏 옷을 꺼입히었다.

동생을 업고 내 손을 잡고 보통이를 인 어머니는 김정코달이고무신을 신은 발로 수천리 북행길에 입술을 옥물고 나섰다.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던가.

하루 한두끼를 먹으며 밤새워 걸은 어머니는 발바닥이 부르트고 온몸이 휘청거렸다. 동생과 나는 배고파 칭얼대다 미국놈의 세군무기때문에 배탈을 만나고 열병까지 걸렸었다.

도간도간 군대차도 얻어타며 2천리길을 걸어 이른 고장이 생소한 의주군 선상리(당시)였다.

자그마한 어느 농가집 옷방에 들었다.

전재민구제위원회가 후방가족배급을 주고 주변주민들이 부엌세간들을 들고와 살림을 적으나마 안착시켜주었다.

어머니는 치마끈을 질끈 동이고 전선원호에 일떠섰다. 십리남짓이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철공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녔다. 주물한 보습과 수류탄본체에서 모래터는 일을 했다.

미제공중비적들의 빈번한 폭격과 기총사격을 당하며 10리길을 출퇴근하는 로정에서 어머니는 공중전과 아군의 대공포화에 얻어맞고 떨어진 무수한 놈들의 비행기잔해들을 보게 되었다.

저것들을 녹여서 인민군대의 작식도구를 만들면 어떨가. 어머니의 뇌리에 떠오른 생각이였다.

당원이었던 어머니는 당조직에 체의했다.

영예군인 세포위원장은 그야말로 어머니만이 할수 있는 착상이라며 지지해주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를 비롯한 전재민후방가족들은 파탄된 미제의 《공중우세》의 잔해들을 주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힘에 부친 커다란 비행기 날개며 동체에서 찢겨져나간 늪조박지들을 억척스레 이고 저날랐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것들을 로에다 녹여 그릇이며 밥통, 국통, 버치들을 부어내었다. 무릇 제품이란 자호가 있기마련인즉 철공소당 세포에서는 현상모집을 조직하였다.

어머니가 내놓은 《승리》가 당선되었다.

그때부터 《승리》표 그릇들이며 국통, 버치들이 화선식당들로 떠나갔다.

하루종일 불앞에서 《승리》를 부어낸 어머니는
어슬무렵에야 돌아오곤 했다. 우리에게 늦저녁을
해먹인 어머니는 그다음엔 또 아이들의 눈에서 잠
을 쫓으며 글을 배워주곤 하였다.

전승이 가까운 어느날 철공소에서는 후방가족어
머니들에게 커다란 《승리》표 뿔버치를 하나씩 상
으로 주었다.

전후에 어머니는 명절 전날이면 거기에 더운물
을 가득 담아가지고 애 어린 우리들을 때벗이시키
곤 했다.

나의 안해를 맡며느리로 맞던 날에 어머니는 말
씀하셨다.

《우리 집에 보기 드문 부엌세간이 하나 있다.
미체를 통채로 녹여서 만든거란다.》...

엄청난 시련을 다 이기며 전승에 이바지한 어머
니는 이제는 이 세상에 안계신다.

그러나 어머니가 남겨놓은 지난 세기의 유물인
뿔버치는 리성적인 사유를 끝맺하는 안해에 의하여
우리 집의 가보로 승격하였다.

가보—그것이 어찌 돈냥이나 나가는 귀중품이라

고만 하라.

준엄한 시련의 세월 추호도 굴함없이 조국을 떠
반들어 이긴 어머니들이 창조한 모든것들은 집집의
가보로 되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해는 어머니다운 눈으로 우리
집에 60여년세월 평범하게 묻혀있던 가보를 발굴
해낸셈이다.

그 뿔버치를 번쩍번쩍하게 닦아 부엌당반의 맨 옷
단에 올려놓은 안해는 자못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젠 이 물건도 부엌세간으로서의 사명이 끝났
어요. 이 버치는 우리 집의 귀한 가보예요.》

안해의 말에 나는 후두둑 뉘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었다.

우리 집에도 가보가 있었구나!

제국주의원흉 미체를 통채로 녹여 굳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어머니들의 위훈의 상징인 뿔버치가!

독자여, 집안의 곳곳을 둘러보라.

혹시 우리 집 가보보다 더 귀한 유물, 어머니들
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창조물들을 그냥 놓치고
있는것은 없는지.

나는 과학자의 안해예요 외 1편

한 동 선

새집에서 맞는

첫 3.8국제부녀절이에요

이밤따라 내 마음

왜 이리도 다감해지느것가요

소시적 동창생과 회포를 나누는 때
고마운 독자들이 수고로이 나를 찾아
독후감을 전하며 첫 통화를 하는 때
그런 때면 의례히 묻는 말이 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가고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하지요
남편은 과학자 나는 과학자의 안해이라고
대답하며 저도 몰래 가슴뿌듯해지는
이 마음은 소년런듯 자랑에 겨운걸요

정녕 알았던가요
늘쌍 한모습처럼
날 기다려 서성대며 책을 펼쳐든채
그만 날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맘에 들어
마침내 심장을 허락했던 처녀시절 그날에야
내 어떤 행운아와 한생의 인연 맺는것인지...

당신인들 알았던가요
첫사랑의 시절에도 묻어두었던 고백

한생토록 아껴둘 고백 아낌없이 터치며

중년에 이른 당신의 안해

과학자의 안해 된 행복 정성껏 시줄에 담게 될줄

알수 없었지요

이런 날 우리에게 꿈같이 찾아올줄
과학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
한평생 품어주신 수령님과 장군님
대원수님들의 못 잊을 그 믿음 다 함께 안으시고
우리 사는 과학지구엔 원수님 오실줄을...

어쩔 그리도 사려깊으실가요
과학탐구는 생ن길을 헤치는 초행길
과학자들을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시며
과학자의 안해들을 부러워하게 해주어야 한다시며
지난 한해만도 여러번이나 찾아주신 원수님

량친부모 열두번 다시 태어난대도
우리에게 못다줄 크나한 어버이사랑
그 사랑 거리거리 집집에 넘치고
그 손길 생활의 구석구석에 따뜻한
아, 이 은정과학지구엔 살아
과학자의 안해로 나는 참말 행복해요

원수님 아끼시는 보배이기에
더더욱 소중한 나의 길동무여
예나제나 당신은 수수한 보통사람이건만
원수님 안아올리신 과학자 그 이름은
시대의 머리우에 빛나지 않나요

조국이 크나큰 집이어서
당신이 그 집의 기둥되려 한다면
내 그 기둥을 떠받드는 주춧돌이 되겠어요
조국이 푸르른 거목이어서
당신이 그 나무의 억센 줄기 되려 한다면
내 그 줄기에 즙을 주는 밑거름이 될테예요

저는 부럼없는 과학자의 안해—
내 품은 소원은 다만 한가지
내 한생 어느때 어디선가 문득
원수님 뵈을날 있어
누군가고 다정히 물으실제
내 땃땃이
그리고 자랑스러이 말씀드릴수 있다면!...

—경애하는 원수님!
저는 원수님께서 아끼시는
과학자의 안해입니다

나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산다

내 사는 곳은 북방의 공업도시
철차출발시간까진 아직 세시간
총총히 바빴던 과학원출장의 마지막저녁
내 거니는 곳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씻은듯 닦은듯 티끌 한점 없는 이 거리에
나는 한날 길가던 나그네
불빛마저 따스한
저 어느 집에도 주인이 아니건만
어이하어 내 흠뻑 마음을 적시는가

세네칸, 다섯칸... 저 집집이
내 딸이 사는 곳도 아니건마는
절로 저절로 이끌려온 발걸음아
정녕 나는 다만 구경꾼이란 말인가
부러움앞서 고마움에 그득해지는 이 마음아

어느 현관 어느 집의 부름종을 눌러도
반가이 맞아줄줄 믿어지는 거리지만
깨치고싶지 않구나
경애하는 원수님 마련해주신
이네들 보급자리의 행복한 저녁시간
내게도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왜 이다지 기쁨에 겨우나
별천지마냥 황홀한 이 거리를
내 홀로 거닐음만도
아들네 딸네 령감로친네... 한꺼번에
세집이 새집들이했다며...
결혼한지 몇달만에 새집을 받았다며...
새집들이 경사날 눈물짓던 사람들과

오늘 밤도 그대들 잠 못들리라
지닌 행복 겨워서 너무나 겨워서
알아다오 창밖의 나그네도 감격에 젖는줄
뵈고싶어 온 나라가 기다리던 원수님
새집들이 앞두고 오시었던 못 잊을 사연

가슴이 뜨거워 내 여기 쉰줄

지금도 우리 원수님 이 거리에 계시는듯
원수님의 그 은정 어리여 아름다운
불빛은 위성원 희한한 체육공원...
어려와라 내 삼가 저거디디는 아스팔트우에
불빛속에 자갈돌 밟으며 다녀가신 발자국
현신의 새 전설 새겨가신 그 자욱자욱

내 조국엔 새 거리 새 마을 하많은데
예뵈이 아니던가
아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을 안고
위성으로 불리우며 솟아난 새 주택지구는
령장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위성처럼 솟구친 리상의 주택지구는

보내고싶구나 축하를! 인사를!
새날을 내다볼 저 창문과 창문들에
푸르러 아름다운 과학도시의 앞날에
과학으로 번영할 문명강국의 앞날에

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여
네우에 나의 꿈도 고이고이 없었으니
마치도 내 여기에 함께 사는듯
정답고 아름답고 마음 따뜻하여라

너는 과학자들이 사는 너는 다름아닌 우리의 거리
문명광대할 내 조국의 사랑이거니
떠오르라 인민의 기대를 안고
세계를 딛고 너 이름 떨치라

내 사는 곳은 북방의 공업도시
철차출발시간까진 아직 두시간...
나는 거닐고있다 온 나라에 뻗어갈 문명의 거리
우리 원수님리상의 아름다운 세계를...
아, 나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산다



오 광 천

1

무겁게 드리운 비구름을 북 찢으며 번개가 줄달음쳤다. 창백한 빛살이 구급차안으로 뛰어드는 것과 함께 천하를 깨는듯 한 우뢰소리가 강산을 뒤 흔들었다.

도산원 림병철초급당비서와 이정혁원장이며 의사들이 공포에 질린듯 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유리를 타고 비물이 짹짹 흘러내려 아무것도 내다보이지 않았다. 편 이를째 기세를 늦추지 않는 억수다. 원장이 킁킁하게 질린 얼굴을 푹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놈의 비가 사람을 잡자고 작정을 했군, 후-》

그들은 지금 북창군 통산리에 생긴 구급환자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예정일을 많이 앞당겨 진통이 온 임신부였는데 수술을 해야만 태아를 받아낼수 있다는 것이었다. 군병원 산과의사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고급한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어서 손을 못 댄채 도산원에 긴급요청을 해왔다. 산원에서는 연락을 받은 즉시로 유능한 의사들로 긴급의료진을 무어가지고 통산리를 향해 서둘러 떠났다. 시간을 지체하다가 산모도 태아도 다 잘못될수 있다. 그런데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차는 도중에서 멈춰서고말았다.

만약 우리가 못 가면 환자는 그리고 새 생명은...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이 서늘해져오는 만약이었다.

림병철초급당비서가 갱뿔한 얼굴에 진중한 빛을 띠우고 의사들을 둘러보았다.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의사들은 고개를 수긋한채 덩뎡히 앉아있었다.

여기를 예돌자면 수백여리요 산사태구간을 극복한다 해도 걸어서 백여리길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랐다. 날개가 있어 통산리까지 날아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원장이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통산발전소건설장에서 통산리까지는 강 하나 사이인데 거기 나가있는 한정호동무가 부인파전공이래도 이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할수 없으니...》

한정호란 이름이 나오자 병철은 찬물이라도 들쓴듯 가슴이 선뜩해왔다.

《...림상실천에서 실력을 다져 부인병치료에서 패권을 쥐자는 달콤한 말로 날 구슬려 산원에 데려가더니 이제는 다 파먹은 김치독이라고 날 발전소건설장으로 쫓아보냈지. 난 림병철당비서를 원망하오.》

언제인가 정호가 안해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구절이었다.

한정호, 의학대학 기초연구실에서 연구사로 있던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3년전의 일이었다.

그때 병철은 일하면서 의학대학 박사원을 다니고 있었다. 병철이 박사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니, 의학대학 산부인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니 산원초급당비서로는 나무랄데 없는 경력인데 꼭 최고의 실력을 소유해야만 하겠는가? 당사업이야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이지 기술지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향을 비치는 사람들에게 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의술로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 산원이 있고 이 당비서도 있는겁니다.》

병철이 산원초급당비서로 배치받아와서 제일먼저 포착한것은 산원의료진의 기술능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라는것이였다. 환자들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중하면 평양산원이나 중앙병원에 파송하기가 일쑤였다. 이런 실태는 부인파에서 더욱 농후하였다. 이것은 당의 의학정책을 받들어 최첨단의학기술을 지향하는 의사들의 자세가 아니였다. 바로 이런 편향을 바로잡자면 산원의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한편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 것처럼 특기의사를 많이 키워내야 하였다.

병철은 이 사업에 모를 박고 내미는 한편 자신부터가 다방면적인 의술을 소유하기 위해 박사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학파토론회에서 있던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병철은 자기의 소론문인 《무통해산에서 나서는 몇가지 기술적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여러 교원들과 학생들이 논리정연한 병철의 소론문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다. 이럴 때 토론회장 뒤전에서 한 젊은이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유순해보이는 눈매에 미소부터 담으며 말했다.

《무통해산은 발전된 몇 나라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난도높은 해산법입니다. 이 해산법을 받아들이면 산모들이 잠을 자면서도 아이를 낳을 정도로 진통과 해산시 아픔을 없앨수 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도 무통해산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빠른 시일내에 전국의 모든 녀성들이 무통해산법의 혜택을 입으며 아주 험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방금전에 발표한 소론문은 아주 적극적인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학생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니, 아예 등한시해버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이였다. 병철은 어정쩡한 눈길을 들어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나이는 30전후로 보였고 남달리 큰 눈매로 하여 유순하게 생각되었지만 눈빛만은 수술칼날처럼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젊은이였다. 병철은 영 낮이 설은 모습이여서 옆에 앉은 한학급동무에게 물어어린 눈길을 보냈다. 누구인가? 그도 모르겠다는듯 머리를 저었다. 이를 눈치챈듯 젊은이는 의학대학 기초연구소 연구사 한정호라고 자기 소개를 하며 말을 이었다.

《그럼 등한시한 문제는 무엇인가. 무통해산을 한 뒤에 오는 녀성들의 인체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무통해산은 쉽게 말해서 요부경막에 마취약을 주입하여 해산시의 동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요부경막, 즉 허리부엔 인체의 모든 신경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곳입니다. 지난 시기 선진적인 나라들의 무통해산을 보면 요부경막을 마취하여 해산은 쉽사리 하였지만 후파가 있는것이 문제였습니다. 허리나 다리아픔을 느끼는가 불임증, 뇌빈혈이 오고 지어는 하반신마비까지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약침의 요부경막침투에서 허실과 약물투입의 량적불균형 등인데 실수물은 지금에 와서 5프로정도입니다. 환자치료를 돈벌이의 공간으로 여기고있는 자본주의세계에서는 해산직후에 별다른것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관점에서 무통해산을 안전적담보가 없이 눈가림식으로 도입하지만 사회주의의학시책하에서는 단 1프로의 실수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무통해산에 대한 연구는 그 방법상의 대중화보다도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정호가 말을 마치자 손이 깨져라 박수를 쳤다.

병철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끼며 땀이 질벅하게 내배인 이마를 문질렀다. 정말 쥐굴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병철은 정호를 따라가 만났다. 《여보 정호동무, 사람을 그렇게 빠질 구멍없이 몰아대니 좀 너무하구만.》

정호는 히끗이 웃었다.

《과학적론리앞에서는 경우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쳤으면 리해해주십시오.》

병철은 후더분한 미소를 지었다.

《리해할뿐아니라 완전히 공감했소. 그래 산파를 전공했소?》

《아닙니다. 림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부인병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고있습니다.》

병철의 눈이 사뭇 빛났다.

《부인병이란 말이지. 그런데 연구소에만 불박혀있어 무얼하겠소? 실천에서 굴러야지. 산원에 가고싶은 생각은 없소?》

《가고싶긴 한데 산원당비서동지를 납작하게 만든 내가 산원에 가면 그 압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병철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동무, 내가 산원비서란것을 뻔히 알면서도 궁지에 몰아넣었구만. 정말 고약한 사람이요, 허허...》

병철은 논리정연하면서도 정의감이 강한 그의 기질에 내심 감탄하면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껄껄 웃었다.

《피짜야. 좋아, 우리 산원에 올 생각만 있다면 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데려오겠소. 와서 체구실

을 못하면 이 당비서의 압력을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지.》

부인과의사로 조동되어온 정호는 인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복막염이나 자궁종양수술에서 그는 산원의료진의 권위자들에 못지 않은 실력을 나타내었다. 병철은 내심 진주와도 같은 보배를 찾아 데려왔다고 자부했다.

허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 자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한정호가 여러번의 어려운 수술을 손색없이 해내고 부인과의 총아로 떠받들리게 되자 그에게서 점점 자기만 제일인듯 생각하는 교만기가 저글거리는 책상에서 솟아오르는 못처럼 점점 두드러져올랐던것이다.

림병철은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삼는 좌우명이 있었다.

사람이 앞날에 대한 자신심은 가지되 자만은 하지 말라. 자만심이 생겼다면 단호히 창박으로 버리라. 자만심을 싹틔워 자래우면 교만해지고 나중엔 인간적본래를 잃고만다.

그럼 한정호의 자만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은 병철이 정호를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느 일요일 저녁시간이었다. 입원실복도를 지나던 병철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어느 한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침대우에서 배를 그러쥐고앉은 한 여인이 아픔을 참느라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그는 임신 7개월만에 타박으로 류산하여 어제 밤 실려온 환자였다. 갓 입직한 간호원이 환자의 잔등을 쓸어주며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어찌된 일지요?》

병철이 간호원에게 물었다.

《저... 의사선생님은 류산뒤끝에 오는 약간한 동통이여서 몸조림 잘하면 별일이 없을거라고 했는데 점점 아픔이 심해갑니다.》

당황해선지 연지불이 붉게 상기된 간호원이 금시울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담당의사는 어디 갔소?》

이 호실담당의사는 한정호였다.

《오늘 휴식일이여서 동창생들이 모여있는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구? 중환자를 두고 놀음놀이를 하러 간단말이요?》

간호원은 제 잘못이라든가 되는듯 깊숙이 머리를 숙이였다. 병철은 그런 간호원을 비켜세우며 환자에게 다가갔다.

《내가 좀 봅시다.》

한참 환자의 호소를 들으며 진단을 하고난 병철은 인상이 툭툭해서 몸을 일으켰다.

《빨리 가서 기술부원장선생을 데려오시오. 그리고 정호동무네 집에 연락하여 그도 불러들이오.》

환자는 타박으로 인한 류산후 치료를 잘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급성복막염으로 넘어간것이였다. 잠시라도 늦게 발견하였으면 생명까지 잃을 위험한 상태였다. 즉시로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무려 세시간씩이나 지속되였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정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의사모임에서 정호의 무책임적인 행동에 대하여 맏짜게 비판되였다.

머리를 수긋한채 묵묵히 앉아있던 정호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몸을 일으켰다. 쳐들려진 그의 눈가엔 자책보다도 비판자들에 대한 질시감이 더 깃들어있었다.

《물론 오진을 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만치 실수도 있을수 있고 사적용무도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계처럼 편차없이 사고하고 생활하겠습니까. 이젠 뭐 결함을 범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몰아대니...》

의사들은 정호의 도전적인 태도에 격분하여 저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사람이 잘한다고 취주니까 교만해졌다. 환자를 죽일번 하고도 무슨 변명인가. 단순한 자기 파신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변질이 있다. 이 동무는 말로 해서는 안된다. 의사로서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 산원에서 내보내야 한다.

병철은 창문쪽에 눈길을 준채 도고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정호를 점도록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총명한 사람일반의 자고자대이며 파신적인 자존심인가. 아니, 인간을,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데로부터 생긴 사상적인 독소이다. 의사의 본분은 무엇인가?

의사들의 비판이 끝나기를 기다려 병철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병원들에서 제일 많이 보고 듣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가. 정성이란 두글자입니다. 바로 선생들의 가슴에 단 인사표에도 정성이란 단어가 새겨져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항상 심장에 안고살아야 할 지침이며 사업원칙인 정성, 이는 사랑이며 헌신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헌신이란 말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떠난 의술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간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사고의 기본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동지들의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며 비판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상급당에 제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짱 파르릉...

그때도 바로 오늘처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을씨년스런 날이였다. 룡산발전소건설돌격대

의 파견장을 받아온 정호가 대줄기같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병원정문을 나서고있었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병철의 가슴은 고추가루라도 뿌린듯 얼얼해났다. 그는 입술을 억문채 눈을 지그시 감았다.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워대던 리정혁원장이 푸념조로 말했다.

《꼭 정호동무를 보내야겠습니까. 발전소군의보장으로야 판 사람을 보낼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껴줘야 할 인재인데...》

병철은 머리를 저었다.

《아껴주고 지켜주고싶어서 보내는것입니다.》

도고한 걸음으로 산원을 나선 다음 지난 2년간 정호는 한번도 병원에 발길을 안했다. 전화도 편지도 없었다. 병철이 몇번 통산발전소건설장에 찾아갔었지만 그는 시종 뻔뻔한 자세였다. 정호의 안부는 돌격대정치부와 정성약국 판매원으로 있는 그의 안해를 통하여 병철은 알고있었다. 현재 그는 아주 일을 잘하고있다고 한다...

구급차의자동반이여 몸을 기대인채 잠시간 한정호에 대해서 생각을 더듬어보던 병철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정호가 이 정황을 안다면 수술에 나서줄것인가.)

병철은 머리를 저었다. 정호에게 연락도 할수 없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부질없는 생각이였다. 그는 원장을 돌아보았다.

《난판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걱정이나 하고있을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합니다. 우선 개천쪽으로 차를 돌려 순간이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맙시다. 그리고 원장선생은 환자가 있는 곳에 편계를 취하여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의 치료를 지휘해주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회로로 머리를 돌린 차가 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원장이 손전화기로 현지와 연결했다.

《...정호동무요? 산원원장이요.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우회하는중인데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주요... 우는소리 작작하오. 동무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라고 국가밥을 공손히 타먹겠지? 우린 뭐 속상하지 않은줄 아오?》

병철이 원장에게 주의를 주었다.

《원장선생,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늦추고 침착해야 합니다.》

원장은 입을 다시며 억양을 낮추어 환자의 상태를 묻고는 치료대책을 강구해주었다. 전화를 끝내고난 원장의 얼굴이 산화된 청동상처럼 퍽퍽하게 질렸다.

《탈수가 시작되었다는군요.》

의사들이 덤덤한 자세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원장의 손전화기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산원원장입니다... 가만, 누구라구?... 뭐? 한동무! 지금 어디에 있소?》

전화를 받던 원장이 몸까지 들썩이며 환성을 올렸다.

《비서동지, 한정호동무입니다. 환자치료를 자기에 맡겨달랍니다. 지금 통산리로 가자고 강기슭에 나와있답니다.》

《뭐라구? 한정호가... 저에게...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성급히 손전화기를 받아든 병철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정호동무요? 나 당비서입니다... 여보시오.》

손전화기에서는 사품쳐내리는 강물소리만이 들리였다. 잠시 침묵을 지키는듯 하던 정호가 석싹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병철은 손전화기에 정호의 모습이 새겨지길라도 한듯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틀이 없는 그의 어조를 대하러니 금시에 서운해났다. 옥생각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가. 병철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물었다.

《정호동무, 자신이 있소?》

《믿어준다면 해보겠습니다.》

《고맙소. 정호동무만 믿겠소.》

그런데 돌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통화에 뛰어 들었다.

《안됩니다. 사람을 죽이자고 그러니까? 장마비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바위도 막 떠내려가는 판입니다. 이통에 사람이 건너가다니... 안될 소리입니다!》

《뭐라구? 정호동무, 모험을 해서는 안되오.》

《일없습니다. 돌격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무인데 괜히 아부재기를 합니다. 이앞에 줄다리가 있는데... 물론 발판들은 다 떠내려갔지만 쇠바줄만은 든든합니다. 그걸 잡고가면 얼마든지 건너갈수 있습니다.》

《그 쇠바줄마저 물에 다 잠긴 판인데 만약 놓치길라도 하면 안되오.》

병철은 돌격대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움을 느끼었다.

《정호동무, 안되겠소. 어디 돌아가는 길이라도...》

《비서동지, 이미전에 비서동지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헌신이라고. 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애돌 길이 있겠습니까. 또 주저하면 헌신이 아니지요. 걱정놓으십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지 않습니까.》

불시에 눈썹리가 후더위움을 느끼며 병철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주의해야 해. 우리도 빨리 가겠소.》

손전화기를 돌려주며 병철은 운전사에게 재촉했다.
《빨리, 가능한것 빨리 달려주소.》

2

거세게 내리치는 비발을 뚫고 구급차는 달리고있었다. 병철은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산사태구간을 떠나서부터는 어쨌선지 손전화도 되지 않았다. 아마 폭우가 중계소마저 먹어치운듯 했다. 그러니 현지와 이어졌던 한가닥의 련계마저도 차단되어버린것이다.

지금 환자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정호가 그곳에 도착했을가. 혹시 그에게 무슨 불상사라도 생겼다면...

조바심이 자꾸만 머리를 쳐들었다. 갑자기 차가 침묵은 말처럼 한길이나 경충 뛰어들었다. 아마 큰 돌을 타고넘은듯 했다. 그 서술에 머리를 짓쪼은 리정혁원장이 코아래로 굴러내린 안경을 추스리며 골을 냈다.

《이거 차가 길로 가는거요, 산으로 가는거요.》

운전사가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긴 그를 타할것도 못되었다. 앞창을 타고내리는 비물이 내물갈아서 운전사는 거의 눈뜬 소경으로 차를 몰고있었다. 이럴 때엔 시창닫개도 무용지물이였다. 그런 판에 좋고 나쁜 길 가려서 발 디딜처지가 됐는가.

원장은 제속 편잡아 남에게 역증낸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어조를 낮추어 말을 했다.

《동무보고 그런건 아니니 차나 잘 모오. 아직 어느만큼 더 가야 하오?》

《이젠 다 왔습시다. 저기가 룡산리일겁니다.》

《어, 그렇소.》

원장이 무엇인가 찾아볼듯 차창바투 눈을 가져갔지만 보이는것은 천지간에 자욱한 비발뿐이였다.

《환자가 어찌되였는지...》

정작 목적지에 당도하니 그것대로 또 걱정인듯 했다.

관리위원회에 먼저 들렸던 구급차는 회계장의 안내를 받으며 4반으로 향했다.

《환자가 어찌된것 같습니까?》

차가 떠나자바람으로 병철이 물었다.

《글쎄 아까 돌격대에서 의사 한명이 도착했다는 련락이 오고는 중무소식입니다. 아마 전화선이 끊어진것 같습니다. 리당비서동지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병철의 얼굴에 반가움이 확 피어들었다.

《그러니 정호동무가 도착했군요. 그럼 일이 잘

되였을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돌격대의사가 산과의사들도 힘들어하는걸 꽤 해내기나 했겠는지. 하여간 그 의사란 사람이 영웅은 영웅입니다. 글쎄 저 사품치는 강을 건너왔으니... 정말 인민제일의 의학시책이 꽃피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

의사들은 와와 소리를 치며 무섭게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며 나름의 생각에 잠겼다. 무슨 힘이 정호를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저 강으로 떠밀었을까. 나라면 환자를 위해서 사품치는 저 강에 서슴없이 뛰어들었을까.

《확실히 불같은 사람이야.》

원장이 혼자소리처럼 말하며 병철을 흘깃 건너보았다. 그의 눈길에 그 어떤 질시감이 배여있는듯 했다.

...한정호는 바로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비서동문 그를 돌격대에 내려보내지 않았소. 혹시 개인적인 그 어떤 불만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원장의 속대사가 이러한듯 하였다.

혹시 내가 그에게 개인적인 불만이라도 있지 않은가.

문득 수년전 불만기가 다분하여 하던 안해의 말이 생각났다.

《여보, 부인파에 새로 온 젊은 의사 말이예요, 한정호라던지. 광명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해서(산후증상이 좀 나쁘더군요.) 부인파에 데려갔는데 그 의사가 순서를 지키라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간호원이 당비서의 아주머니라고 알려주는데도 하는 말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요. 무상치료하에서는 특세가 있을수 없소.> 하더군요. 어쩐지 제 잘난척 하는 사람같아요.》

《정호동무가 옳게 말했지. 산원당비서의 안해라면 물론 병원질서를 제일 잘 지켜야 하는거요.》

병철은 시간이 없어 안해와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출근하였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일이 벌여졌다. 모임시간에 기술부원장은 기능향상을 위한 자체학습정형을 검열하였다. 그런데 의사들이 거의다 자체학습을 실속있게 하였는데 유독 한정호만이 장 절제목에 기본내용만 대충 써가지고 왔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한것이 분명했다. 부원장은 그의 불성실한 학습태도에 대해서 엄하게 지적했다. 그런데 정호가 반박을 하는것이였다.

《전 그 참고서를 뜬금으로 외울수 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임장 뒤전에 서있던 병철은 으시대는듯 한 정호의 말투에 못내 기분이 거슬렸다. 물론 그가 총명하며 나이는 어려도 병원적으로 실력자임이 분명하지만 그의 자기 과신적인 소충명이 자라면서 조직

과 집단도 안중에 없는 무규률적인 정신이 자라며 그로 해서 대중에게 주는 영향 또한 나쁠 것이었다.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일이다.

병철은 앞막에 나서며 엄하게 말했다.

《낯은 문서장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기 모인 선생님들 중에서 이 참고서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줄 아오? 사람은 아는 내용도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실천에 유용하게 써먹는단 말이요. 난 정호동무가 너무 자기 우월감에 떠있다고 생각하오.》

정호의 얼굴이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이거 뭐 복수하는 겁니까?》

《그건 무슨 생똥같은 소리요?》

《어제 병을 보러온 비서동지 아주머니에게 친절하지 못하였다고 그러겠지요. 우리 병원에서 안면이 통할 수 있습니까?》

병철은 한순간에 당황해지는 자신을 느끼었다.

(어제 일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한정호, 너무 편협하구나.)

병철은 억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정호를 노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기만 했다.

기술부원장이 머리를 기웃하며 담담간호원에게 무엇인가를 묻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호동무, 우리 병원에서 안면은 있을 수 없지만 우선봉사는 있단 말이요. 동무 당비서동지 아주머니와 함께 왔던 녀성을 보았겠지. 그가 누구인 줄 아오? 송현동에 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안해인 김 옥련녀성이란 말이요. 비서동지와 아주머니는 그들 부부에게 자식을 안겨주자고 수년간 정성을 기울여 작년에 옥동자를 보게 했단 말이요. 아마 옥련동무의 산후증상이 나빠서 비서동지의 아주머니가 데리고 왔었을거요.》

놀라움으로 정호의 눈이 등잔만 해졌다. 그는 머리를 수긋한채 묵묵히 앉아있는 병철을 건너보고는 머리를 떨거리버리고 말았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병철은 랭정하게 자신을 따져보았다.

정말 내가 사업에서 감정을 섞었는가. 그 어떤 개인적인 불만에 바탕을 두고 정호를 처벌한 것은 아닌지.

병철은 도리머리를 하였다.

결코 부드러운 손길만이 아픔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아픈 침이 인체에 스민 종신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디 정호에 한한 문제에서 감정이 있었다면 그를 훌륭한 특기기사로 키우고 싶은 것이 병철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돌격대에 내려보냈 것이 아니라. 병철은 자신의 이 마음을 지금은 정호가 물리해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꼭 헤아릴 것이라고 믿었다.

병철이 이런 생각을 하는 새 문득 차가 멈춰서며 주르릉 문이 열렸다.

《저기 보이는 첫 집입니다.》

회계장이 나지막한 언덕에 들어앉은 문화주택을 가리켜보이자 원장이 먼저 성큼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달렸다. 치료기재를 든 의사들과 병철이 그뒤를 따랐다. 바깥으로 퍼부어대는 듯 한 비가 한순간에 온몸을 적시었지만 누구 하나 우산을 펴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의 생각은 오직 환자에게만 가있었던 것이다.

병철이 원장과 함께 환자가 있는 집마당에 들어서니 토방에서 남정들 서넛이 서성대며 겨끔내기로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원장이 처마 밑에 뛰어들며 다우쳐물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사람이 문쪽에 대고 눈짓을 했다.

그러고보니 방안에서는 자지러진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오고 있었다.

《산모는요?》

《돌격대에서 온 의사선생이 수술을 잘 해주어서 산모도 애도 다 무사하지요.》

그제서야 원장은 얼굴에 웃음을 피우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병철은 아래다리를 풀썩 꺾으며 토방에 주저앉았다. 나이지숙한 로인이 병철의 손을 잡아쥐었다.

《세월이 좋아서 우리 며느리가 살고 내 손주녀석도 고고성을 터친거우다. 고맙습니다. 장군님이 고맙고 내 나라가 고맙고 의사선생들이 고맙고... 글썄 돌격대 의사선생은 우리 손자녀석을 무사히 받아주고서는 밥도 한술 들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강을 건너며 다쳤는지 다리를 절던데... 정말 사랑이 짝 들어배긴 참사람입니다.》

《예? 정호동무가 떠나갔다고요? 어째서요?》

병철은 놀라와서 물었다.

《예, 돌격대에도 환자가 있단나요. 우리 리당비서가 졸전에 차에 태워서 모셔갔지요.》

《그렇게 되었군요.》

병철은 마음이 후더위를 느끼며 머리를 끄덕였다. 어쩐지 전과 달라진 정호의 체취를 느끼려니 가슴이 뿌듯해왔다.

한동안이 지나서 원장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온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담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확실히 정호동무는 나무랄데 없는 인재입니다. 어려운 수술을 아무 손색이 없이 해제끼었습니다. 허...》

《그렇습니까. 정호동무의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병철은 반가운김에 자기도 담배를 한대 청했다. 원장이 담배를 꺼내주며 말을 이었다.

《돌격대에 가있는 기간 그의 의술은 더더욱 세련되었더군요. 정호동무가 결함을 깨닫고 분발한 것 같습니다.》

병철은 비발이 좀 성기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 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여기에 오면 정호동무를 만날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비서동지, 여기까지 온김에 발전소건설장에 들려오십시오. 정호동무에게 힘도 줄겸 말입니다.》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오늘 저녁 환자상태를 더 관찰해보고서 래일 아침 건설장에 들려가겠으니 원장선생은 먼저 떠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이른아침 병철은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한정호가 어려운 수술을 손색없이 해냈기에 산모와 애의 상태는 아주 좋았다. 돌격대에 들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산모가족들이 무엇인가 한구레미 들려주었다. 정호에게 가져다주라는것이였다. 병철은 사양했다.

《당의 인민사랑에는 대가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들이구요. 그러니 정호동무가 이걸 받을수 있겠습니까?》

산모의 어머니가 한참 병철을 바라보다가 핑그르 눈물을 지었다.

《어쩌면 의사들은 한사람 같을가. 어제 돌격대의사선생도 그렇게 말했지요.》

병철은 마음이 파스해움을 느끼며 녀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우리 산원의사들은 산모가 건강하고 갓난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그러니 딸을 잘 돌보아주십시오. 그래야 손주가 튼튼히 자라고 정호동무에게도 의사의 보람을 맛보게 할수 있는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제 그 의사선생에게 못다한 인사를 하고싶어서라도 발전소건설장에 지원을 가겠어요. 그제 나라의 덕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병철은 산모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서 발전소건설장쪽으로 가는 차편에 몸을 실었다. 폭우를 쏟아내고 청신해진 대기가 차창으로 쏟아들며 온몸을 선선하게 하여주었으나 병철의 가슴은 마냥 후터워오기만 하였다. 당의 의학시책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태우는 우리 인민들, 그러고보면 우리 의사들은 당의 인민사랑을 사람들의 가슴에 속속 안겨주는 전달자인 동시에 당과 인민을 혈연적으로 굳건하게 이어주는 뉴대이기도 한것이다. 바로 그속에 한정호도 당당하게 서있다고 생각하니 자연 가슴은 후터워왔다. 그를 어서빨리 만나보고싶은 심정이 폭우에 깊이 패인

토사길을 달리는 차와 함께 마냥 들먹였다.

3

룡산발전소건설 현장지휘부에 들어서며 병철은 무엇인가 이상한 감촉을 느끼였다. 마당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의 낮빛이 어딘가 어두웠고 초조해하는 듯 했기때문이었다.

《정치부장동지가 있습니까?》

병철은 직일판에게 물었다.

《지금 참모장방에서 열리는 긴급협의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직일판은 미심쩍은 눈으로 병철의 아래우를 훑어보다가 지성미가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서 친근감을 느끼였는지 설명을 했다.

《그젠가 양덕군대대 영철동무가 원인모를 신병을 앓아 군의소에 입원했었지요. 헌데 오늘 아침부터 급작스럽게 병이 악화됐습니다. 아마 영철동무를 담당했던 정호군의동무에게 책임추궁을 하는가봅니다. 그 정호동무는 어제 룡산리에 산모를 구원하자고 저 사품치는 강을 건너갔다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 물속에 잠긴 쇠바줄을 잡고 건너갔었지요. 그때 무섭게 떠내려오는 나무그루터기에 맞아 다리에 부상까지 당하였습니다.》

직일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병철은 가슴이 철렁하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직일판의 손을 잡으며 머리를 저었다.

《정호동무의 책임이라니... 그럴수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생겼을겁니다.》

《우리 정호군의동무를 아십니까?》

《제 산원 당비서입니다.》

직일판의 낮빛이 확 밝아졌다. 그는 되려 병철의 손을 잡아흔들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군의동무의 잘못이 될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 돌격대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바친 정성을 말한다면 저 하늘도 울릴겁니다. 그는 남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산원집단에서 그를 이처럼 훌륭히 키워 세웠지요. 그런 사람에게 죄를 묻다니... 안될 소리입니다. 비서동지, 마침입니다. 우린 의학에 대해서는 터럭만큼도 모르니 이렇게 병어리 령가슴앓듯 하는데 비서동지가 들어가서 우리의 심정을 좀 말해주십시오.》

병철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며 저도 모르는 충동에 이끌려 참모장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람들은 랑수책상을 가운데 놓고 의자에 앉지도 않은채 열을 올려 논쟁을 하고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시에 병철에게로 쏠렸다.

《동진 누구십니까?》

한사람이 어지간하게 날카로와진 눈길을 병철에게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미 안면이 있는 돌격대 정치부장이 반색을 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동무들, 이분은 우리 정호동무의 초급당비서동지입니다.》

병철은 놀라와선지 병병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정호에게 눈웃음을 지어보이며 정치부장의 옆에 다가갔다. 그러며 귀속말로 물었다.

《우리 정호동무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정호동무가 담당했던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는데 급성취장염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겠는데 후송하는가 여기서 하겠는가를 론하고있는중입니다. 비서동지가 때맞춰 오셨습니다.》

《그러니 정호동무에게 책임을 따지는것은 아니군요.》

그것만으로도 안도의 숨이 나갔다. 하지만 점점론의가 분분해지며 감정들이 날카로와지는 회의흐름을 지켜보느라니 자연 마음은 긴장되었다.

《글쎄 정호동무의 의술이 높다는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산부인과계통을 전공한 정호동무가 불비한 돌격대군의소 의료시설을 가지고 이 수술을 꽤 해낼수 있겠는지. 누구를 파소평가해서 그러는건 아니고 만약 단 한번의 실수라도 있다면 후과는... 전 그래서 이제라도 영철동무를 큰 병원으로 후송하든가 아니면 유능한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격대 참모장의 발언을 긍정해선지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였다.

한정호가 병철을 얼핏 바라보고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글쎄 제가 이런 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현증상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우로 기본도로가 막힌 조건에서 길을 에둘자면 후송하기에도, 의료진을 부르기에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결론은 누구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수술칼을 잡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철동무를 두번다시 볼수 없을겁니다.》

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정호의 마지막말마디엔 철알파도 같은 무게가 느껴져 사람들은 몸을 흠칫 떨었다. 그리고 심각해져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동안이 흐른 뒤 돌격대 정치부장이 병철에게 물었다.

《비서동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호동무의 의술에 앞서 그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높이 사고 또 믿고싶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을겁니다. 제가 수술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동무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철은 선언조로 말하며 정호에게 다가가 손을 짹 잡았다. 그의 눈주위가 불깃해졌다.

돌격대 정치부장도 정호의 어깨를 척 껴안았다.

《우리도 정호동무를 믿습니다. 책임은 우리 돌격대원모두가 질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승엄한 빛이 감돌았다.

수술전투가 벌어졌다. 그렇다, 전투였다. 환자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결전인 동시에 수술칼을 잡은 한 인간의 재능과 의지를 시험하는 전투장이었다. 발전소건설장 돌격대원들모두가 손에 땀을 전채 초조해서 수술이 잘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정호는 찬찬하게 수술칼을 놀렸다. 그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수술보조를 맡은 병철은 수건으로 정호의 이마를 훔쳐주었다. 정호는 병철에게 시뭇이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연방 지시를 내렸다.

《핀셋, 집게, 칼...》

이럴 때 환자의 복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정맥을 잘못 다친듯 했다. 수술도구를 든 정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병철은 그의 팔을 짹 잡아주었다.

《침착하라구.》

정호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서는 지혈을 시키며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수혈준비!》

간호원이 울상해서 말했다.

《혈장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구?》

얼굴색이 컴컴하게 질린 정호가 눈섭을 푸들푸들 떨었다.

《환자의 피형이 A지. 내 피를 어서 뿡소.》

정호가 팔을 걷어올렸다. 병철이 그의 팔을 밀막았다.

《수술칼을 든 사람이 이게 뭐가. 간호원동무, 내 피는 O형이요. 내 피를 뿡소.》

수술립회를 서던 돌격대 정치부장이 황급하게 만류했다.

《비서동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영철동무를 위해서는 피가 아니라 목숨이라도 바칠 동지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지금 환자에게는 한초가 급합니다. 그리고... 저야 정호동무의 당비서가 아닙니까.》

정호가 도리머리를 하였다. 병철이 눈을 부라렸다.

《의사들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 당비서는 바로 그 의사들을 위해서 필요한거요. 뭘 주저하는가!》

불을 뿜어내는듯 한 눈빛이 이렇게 말하고있었

다. 정호의 눈가에 맑은것이 핑그르 돌았다. 그는 고개를 틀었다.

《간호원, 필하는가. 수혈을...》

그는 헉 숨을 튼으며 어깨를 떨었다.

...

수술이 끝났다.

《맥박, 혈압 모두 정상입니다.》

간호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영철동무가 살수 있다는거겠소?》

돌격대 정치부장이 다우쳐물었다. 정호는 머리를 고덕였다. 정치부장이 장판지를 철썩 갈겼다.

《그럼 그렇겠지. 정호동무, 비서동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군의소마당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정호는 기척없이 누워있는 환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병철에게 돌아섰다.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하고는 휘청휘청의 무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병철은 그에게 무엇인가 고무적인 말을 하고싶었지만 긴장이 풀리는것과 함께 속이 메스하며 빈혈이 와서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아버렸다. 꿈속인듯 눈앞이 몽롱해지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왔다.

(내가 쓰러지면 안되겠는데. 가만, 정호의 몸상태가 말이 아닌것 같애.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해쓱하던데.)

《비서동지, 몸이 불편하면 침실에 가서 좀 누우십시오.》

병철은 눈을 떴다. 간호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병철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난 일없소. 가만, 정치부장동무를 만나봐야겠소.》

병철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옮겨 밖으로 나갔다. 돌격대원들이 그를 예워쌌다. 그들의 눈가에 경건한 빛이 흘렀다.

《비서동지, 우리 영철동무를 위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답례를 하고싶었다. 하지만 이마에서 식은땀만이 흐를뿐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럴 때 누군가 성급하게 달려오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쳤다.

《정치부장동지, 야단났습니다. 정호동무가 의무실바닥에 쓰러졌는데 죽은 사람처럼 아예 기척이 없습니다.》

《뭐라구?》

깜짝 놀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병철은 앞선 사람들을 헤집고 의무실안에 들어섰다. 정호가 맨바닥에 엎어진채 아무리 흔들어도 대척이 없었다. 누군가 벌써 훌쩍거리며 허겁을 떨었다.

《내가 좀 봅시다.》

병철은 먼저 눈을 헤집어보고 다음 손맥을 짚었다. 잠시 이려고있던 그는 정호를 덩석 들어안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비겼다.

《동무들, 걱정놓으십시오. 정호동무는 굳잠에 들었습니다.》

긴장으로 속이 한줌만 해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헛참, 그 사람 이 무더운 여름날에 겨울잠 들었는가?》

4

한밤이 새고 새날이 밝았지만 정호는 깨여날줄을 몰랐다. 병철은 살이 푹 깎이여 초췌해보이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손에 들린 편지 봉투를 개봉했다.

《도산원 림병철초급당비서동지 앞. 한정호 올림.》

정호의 침실에서 발견한 편지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떠난 의술이란 있을수 없다. 현장에서 인민을 알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배우라.》

돌격대로 떠나보내며 한 비서동지의 당부를 그때 저는 한갓 미사려구로, 일종의 처세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인민이며 의학 그자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여기에 무엇이 모를것이 있으며 배울건 또 무엇인가, 내가 미우니 얼토당토한 죄를 씌워 쫓아보낸거지.

그러나 돌격대원들과 함께 이 거창한 언제를 한 치한치 올리며 저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저도 모르게 찾아들어 키 자라는것을 느끼었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동지들에 대한 류다른 정이였습니다. 물질이 잡힌 손이나 발에 딱총을 놓고 봉대를 감아주며 자기는 배고픔을 이겨내느라 혁피를 조이면서도 나에게 밥을 몽청 던여주는 동지들.

그들이 이전에는 내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대하던 바로 인민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눈으로 보는 인민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서 이 땅에 강성부흥을 안아오는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가 인민이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붉은기를 휘날리는 강의한 의지가 바로 그 인민의 심장속에서 맥박치고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어째서 위대하며 그처럼 강한가.

저는 새로운 눈으로 동지들을 보게 되었고 뜨거운 감정으로 그들의 치료에 전심하였습니다. 당에

서 금싸래기처럼 아끼는 그들을 언제나 건강하게 내세울수 없겠는가.

사색하고 탐구하고 헌신하고...

이런 과정에 자연 저의 의술은 더더욱 발전하고 세련되어가는것이였습니다. 자신의 이 성장을 느끼며 저는 고운 자식의 허물을 매로 벗겨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를 돌격대로 떠밀어준 비서동지를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여기를 찾아주는 비서동지를 멀리한것은 그 무슨 고까운 감정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을 사랑할수 있는가. 목숨을 내대고라도 인민위해 헌신할수 있는가.

이 물음에 뿔뿔이 대답할수 있을 때 비서동지앞에 나서자고 결심했기때문입니다.

오늘 정치부장동지가 당위원회에서 저의 입당청원서를 보았다고, 일을 더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울렁이면서 비서동지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입당보증을 비서동지에게서 받고싶습니다...》

편지를 내린 병철은 친근한 눈길로 정호를 바라보았다. 두해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그를 대하려니 못내 대견해지고 가슴이 뿌듯해왔다. 그는 저도 모르는 충동에서 정호를 꼭 그러안았다. 이럴

때 손전화착신음이 울려왔다. 산원원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비서동지, 정호동무가 깨어났습니까?》

《아직 삼라만상을 다 편답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 친구 늘씬하게 자보려고 작정을 단단히 했군. 하긴 요 며칠새 피곤이 극도로 몰렸겠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비서동지, 그럼 오늘 오후에 계획했던 의사, 간호원들의 실무판정은 저 혼자서 집행하겠으니 정호동무가 깨난 다음 만나보고 오십시오.》

《아니, 당위원회가 계획하고 포치한 사업인데 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겠습니다.》

병철은 미소가 비낀듯 한 정호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가방에서 사무용지를 한장 꺼내들었다. 거기에 몇자 적었다.

《정호동무, 일이 있어 떠나갑니다. 나도 동무의 입당보증인이 되고싶었습니다. 앞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병철은 편지를 접어 정호의 머리맡에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마구름을 헤치고 며칠만에 솟아오른 태양이 정호의 침상에 찬연한 빛을 던져주었다.

상 식

지난 세기 축구력사의 10대사변

1. 1904년 5월 21일 국제축구연맹이 창설되었다. 당시 7개 나라가 가입하였다.

2. 1908년 제4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축구가 정식 올림픽종목에 포함되었다.

직업축구선수들은 참가할수 없었다.

3. 1930년 7월 우루과이에서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4. 1956년에 유럽선수권보유자컵축구경기대회가 처음 조직된 이후 유럽우승자컵축구경기대회와 유럽축구연맹컵축구경기대회가 열림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3대컵축구경기대회가 생겨났다.

5. 1974년에 제10차 월드컵경기대회가 처음으로 인공지구위성을 통하여 TV실황중계되었다.

6. 1992년에 직업축구선수가 올림픽경기에 참가

할수 없다는 제한조치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나이를 23살미만으로 제한하였다.

7. 1991년 12월 세계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8. 1970년 브라질팀은 세번째로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줄리어스 리멧컵》을 영원히 자기의것으로 만들었다.

9. 1996년 나이지리아팀이 올림픽경기대회 축구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음으로써 아프리카축구가 국제축구계의 중요한 역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0. 1996년에 벨지끄축구선수 보스만이 선수이전 통제체제에 불만을 품고 유럽축구연맹을 국제법정에 기소함으로써 보스만법이 채택되고 선수들이 자유로이 소속팀을 옮기게 되었다.

시 조

꽃다발을 받아다오

심 영 일

군관안해

이 세상 사나이들중
가장 억센 사나이들을 섬기고있다
군관의 안해

이 세상 길중의
가장 멀고 험한 길을 견고있다
군관의 안해

여린 팔다리로는
남편의 고지에로
탄약상자를 나룰수 없기에

심장이 약해선
남편을 대신하여
원주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을수 없기에

강하여졌다
격침의 타격으로 총탄을 발사시키듯

남편을 힘있게 떠밀어줄 안해

이 나라 총대기둥들
더 굳건히 뻗쳐 서있으라
한몸 그대로
억척의 주춧돌이 된 안해

이들이여라
판가리결전의 그날
남편이 전장에 쓰러진대도
그의 총 틀어잡고 끝까지 싸워
공화국기를 휘날려야 할 녀성들

오, 이들이
선군의 한쪽수레바퀴를 앞장서 끌고있다
이들이 전호에 부사수로 서있어
조국은 더욱 억세고 강한것이다

식지 않는 가마

언제면 남편이 돌아오려나
가마전에 손 대보며
마치 사랑이 식는것만 같아
서둘러 군불 지피던 그 마음

식을 새 있었던가 군인가족의 가마
병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은
달력의 동그라미 짙어가며
남편을 위한 정과 함께
병사들 위한 마음 같이 끓이며

한가정을 넘어
중대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가마는 식을 새 없었다
목표판에 통구멍 났 병사들 밝은 눈 위해
밤새워 솔잎차도 끓이고

밥맛 잃은 초소의 막병이를 위해
남다른 정 쏟아붓던 가마

이 가마에서 올려나왔다
눈보라 사나운 행군길
안해가 끓여온 콩국을 훌훌 불며
천리길도 문제없다
병사들 터치던 호탕한 웃음소리가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비발치는 탄우속을 이고 달려가신
그날의 끓는 죽가마처럼
병사들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순간도 식을줄 모르는 가마여서
이 가슴 더 뜨겁게 달구어주노라

부사수

안해가 시집온 첫날
동네녀인들 입을 모아
나에게 건넸던 말
《원, 부부오누이라더니...》

가족소대 소대장이 된 날
녀인들 또다시 말을 거네
《어쩔 남편을 꼭 닮을가...》

싫지 않았더라 그 말들이
분대장 닮는 병사를 칭찬하는것만 같아
나의 뒤에
믿음직한 방조자가 생긴것 같아

병사들 위한 그 진정
탄약통인듯 이고지고
멀고 험한 행군길도 따라서는 안해

남편처럼
총대를 사랑하고
명사수의 꽃송이도 피우는 안해

때로는
다정히 들어준 병사들 귀속말도

남편의 바른 걸음 되게 해주고
남편의 속생각도 미리 알아
제 먼저 앞장서는 안해

그렇더라 안해는
어머니조국이 맺어준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전우

싸움의 그날엔
탄띠도 물려주고
달아오른 총신도 교체해주며
사수의 런발사격 보장해갈

안해, 그대는
나의 미더운 부사수여라

새 구두

결혼식날 한번 신어본
아직 새것이나 다름없는 안해의 구두

미안하구나
나 아니면 저 구두
어느 강변의 유보도를 밟을지도 모를
내가 아니었다면
어느 무대의 꽃보라에 묻혔을지도 모를

허나 안해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탓함이 없이
그 구두 로동화로 바꾸어신고
얼마나 멀고 험한 길 걸어왔더라
진창길 구정물에 발을 잠그며
돌발길에 물집잡힌 발을 끌며

그 얼마라
비내리는 부엌지 흙탕에 주저앉아

꺾진 신발을 손질하던적은
탄약상자인양
음식을 가득 이고 고지에 오르며
그 신발 돌부리에 걸채인적은

지쳐 쓰러진 밤이면
안해는 자주 꿈을 꾸었다
신발 앞코승이에 내려앉은
꽃나비 팔랑 날아오르는...

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남편따라 먼길 걸은 녀장부라고
품에 안아 기념사진 찍어주신 날
안해가 신은 새 구두

수십킬레의 낡은 신발을
그 구두가 빛내주었다
초소에 바쳐가는 마음
이 구두에 보석처럼 어려있다

꽃다발을 받아다오

씩살배긴 손이라
등뒤에 감추지 말고
꽃다발을 받아다오 안해여

늘 입고다니던 수수한 작업복
오늘만은 잠시 벽에 걸어두시라
해별에 타고 거칠어진 얼굴을
이 꽃다발에 한껏 묻으시라

그 수고로움 많다 해도

내 언제 안해 자랑 생각이나 했으랴
허나 오늘은 자랑하고싶노라

나의 안해만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군관안해들을
축하의 꽃수레에 태우고싶다
위대한 령장의 축복받은 안해들을

아, 가슴뜨거워라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군관의 안해들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머느리라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담아 하신 말씀

낳아준 친부모도
사랑하는 남편도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이 아니냐

초소를 찾으시면
뿌리처럼 숨은 녀인들 수고 헤아려
품에 안아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육탄이 된 영웅의 안해들에겐
영생하는 남편을 더 가까이 세워주신
위대한 사랑이 그대들을 굶어보살피나니

내 이날이때껏
맘속에서 꺼내지 못했던 말
이제는 소리높이 터치노라

나의 안해를 나는 자랑한다고!

터치노라
사랑으로 강해지고
사랑으로 더 아름다워진 그 모습들을
이 세상 녀인들 부러움에 찬 눈빛앞에
보란듯이 자랑하노라

오, 축하를 받아다오
축복받은 안해들이여
내 삼가 엮은 노래의 다발
이 나라 군관남편들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로 어서 받아다오

위대한 령장의 축복과 더불어
조국애의 그윽한 향기 풍기며
내 나라의 자랑으로
선군조선의 꽃으로 만발하게 피어있으라

.....

탄전마을사람들

류 정 실

삿갓봉기슭을 감돌아간 철길에
탄전의 숨결을 엮고사는 사람들
일터는 천척지하에 있어도
마음은 온 나라를 안고사는 사람들

봉—
때없이 울리는 열차의 기적소리에도
창문을 열고 내다본다
석탄을 실은 차판의 긴긴 흐름

기적소리에도 실려오는 석탄의 무게
아이들 마음되어 세여보는 차판
탄부 어찌 우리들뿐이라
아이들도 녀인들도 세여보는 차판의 긴긴 행렬

반갑다 기관사동무여
우리들이 켜 석탄을 싣고간다고
발전소사람들의 고마움의 인사담아
정답게 손저어주는 기관사동무여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는 때는 미처 몰랐어도
그 기적소리 왜 이리도 생각깊은가
석탄산이 흘러흘러 발전소로 옮겨가듯
실려가는 차판을 보니 깊어지는 생각

전선이란다 탄을 캐는 지하막장
전선이란다 전기를 일구는 발전소
우리는 서로 멀리 있어도
한전호속의 전우들

탄부 우리는 잘 안다
탄약은 승리의 열쇠
석탄없는 발전소는
탄약없는 고지임을

석탄은 열이며 빛 노래이며 웃음
석탄없는 우리 생활 생각할수 없기에
탄전마을에 울리는 새벽기적소리는
공격전으로 부르는 힘찬 나팔소리

기관사동무 더 크게 울려다오
그 소리 고마움의 인사만이 아니다
더 많은 석탄을 보내달라는
한전호속 전우들의 부탁인줄 우리 알거니

새해의 첫아침
불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막장으로 향한 탄부들의 발걸음
조국의 열과 빛이 된 탄전마을사람들

연 단

가사에서 세부형상의 특성을 되새겨 보다

차 명 철

가사의 세부형상은 다른 시형태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높은 정책적안목과 창조적립장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롭고 의미있는 종자를 찾아내고 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가사의 세부형상은 무엇보다먼저 함축된 형태로 간결하게 그려진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서정적표현에서 정수적인것을 고도로 함축하여 표현하자면 시적계기를 참신하게 선택하고 대담한 비약과 생략, 표현의 간결명료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정적표현방식에서 함축은 본질에 있어서 정서적여운을 남겨주기 위한것이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는 특이한 시형태라고 말할수 있다.

가사는 짧아도 거기에는 독창적인 종자와 뚜렷한 주장, 개성적인 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즉 가사는 말그대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한편의 서정시로 되어야 한다.

가사가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는 곡을 붙이지 않아도 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도록 써야 한다.

가사는 서정시의 정수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일반서정시보다 생활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철학적사색이 깃든 풍만한 서정이 넘쳐흘러야 하며 고도로 정제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래야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있다.

짧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서정시, 시문학으로서의 가사문학의 특성으로부터 세부형상이 보다 간결하여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가사가 가지게 되는 절과 행의 규칙적인 갇춤새는 자유분방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틀을 가지고있으므로 고도의 정제된 사색속에서 함축되고 비약된 세부형상을 창조리용할것을 요구한다.

실례로 가사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전동우)를 들어보자.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는 수도 평양에 대한 서정가사이다.

시인 전동우는 평양에 대한 가사를 여러번 썼지

만 서정가사로는 처음 썼다.

이미 썼던 가사들은 찬가풍의 가사와 민요풍의 가사였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였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평양에 대한 정답고 깊이있는 가사를 쓰겠는가 하고 생각해오다가 서정가사를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때 평양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들끓고있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인들과 작곡가들에게 평양의 밤에 대한 노래를 새로 지을데 대한 파업을 주시였다.

시인은 그때의 흥분을 적은 창작수기에서 밤을 노래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만이 일깨워줄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썼다.

시인은 평양의 밤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평양의 밤은 아름다울뿐아니라 얼마나 많은것들이 가슴에 속삭여주는가.

평양의 정겨움, 애뜻한 정, 추억, 행복, 희망... 가슴을 찢릿하게 하는 이 모든것이 그 밤모습속에 있었다.

바람결에 잎새 흐느적이는 저 한그루 가로수에도, 걸음을 받들어주는 발밑의 보도블록 한장에도 깨끗한 구슬땀이 스며있어 그 어디나 무심히 거닐수 없는 사랑의 거리...

여기서 시인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이 행복이 이 세상 행복중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행복이라는것을 삶의 순간마다 새기며 체험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평양의 밤이 가슴이 부풀고 설레여 한밤이 지새도록 정다운 동무와 끝없이 걷고싶은 아름다운 밤으로 느껴졌으며 창작적기쁨과 흥분속에 잠겨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를 짧은 기간에 쉽게 써낼수 있었다.

고요한 강물우에 불빛이 흐르네
못 잊을 추억을 안고 내 마음 설레네
끝없이 걷고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이 가사는 서정적주인공이 평양의 밤을 두고 생각에 잠겨 대동강반을 거니는 작은 생활적내용을

담고있다. 시인은 평양의 밤의 수만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누구나 다 정깊이 간직하고있는 대동강반의 밤전경을 단 한줄의 세부적인 정서로, 화폭으로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가사의 첫 시행이 창작의 전과정을 성공으로 떠밀어준 발판으로 되었다는것을 상기해볼 때 세부를 간결하면서도 뜻깊게 그리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다.

고요한 강물우에 불빛이 흐르네

뜻깊은 이 세부가 있음으로 하여 시인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그 어떤 파동도 불안도 모르고 이밤을 속삭이는 우리 인민의 한없이 안정되고 행복이 무르익는 생활감과 휘황한 미래에로나래치는 강렬한 지향을 자연스럽게 펼쳐보일수 있었다.

가사의 세부형상은 또한 가창성을 가진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가사를 노래로 부르는 시라고 하는것은 가사가 노래로 불리워질것을 전제로 씌여지는 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 일반서정시들보다도 음악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사가 곡과 함께 노래로 부르는 시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사가 가지고있는 음악성의 고유한 특성이란 가사에 음악선율이 배태되어있다는것이며 따라서 곡상을 예상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를 읽을 때에 노래를 부르는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성질이 바로 가사에만 있는 고유한 음악적특성이다.

이것은 가사형상생리의 기본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의 운률적특성, 가사의 형상생리특성을 가사의 가창성이라고 한다.

가창성은 선물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일반시들에서도 운률은 생명요소로 된다.

그런데 가사의 운률은 거기에 곡을 붙여 즉시 노래로 불려야 하는것만큼 일반서정시들과는 달리 구절구절을 읊어만 보아도 저절로 노래처럼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창성인것이다.

가창성이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것과 같은 성질을 말한다.

가창성은 선물의 본성적요구이다. 가사는 선물을 달아서 노래로 부를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애초부터 선물을 붙일수 있게 씌여져야 하며 따라서 노래로 부르는것과 같은 성질 즉 가창성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홍단수 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
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추네
수령님 지어주신 그 이름도 대홍단

금나락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아득히 구름우에 펼쳐진 백두벌
온 세상 부러울게 풍년가를 부르네
그림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홍단
기쁨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인민의 무릉도원 펼쳐여주시려
수령님 한평생 가꾸신 풍년벌
그 뜻을 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대홍단
충성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가사 《대홍단삼천리》)

이제는 옛 전호에 탄피도 삭았으리
고지엔 산딸기가 빨갱게 익었으리
그러나 잊지 마시라 그 열매 드리운 땅에
그 땅에 묻혀있는 탄피를 탄피를

땀배인 군복속에 전사가 간직한것
어머니편지인가 마라초쌈지던가
전사는 품고산다네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히 안아지킨 조국을 조국을

불타는 전호에서 전사가 그린것은
고향의 물맛인가 구수한 흙냄새가
전사는 못 잊어라 참다운 삶을 누린
고마운 장군님의 그 품을 그 품을

전사들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우고도
자그만 엽서 한장 고향에 보내었네
어머니 잊지 마시라 싸움은 힘겨웠어도
장군님 계시기에 이겼네 이겼네

(예술영화 《전사들》의 주제가
《전사의 노래》)

가사를 읽어내려가느라하면 그대로 곡이 떠오르고 선물을 부르느라하면 내용이 안겨오는듯 한 이 노래들은 가사와 선물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생활의 리듬이 그대로 시적리듬, 음악적리듬으로 안겨온다.

《홍단수 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추네》라는 가사의 구절은 대홍단벌에 펼쳐진 감자바다의 풍경을 화폭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 풍경에 대한 선물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고있다.

특히 《금나락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기쁨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 《충성도 삼천리요 노래도 삼천릴세》라는 매 절의 마지막 행들은 그대로 시적리듬, 음악적리듬으로 안겨오고있다.

또한 《전사의 노래》에서는 가사에 반영된 모든 세부형상들이 노래하려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자연

폐성강에 발전기가 왔다 외 1편

리영일

발전기가 온다고 웨치는
신호공처녀의 기쁨에 찬 목소리
발전기실마당에 펼쳐나온 돌격대원들
대형련결차를 둘러싸고 떠들썩

어디 보자
이게 바로 폐성강청년4호발전소의 심장
우리네 발전기란 말이나
이렇듯 크고 우람차단 말이나

돌격대원들 대안에서부터 단숨에 달려온
운전사를 취올리니
준공을 앞에 둔 이 경사는
마치 그가 다 실고온듯싶구나

청천강전역의 건설자들과 어깨를 결고
비약하며 내달려온 발전소건설의 나날
비바람도 눈보라도 웃으며 헤치며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것도
다름아닌 오늘의 이 기쁨을 위해서였거늘

이 시각엔 높이 솟은 언제며 발전기실이
별스레 더욱 눈부시게만 보인다

거세차게 흐르는 폐성강도
온통 빛과 열의 흐름으로 안겨든다

아, 불수록 장군님 생각에 눈곱이 젖는다
한겨울의 매향 추위속을 헤치시여
몸소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신 장군님
폐성강청년3호, 4호, 5호발전소도 다 보아주시
겠다고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하신 그 말씀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원수님따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속도에
전기의 흐름속도로 화답하며
우리는 이제 굵이굵이 폐성강반에
발전기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러니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발전소의 발전기야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 강반에 자리잡아
결사관철로 불타던 심장들의 박동을 울려다오
이 땅의 영원한 부강번영을
세세년년 기운차게 노래해다오!

아들애가 보내온 편지

수문조립이 한창인 언제우에서
고향에서 보내온 지원물자를 받아안았으니
이처럼 기쁘고 반가울 때가 또 있으랴
그속에 아들애가 보내온 편지도 있었네

바다 먼 산촌에서 멋진 빠스를 타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다녀왔다는 소식
글쎄 원수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축구경기도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보고
축포구경도 하였다는 소식

꿈인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축복
평범한 발전소건설자의 자식인
내 아들이 받아안았던 말인가

원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소년단조직생활도 잘하겠다고
또박또박 바아쓴 아들의 편지를 보니
눈가엔 핑그르 눈물이 고이고

모두가 제집자랑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는 소대원들
오늘의 언제수문조립성과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은 내 아들의 뒤편이라누나

보고싶은 아들아
이 아버지 어서빨리 발전소를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련다
이 땅위에 넘쳐나는 사회주의만복을
꺼질줄 모르는 빛과 열로 빛내련다

월참이 끝나지도 않았건만
나는 어느새 일손을 잡았는지 모른다
아들이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고싶을뿐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 일하고싶을뿐

고향에서 아들애가 보내온 편지
내 심장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주었네
발전소건설의 영웅이 되고싶은
크나큰 기적과 위훈의 갈망을 안겨주었네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작가 알퐁스 도대와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

작가 알퐁스 도대(1840—1897)는 방직업을 하던 부모들의 덕택으로 비교적 유족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후 부모들의 파산으로 한지에 나앉게 된 도대는 궁여지책으로 과외학습감독교원으로 일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문학에 남다른 포부를 지니고있던 도대는 18살에 빠리로 와서 한 귀족의 서기로 되었다. 그는 소설 《꼬맹이》(1862)를 창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힘을 얻은 도대는 자기의 고향을 무대로 한 단편소설집 《풍차방아간소식》을 출판하여 작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도대는 그후 희곡 《아를루의 여자》를 내놓았는데 이 희곡은 음악가인 비제에 의하여 가극으로 각색된 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70년 프랑스—프로씨아전쟁을 겪은 도대는 높은 비판적안목을 가지고 프랑스의 부패한 현실을 대하였다. 당시 제2제국의 통치밑에서 비참한 생활난에 허덕이던 빈민들과 무굴충같은 부르쥬아지들의 생활을 생동한 필치로 그려낸 단편소설집 《월요일이야기》(1873)와 장편소설 《파르스퐁태생의 파르파랭》(3부작)은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그후에도 도대는 독점적자본주의의 길로 줄달음치는 프랑스제국주의현실을 비판한 장편소설 《프로몽과 라슬레르》(1874), 정경유착이 더욱 심해지는 프랑스의 금융과두정치의 흑막을 예리한 필치로 해부한 소설 《작꼬》(1876)와 《나바브》(1877), 종교계와 학계, 문학예술계에 존재하는 부패한 현상들을 신랄하게 폭로단죄한 소설 《전도사》(1883), 《싸포》(1884), 《불멸의것》(1888) 등을 창작하였다.

도대의 창작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단편소설 《마지막수업》(1873)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

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소설은 19세기 말엽에 민족수난의 비극을 겪은 프랑스의 북부지역인 알사스인민들의 불행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프랑스—프로씨아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1870년 프랑스황제였던 나폴레옹3세는 유럽을 지배하려는 과대망상적인 전쟁열기에 들떠 도이칠란드의 프로씨아공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것을 국가통일을 위한 절호의 계기로 여긴 프로씨아공국 채상 비스마르크는 《국가방위》의 미명하에 제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프랑스와의 전쟁을 벌렸다. 전쟁결과 프랑스는 패하고 도이칠란드는 프랑스의 북쪽에 위치한 공업지역인 알사스—로랭지방과 50억프랑의 막대한 배상금을 강탈하였다.

단편소설 《마지막수업》은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도이칠란드에 병합된 알사스인민들의 불행을 보여주는데 모를 박고있다.

소설에서 《나》(주인공)는 이날도 학교에 지각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엄격한 선생님의 추궁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않고 놀러다닐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후에 들켜날 일이 걱정되어 마지못해 학교로 간다. 학교에 들어서니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어느때 같으면 책상서랍을 여닫는 소리, 글읽는 아이들의 청높은 소리, 아멜선생님의 추궁소리로 하여 교실안은 온통 수라장이 되곤 하였던것이다. 조심스레 교실안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레복을 차려입은 아멜선생님이 아무말없이 그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더욱 이상한것은 동네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처럼 교실구석에 앉아있는것이다.

아멜선생님은 비통한 표정으로 베를린으로부터 알사스—로랭지방의 모든 학교들에서 도이칠란드를 가르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하면서 프랑스어로 마지막수업을 하겠다고 한다. 그 순간 《나》는 지난 시기 학교에는 오지 않고 새둥지를

털고 짜르강에 나가 얼음지치기를 하며 시간을 헛되게 보낸 일들을 후회한다.

선생님은 먼저 숙제검열을 한다. 《나》는 문법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여 꾸중을 듣는다. 선생님은 편민이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프란츠, 나는 너를 추궁하지 않으려다. 너는 이미 충분하리만치 량심의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오늘 못한걸 래일 공부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이다.

그런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뉘우치고있다.

아!... 교육을 늘 래일로 미루어오던것이 바로 우리 알사스의 커다란 불행이었다. 앞으로 프로씨아인들이 〈너희들이 프랑스인이었다구? 그런데두 프랑스글을 읽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비웃어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프란츠, 가엾은 프란츠야, 결코 너에게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반성해야 한다.

...

내 잘못도 크다. 나는 너희들이 웅당 공부해야 할 시간에 교정의 나무와 꽃들을 가꾸게 하였다. 너희들이 칠색송어를 낚으러 가고싶어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었다.》

이윽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프랑스어 문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나》는 평소에는 것처럼 어렵게만 생각되던 문법이 너무도 쉽게 이해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다음시간은 쓰기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아멜선생님이 성의껏 준비한 《프랑스》, 《알사스》 등의 글본보기들을 보고 열성을 다해 베껴쓴다. 어쩌나 열중했는지 풍덩이 한마리가 교실안에 날아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눈을 팔지 않는다. 세번째 수업은 력사시간이다. 프랑스 력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다같이 교과서에 있는 노래를 부른다.

교회당에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프로씨아군 신호나팔이 들려오자 수업은 끝난다. 아멜선생님은 목메인 소리로 《학생들.》하고 부르더니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흑판에 큼직하게 《프랑스 만세!》라고 쓴다. 이윽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작품에서 강조되고있는 사상은 우선 나라를 잃으면 민족적존엄도 언어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이다. 소설은 공부를 제때에 잘하지 못한것이 조국에가

부족한 표현이고 조국앞에 죄로 된다는것을 깨닫는 주인공 《나》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지 못한 일을 두고 가슴아프게 뉘우치며 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목청껏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르는 마을어른들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를 잃게 되면 제 나라 글도 지켜낼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민족적존엄도 고수할수 없는 망국노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사상을 절절하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에서 강조되고있는 사상은 또한 애국심을 굳건히 간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소설은 어린 소년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려는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무서운》 아멜선생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아멜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프랑스 만세!》라는 글에는 자기의 조국인 프랑스가 하루빨리 강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학생들이 후회없이 조국을 사랑하고 영원히 잊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져있다.

단편소설 《마지막수업》은 일인칭소설이다. 작품에서는 일인칭수법을 리용하여 주인공 프란츠의 동심세계의 변화과정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그려보여주었다. 프란츠의 심리적변화는 철부지소년의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망국노의 처지에 빠진 소년의 심각한 사색으로 상승하는 극적인것이며 이것은 일인칭형식으로 씌여진것으로 하여 그 진실성과 생동성이 더욱 살아나고있다.

작품에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를 사랑하는 정신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작가는 나라를 빼앗긴 프랑스인민의 불행한 처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못하고 알사스인민들과 아이들이 모국어를 더는 배울수 없다는 시점에 와서야 그 불행의 깊이를 느끼고 가슴아파하는것으로 그리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모습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여기었으나 그 불행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지 못한 작가의 사상적제한성에 원인을 두고있다.

그러나 단편소설 《마지막수업》은 프랑스-프로씨아전쟁으로 인한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보여주고 프랑스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주의정신을 진실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김 지 예

안 꺾 미 인

민 경 옥

지난해 《조선문학》잡지 8호에 실렸던 단편소설 《소방울소리》는 그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작가의 사색어린 탐구와 기교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특색있게 엮어진 구성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안겨오는 생활세부들은 소설의 매력을 돋구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형상이 진실하게 되려면 하나하나의 생활세부들이 잘 그려져야 합니다.》

형상에서의 생동성과 진실성은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이며 독자들은 소설에 그려진 생활이 자기들이 실지 체험하고있는것과 같이 안겨올 때 흥미를 느끼고 읽어나가게 된다.

예술형상의 생동성, 진실성이야말로 가장 위력한 견인력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견인력을 낳는 비결이 바로 생활세부묘사를 잘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단편소설 《소방울소리》는 생활세부묘사를 잘하여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보장한 안꺾미인파도 같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소설에서는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독특한 세부들을 선택하였다.

소설에서는 우리 일군들의 사업작품, 군중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알곡증산의 예비는 군중속에 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해서는 군중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작가는 현시기 당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1970년대 첫째의 농촌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지난날 지주놈의 윤두소가 되어 소대신 멩에를 쓰고 농사를 짓던 피눈물의 그 시절을 망각하고 대중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경영위원장 윤덕수의 성격발전과정에 모를 박고 주체해명에 알맞고 성격의 특징을 체현하고있으며 깊은 감명을 주는 심리정서적인 생활세부들을 선택리용하였다.

소설에 나오는 《벚타이깁》세부라든가 머슴살이세부는 윤덕수의 수박겉핥기식사업작품과 그의 성격발전의 전환점을 보여주고있으며 《망골》, 《10톤》으로 제목화된 생활세부들은 어떻게 해서나 기어이 10톤을 해내려는 춘림이의 이악쟁이성격과 그를 도와나서는 무렬의 우뚝하면서도 허심한 진취적인 성격을 인상깊게 드러내보이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이러한 생활세부들은 작품의 사상

예술성을 높이고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방불히 안겨오도록 하는데 이바지되고있다.

특히 《수령논》, 《소방울소리》에 그려진 무렬의 성격은 참으로 진실하게 안겨온다.

어머니 다음가는 귀중한 존재인 프락포르의 쭈그러진 모습을 보는 순간 리성을 잃고 춘림이 실려간 리병원으로 달려가는 무렬, 하지만 상처를 싸맨 처녀의 하얀 봉대앞에서 차마 소리칠수 없어 그는 모자를 움켜쥐체 튀어나와 한달음에 농장에 내려오고만다. 그후 무렬은 점차 춘림이 없는 들판의 한적함을 느끼게 되며 그럴수록 프락포르가 상한것은 가슴아파하면서도 춘림이 상한것은 관심에도 두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그에게 꼭 사죄하리라 마음다진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헤쳐보일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적극 탐구리용함으로써 생활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다음으로 소설에서는 선택된 생활세부에 대한 묘사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있다.

소설문학은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상에 술적질이 크게 좌우된다. 아무리 큰 사상을 심어놓아도 문장이 읽을 맛이 없으면 독자의 마음을 끌수 없다. 작가가 얼마나 특색있는 표현으로 구사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심리나 행동, 외형이 새로운 형상으로 안겨올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늘 들군 하는 일반적인 표현들과 특색없는 문장들로 이어놓은 글은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을 낳을수 없고 독자들에게 인차 싫증을 느끼게 한다.

작품에서 개성이 엿보이는 특색있는 말로 나타낸 한두마디의 표현은 백마디, 천마디와도 견줄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단편소설 《소방울소리》에서는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 현상들을 묘사함으로써 소설형상의 정서성을 높이고 생동성과 통속성, 간결성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직유법, 과장법을 적극 활용하여 사상적내용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고있으며 그 정서적감화력을 높이고있다.

《…돌연 호르레기소리가 귀청따갑게 프락포르쪽을 향하여 날아왔다.》

《나는 그때 작업반장에게서 짜증섞인 추궁을 듣던 일이 생각되어 썩은 콩을 씹은듯 미간을 찌프리였다.》

《춘림의 마지막말이 돌덩이처럼 날아와 내 심장

을 텅 울리고 튀어났다.»

《안타깝고 야속한 시간이 한초한초 육박해들어 왔다.》

《10톤을 위하여 구슬알같은 자기의 땀방울을 별판에 뿌리며 뛰어다녔다.》

소설에서는 직유법을 적절하게 살려쓰면서 그 비유대상을 농촌의 향토적색채를 살릴수 있게 농촌생활과 관련된 사물, 현상으로 일관시키고있다.

《그날아래 자란 싱아대같이 껍두룩하고 만문하게 생겨먹은...》

《얼굴이 꼭 시루속의 콩나물처럼 새말간것이...》

《동문 전주대처럼 키만 멋없이 껍두룩해가지구 하늘고추만큼 쪼꼬만 체네한테 꼭 쥐어서 넌장...》

소설에서는 또한 본판말을 적극 살려씀으로써 대상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수 있도록 실감있게 그리고있다.

《무릎이 와당탕통탕 프락포르의 속력을 높이는 바람에 옆을 지나가던 해반지르르하게 생긴 처녀가 갱충 놀라 토끼땨를 하더니 길옆 코스모스꽃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다.》

《춘림분조장이 다람쥐처럼 뽀르르 달려왔다.》

《그리고는 남남 맛있게 먹어대며 조알조알 이야기를 내리엮기 시작했다.》

소설에서는 이와 함께 참참, 승승, 달달, 장참, 예라, 훌쩍, 닝큼, 이왕사, 허참, 동동, 말짱, 냉큼 등과 같은 입말체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하고있다.

《나는 덧이를 살짝살짝 드러내며 안달이 나서 콩당거리는 그를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예라, 이왕지사 욕벌이를 한바엔 직성이 풀리게 말짱 들어준다 하고 선선히 프락포르를 끌고 새초등판에 다시 나갔다.》

이처럼 단편소설 《소방울소리》는 비록 인물관계가 이여의 작품들과 류사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은 있으나 특징적인 생활의 단면들을 골라잡고 거기에 력점을 찍어 감칠맛이 나고 구수하게 묘사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현실에 있는 의의있는 생활을 적극 찾아내어 훌륭한 세부와 훌륭한 묘사로 훌륭히 구사하기 위해 자신들의 창작적자질과 기량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3호 (루게 제809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4 (2015) 년 3 월 1 일

발 행 주 체 104 (2015) 년 3 월 5 일

ㄱ-56025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